



1

1989

문학예술출판사

묘향산가을날에

—국제친선전람관에 올라—

김일성

로대우에 올라서니 천하절승 예로구나
묘향산절경이야 태고부터 있는것을
전람관 여기 솟아 푸른 추녀 내려퍼니
민족의 존엄 빛나 비로봉 더욱 높네

만산에 붉은 단풍 가을마다 붉었으리
로동당 새 시대에 해빛도 찬란하니
단풍도 고와라 더욱 붉게 물들면서
산천에 수놓누나 이 나라 새 역사를

사대로 망국으로 수난도 많던 땅에
온 세계 친선사절 구름같이 찾아든다
5천년력사국에 처음 꽃핀 이 자랑을
금수강산 더불어 후손만대 물려주리

1979년 10월 15일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9. 1호

(루계 495)



차 례

묘향산가을날에	1
설인사	4
천년을 피워도 만년을 피워도... ..	5
우리 인민의 존엄과 민족적 긍지에 대한 불멸의 송가.....	6
백두산으로 오르신 길	9
불후의 고전적 명작 《묘향산 가을날에》는	
나의 심장에 무엇을 심어주었는가	10
내 나라는 시가 많은 나라다	11
조선시인의 행복	12
아, 혁명의 길	12
하루길을 떠나며	13
축원	14
김정일 그이는 위대한 계승자.....	14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창조의 나날에	
깃든 불멸의 이야기.....	15
나는 책임진다.....	18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위업실현으로 힘차게	
고무하는 혁명의 참된 교과서	19
그 사랑 그 은정에 목이 메여	23
광복거리에 울리는 사향가	24
조국엔 영웅이 있어야 한다	24
좋다! 직선동쪽	25
그 나날에	26
조국과 병사	33

시를 두고 갔다	33
청춘의 삶이 빛나는곳	34
로반을 걸으며	37
조선의 보통날에	37
전선은 종대로	38
《평양이 보인다!》	39
평양은 기다린다	41
소원	42
신입병사에게	43
4 부자의 대답	44
인간의 참된 사랑을 보여준 감동적인 형상	47
벗들을 기다리는 마을	49
비오는 들에서	50
전환의 해, 비약의 해로 되게	59
당의 숨결에 맞추어	59
혁명적으로 살며 전투적으로 창작하겠다	60
사색의 자취가 있는 평론을 쓰렵니다.....	60
수호자의 모습	61
영웅적인 현실속에서.....	72
못가의 피리소리	74
평양과 나.....	75
발파시간은	77
반지	77
정해진 운명	78
계급투쟁의 진리를 밝혀주는 혁명적인 가사	79

설 인 사

신진순

해를 따라
더더욱 젊어지시옵기를,
세월의 끝까지
만년장수 하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는 축원
이 해의 설인사 삼가 올리옵니다

백두의 그 시절처럼
오늘도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련이은 200일전투로
빛나는 세기의 령마루로 조국을 이끄시는
어버이수령님

해마다 그러했듯이
설을 맞는 이 아침
다시금 가슴속에 뜨거운 생각
우리의 소원
세기의 소원
오로지 한가슴에 다 안으시고
그토록 찬란히 꽃피워주시는 수령님 위해
무슨 일을 더하면 기쁨을 드릴수 있을까

수령님 이끄시는
대건설행군길에
나도 흰머리 정차게 감아올리고
한몸 바쳐 뛰어들리라
오직 그이 주신 사상의 숨결로
내 온갖 잡바람을 밀어버리며

내 숨지는 순간까지 뛰고 또 뛰리라

인류의 태양
우리 수령님
무궁무진한 예지로
위대한 령도로 이끌어주시는
이 길에서 내 늙었다고
잠시나마 주저하리까

더는 이 땅에
분렬의 세월이 흐르지 못하게
발악하는 제국주의
독물은 발톱이
더는 지구를 허비지 못하게
성스러운 투쟁의 한길에
내 심장 다 바치리니

그러면
그러면
우리 수령님께
내 그이의 전사된 의리로
조금이나마 기쁨 드릴수 있을까

아, 새해의 이 아침
더더욱 간절해지는 이 마음
세상에서 제일인 우리 수령님
새해에도
옥체만강 하시옵소서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천년을 피워도 만년을 피워도...

김성조

천년을 피우면
꽃에 담긴 그 뜻을
내 다 헤아릴수 있을까
만년을 피우면
꽃에 어린 그 사연을
내 다 안아볼수 있을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안아보면 안아볼수록
뜨거움에 목메이는
아, **김정일**화, **김정일**화여

세상에 아름다움만을 더해주자고
피어난 꽃송이라면
이처럼 가슴뜨겁지 않으리
세상에 향기만을 더해주자고
피어난 꽃이라면
이 가슴 이다지도 설레이지 않으리

세기의 령도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우러르고 따르는
그 환희 그 마음이

한뼘으로 흐르고 한뼘으로 모이더니

아, 피어났구나
천만년 모시고싶은 그 소원
천만년 받들고싶은 그 축원
세상처음 꽃으로 피어났구나

피어났구나
인간만세의 세계를 비치는
향도의 그 빛발
향도의 그 사랑
못잊어 차마 못잊어
땅도 하늘도 아닌
만민의 심장에서 꽃으로 피어났구나

아, 심장에도 꽃송이
강산에도 꽃송이
무궁한 세월이 받아안은 **김정일**화여
대를 이어 피워갈 **김정일**화여
천년을 피워도 못다 헤아릴
그 뜻을 안고있구나!
만년을 피워도 못다 헤아릴
그 사연을 안고있구나

우리 인민의 존엄과 민족적 긍지에 대한 불멸의 송가

강능수

최근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친히 창작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묘향산 가을날에》**를 받아안고 무한한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있다.

고전적 명작 **《묘향산 가을날에》**가 것처럼 우리들을 격동시키고 환희와 기쁨에 휩싸이게 한것은 그것이 우리의 위대한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다함없는 송가로서 주체조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며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존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를 한없이 복돋아주기때문이다.

고전적 명작 **《묘향산 가을날에》**는 산천도 수려한 묘향산에 터를 잡아주시고 그 이름 **《국제친선전람관》**이라고 달아주시였으며 개관식날에는 친히 붉은천을 끊어주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관한뉘이 되는 1979년 10월 15일 또다시 국제친선전람관을 찾으시여 현지도하실 때 깊은 감회에 잠기시여 지으신 시이다.

모든 명작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불후의 고전적 명작 **《묘향산 가을날에》**는 읊으면 읊을수록 새로운 뜻을 안겨주고 깊은 사색과 크나큰 감동에 휩싸이게 한다.

가을날의 천하절승 묘향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계에 의탁하여 부른 고전적 명작 **《묘향산 가을날에》**는 묘향산의 자연경개처럼 아름다우면서도 깊은 서정으로써 처음부터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는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묘향산 가을날에》**는 무엇보다 우리의 위대한 주체의 조국에 대한 긍지와 거기에서 살며 혁명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행복에 대하여 깊이깊이 되새기게 한다.

**로대우에 올라서니 천하절승 예로구나
묘향산절경이야 래고부러 있는것을
전람관 여기 솟아 푸른 추녀 내려퍼니
민족의 존엄 빛나 비로봉 더욱 높네**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개념은 각이하다. 그것은 사람마다 생활처지가 다르고 개인적인 념원과 희망이 다르기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어떠한 조국에서 살며 자기의 삶을 빛내이고있는가 하는데 있다.

민족의 생명인 자주권이 있어야 사람들 자체의 자주성에 대하여 말할수 있으며 영광 떨치는 조국이 있고서야 인민의 영광에 대하여 말할수 있

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령토상으로 보아도 작은 나라이며 인구도 많지 못하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가 사상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처럼 민족의 위대성도 무엇보다 그 민족의 지도사상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데 따라 규정됩니다.》

민족의 위대성은 나라의 면적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 민족이 어떤 위대한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며 어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였는가 하는데 의하여 담보되는것이다.

이것은 력사의 엄연한 진리이며 우리 인민이 자신의 산체험을 통하여 체득한 더없이 귀중한 진리이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묘향산 가을날에》**는 국제친선전람관이 **《여기 솟아 푸른 추녀 내려퍼니 민족의 존엄 빛나 비로봉 더욱 높네》**라고 노래함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이 어떠한 보람찬 시대에 살고있으며 얼마나 높은 영광의 봉우리우에서 있는가 하는것을 돌이켜보게 한다.

우리 조국이 위대한것은 인류사상사에서 최고봉을 이루며 우리 시대와 미래를 대표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창시된 주체의 조국이라는데 있다.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자연과 사회와 자신의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밝혀주고 그것을 개척할수 있는 힘을 찾아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그 진리성과 과학성, 정당성과 생활력으로 하여 혁명하는 사람은 물론 자주적으로 살것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한 교과서로 희망의 등대로 되고있다.

우리 조국이 위대한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을뿐아니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 등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하신 거대한 업적으로 하여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로동운동 그리고 빨력불가담운동에 기여하신 탁월한 공헌으로 하여 위대한 사상가, 걸출

한 정도자로 높이 칭송받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과 정도와 인품을 그대로 지니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하시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하신 거대한 혁신과 기적으로 하여 그리고 세계혁명에 기여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정치가, 혁명의 향도성으로 높이 칭송받고있다.

참말로 것처럼 위대하고 탁월한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우리 인민들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영광넘친 인민은 이 세상에는 없다.

바로 국제천선전람관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주체사상이 낳은 고귀한 열매이며 거기에 전시된 수천수만을 헤아리는 개개의 선물들은 세계5대륙의 수많은 국가수반들과 당의 지도자들, 세계혁명적 인민들과 저명한 개별적 인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웅사시적 업적에 대한 칭송의 노래이며 인류해방위업에 기여하신 불멸의 공헌에 대한 축하의 꽃다발이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묘향산 가을날에》는 또한 우리 인민의 행복뿐아니라 그것이 어떤 품에서 태어나는것인가 하는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있다.

맑은 샘물이 사철 마를줄 모르는것은 땅속깊이 뿌리내린 샘터가 있기때문이며 우리 인민의 행복이 끝이 없는것은 한없이 자애롭고 따사로운 어머니 품이 있기때문이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묘향산 가을날에》는 우리 인민의 행복이 무엇에 의하여 마련되었는가 하는것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있다.

**만산에 붉은 단풍 가을마다 붉었으니
로동당 새 시대에 해빛도 찬란하니
단풍도 고와라 더욱 붉게 물들면서
산천에 수놓누나 이 나라 새 역사를**

고전적 명작은 묘향산일만봉이마다에 붉게 붉게 피어난 단풍빛에 비유하여 그보다 곱게 더욱 붉게 피어난 우리 조국의 전변의 역사, 천지개벽의 역사를 크나큰 감동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당에 의하여 마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고전적 명작은 당의 현명한 정도를 로동당 새 시대의 《해빛》으로, 우리 조국의 천지개벽의 역사를 단풍보다 더욱 붉게 물들여진 이 나라의 《새 역사》로 형상적 비유와 대담한 함축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 당의 고마운 품과 조국의 천지개벽에 대하여 생각하게 한다.

자연도 사회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며 사람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칠것을 밝혀주는 주체사상의 요구와 지난날 세기적 락후에서 해매이던 우리 조국을 로동당시대에 가장 발전된 사회주의강국으로 발전시키려는 우리 당의 드팀없는 결심을 뜨겁게 되새긴다.

나무 한대를 심어도 후손들을 위하여, 물길을 하나 짜는것도 인민의 편리와 복리를 위하여, 집 한채를 지어도 주체조국의 이름에 어울리게 현대성과 민족적 특성이 배합되게 짓는 우리 생활의 철리...

이 생활의 철리에 의하여 세기를 두고 버림받던 쑥대밭이 옥담으로 변하고 세계의 자랑인 서해갑문이 일떠서고 조국의 지도를 변형시키는 간석지가 옥담으로 서해바다가에 가없이 펼쳐지게 되었다.

사회도 변하였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먹을 권리, 배울 권리, 일할 권리를 보장 받으며 년로해서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규제받고있는 우리나라.

온 사회가 당의 품에 안겨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면서 동지애와 혁명적 의리가 인간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의 참다운 본보기이다.

사람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몰라보게 변하였는가. 사람들은 사람마다 당으로부터 사회적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정치적 생명을 받아내고 아름답게 꽃피우고있다.

매개 사람들은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룬 사회정치적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수령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그 어떤 명령이나 의무로 받아들이기전에 자신에게 베풀어지는 크나큰 사랑과 신임으로, 삶의 요구로 접수하고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여 관철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모두에게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시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아름답게 꽃피우도록 세심하게 보살펴주시고 따뜻이 이끌어주신다.

조국에 펼쳐진 천지개벽 그 어느 하나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존함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자신의 행복의 원천에 대하여 생각할 때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을 그리게 되며 그렇기때문에 더욱더 크나큰 기쁨과 감격에 휩싸이게 되는것이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묘향산 가을날에》는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주체조국의 공지를 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을 따라 영원히 나아갈 굳은 결의를 다지게 한다.

**사대로 망국으로 수난도 많은 땅에
은 세계 천선사절 구름같이 찾아든다**

5천년력사국에 처음 꽃핀 이 자랑을 금수강산 더불어 후손만대 물려주리

고전적 명작은 오늘과 같은 조국의 번영과 통성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심장으로 체득하게 한다.

참말로 **《사대로 망국으로 수난도 많던 땅에》**라는 구절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굴욕과 피눈물나는 민족의 수난의 역사가 비껴있는 것인가.

사대주의에 물젖은 봉건통치배들은 큰 나라를 섬기느라고 별의별 구실을 만들어 선물을 고여바쳤으며 나중에는 나라의 귀중한 재물까지 섬겨바치기까지 하였다.

사대주의자들은 영악없이 분파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파를 누르고 자기 파의 세력확장을 위해서는 나라를 팔아먹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굴욕과 피눈물로 얼룩진 민족의 역사였고 한숨과 개탄만이 서리서리 얹혀있던 이 나라 강산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떠한가.

바로 **《사대로 망국으로 수난도 많던 땅에 온 세계 친선사절 구름같이》** 찾아들고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인가. 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경사증의 경사이다.

우리 나라 속담에 흥한 집안에 손님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였듯이 우리 나라가 통성하고 번영하 온 세계 친선의 사절이 구름같이 찾아오고있는 것이다.

그것을 단적으로 과시하는 것이 국제친선전람관이며 거기에 소중한 보관된 수천수만의 귀중한 선물들이다.

묘향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계에 의탁하여 국제친선전람관에 대한 노래로부터 시작된 고전적 명작은 1편과 2편에서 감정을 축적해 오다가 여기 3편에서 폭발시켜 우리 인민의 존엄과 민족의 긍지에 대한 열렬한 칭송의 노래로 승화시키고있다.

고전적 명작은 이처럼 거대한 전변의 역사를 노래하면서 그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적 명작은 우리들로 하여금 민족대번영의 환희에 잠기게 하면서 한편으로 그 영광스럽고도 간고했던 항일혁명투쟁 역사를 뜨거운 마음으로 회상하게 한다.

이제는 먼 과거로 된 역사적 시기의 그날에 조선의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새 출발을 알리는 《E. C》의 결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선혁명의 주체적 로선을 온 세상에 선포했던 카륜회의, 혁명적 상비무력으로서의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선포, 조선인민의 반일통일전선체로서의 조국광복회의 결성을 선언한 동강회의...

조선혁명은 준엄한 시련을 수많은 겪어야 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적과의 싸움에서 피를 흘려야 하였으며 또한 주체의 기치를 고수하기 위하여 가슴아픈 고비도 수없이 겪어야 했다.

그러나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았으며 위대한 장군님따라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곳곳이 나감으로써 마침내 조국광복의 찬란한 해돋이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또한 고전적 명작의 **《사대로 망국으로 수난도 많던 땅에 온 세계 친선사절 구름같이 찾아온다》**라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시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으며 주체의 조국을 빛내이신데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한다.

우리는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주체를 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평화적 건설시기라고 하여 절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느끼고있다.

그것은 사대와 교조를 반대하는 투쟁이었으며 민족의 념과 조선혁명자체를 고수하기 위한 어려운 투쟁이었다.

우리는 이 어려운 투쟁에서도 승리하였다.

그렇기때문에 고전적 명작의 3편에서 **《5천년력사국에 처음 꽃핀 이 자랑을 금수강산 더불어 후손만대 물려주리》**라고 하시였으며 우리들은 어제와 오늘도 그러했던 것처럼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충성 다할 것을 굳게 굳게 결의하게 되는 것이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묘향산 가을날에》**는 3편으로 된 매우 짧은 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나큰 감동을 안겨주는 것은 작품에 담겨진 깊은 사상과 함께 최상의 높이에서 예술적 품위가 담보되어있기때문이다.

고전적 명작의 예술적 품위는 무엇보다 작품에 흐르는 서정의 폭과 깊이에 의하여 보장되고있다. 묘향산의 자연경개처럼 아름다운 서정미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대하와 같은 웅건한 서정을 담고있다. 이 아름다우면서 깊은 서정으로 하여 고전적 명작은 묘향산의 자연경개에 의탁하여 조국을 노래하면서도 자연이 환기시키는 정서를 유지할수 있었으며 또한 작품의 웅건한 서정으로 하여 자연에 의탁하여 노래하면서도 조국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노래할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러한 서정의 특성은 예술적 일반화의 폭을 무한대하게 넓히면서도 작품의 개성적인 특징을 살리며 작품에서 천명된 사상을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안게 하고있다.

그것은 묘향산의 자연경개에 의탁하여 국제친선 전람관을 노래한 고전적 명작이 사회주의조국

에 대한 송가로 발전하고 오늘의 조국이 5천년력사와 대비되어 그 위용과 슬기가 노래되면서도 자연스럽고도 감성적으로 안겨오게 한데서 표현되고있다.

고전적 명작의 최상의 예술적 품위는 풍부한 예술적 비유와 상징, 대담한 함축에서 환기되는 심오한 사상과 예술적 향취에서 그리고 평범하면서도 뜻이 깊은 시어, 인민적인 언어에서 표현되고 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묘향산 가을날에》는 희세의 걸작이며 대를 두고 보존하고 전하여야 할 국보이다.

희세의 걸작을 받아안고 무한한 감격과 기쁨에

휩싸여있는 우리 인민들은 바로 60여년전 불후의 고전적 명작 《조선의 노래》를 받아안던 그날의 감격을 되새겨본다.

그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얼마나 멀리 전진하여 왔던것인가.

불후의 고전적 명작 《묘향산 가을날에》를 받아안게 된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고 행복이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신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영원히 승리의 한길로 나갈것이다.

백두산으로 오르신 길

서봉재

오신 그 길
내 나라 들길에서 이으셨다면
오신 걸음
내 나라 지경에서 떼시었다면
백두산으로 뻗은 길
이다지도 후더움에 가슴젖으랴
백두산으로 오르는 마음
이다지도 깊은 생각에 묻히랴

산정의 어느 꽃이나
수천수만리 외국방문의 길 이어오신
아버이 우리 수령님 오르시던 길에
활짝 피어웃던 두메양귀비
모두였다 한껏 터친 건삼의 그윽한 향기여

돌러보면
너무도 사연 깊은 압록의 굽이굽이
바라보면
너무도 추억깊은 백두의 줄기줄기
그날의 전사들의 구호목도 새겨보시고
투사들의 기상여린 천군바위도 바라보시며
수령님 오르신 백두의 이 산정

장군봉에서 저기 향도봉으로
향도봉에서 다시 장군봉으로
그러히도 오래 걸고걸으시며
우리를 살피시던 우리 수령님

동서북 아득히 운해로 덮인
국경과 국경들을 넘으시며
천선단결의 무지개 펼치시고

돌아오시는 외국방문의 멀고 먼길을
여기 백두산-장군봉에로 곧추 이으셨으니

차창에 스치던 낮익은 동북광야
두줄기 은빛궤도를 달리시면서도
몽골의 넓은 초원을 찾으시면서도
원동의 밀림속을 걸으시면서도
어찌하여 마음은
백두의 이 산상 내리지 않으셨던가

주체의 해불 높이 오르신 길도
이 산정에 어려있고
포평의 맹세로 광복대업을 이룩하신
혈전만리 싸움길도 예서 다져졌고
함께 떠난 동지들을 잃은
가슴아픈 추억도 이 산발에 스며있어

이 세상 어디 가 보아야
백두산처럼 숭엄하고
백두산처럼 웅장하고
백두산처럼 성스러운곳은 없다고
그리고 뜨거움에 자랑하시던 우리 수령님!

인민을 위해 오르셨고
조국을 안고 오르셨고
오늘도 수억만 인류를 위해 오르시며
아버이수령님 옷자락 날리시는
오, 백두산 위대한 너의 한품에
천만갈래의 모든 길 뻗어갔구나!
천만년의 무궁행복 열려있구나!

불후의 고전적 명작 《묘향산 가을날에》는 나의 심장에 무엇을 심어주었는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친히 쓰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묘향산 가을날에》를 읽는 나의 눈앞에는 국제친선전람관 로데우에서 단풍이 한창 붉게 타는 가을날의 묘향산 경치를 감회깊이 바라보시며 심원한 시상을 펼쳐가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영상이 숨엄히 떠오른다.

절경속에 나래를 펴고있는 전람관이 푸른 추녀를 보시고도 민족의 존엄을 생각하시고 곱게 물든 붉은 단풍을 보시고도 로동당시대의 찬란한 해빛을 생각하시고 사대와 망국으로 수난받던 땅에 지금은 온 세계 친선의 사절들이 구름같이 찾아들어 5천년력사국에 처음으로 꽃핀 민족의 자랑을 생각하시는 아버지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그려보노라면 바로 이 민족의 존엄과 로동당의 시대를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시고 우리 민족을 사대와 망국노의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시켜주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가슴속에 뜨겁게 젖어들을 어찌할길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있는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

참으로 불후의 고전적 명작 《묘향산 가을날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을 마음 뜨거이 생각하게 하는 명작이다.

묘향산의 절경이야 아득한 태고로부터 있었지만 그 수천수만년을 흘러온 세월에 언제 한번 묘향산의 비로봉이 세계의 하늘에 머리를 높이 추켜들고 민족의 존엄을 뿔뿔이 떨친 일이 있었던가. 그리고 유구한 세월 가을철을 맞을 때마다 묘향산의 단풍은 온산을 붉게 물들이고 붉게 태웠지만 언제 한번 묘향산의 단풍이 오늘 우리 로동당시대에서처럼 찬란한 해빛을 받으며 이 나라의 새 력사를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천에 수놓아 본적이 있었던가.

지난날에는 민족의 존엄은 고사하고 사대와 망국으로 수난만이 서리고 빈궁과 락후만이 쌓이던

이 강산, 그것으로 하여 세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온 누리에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을 눈부시게 뿌리며 태양처럼 빛나고 모멸과 수모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오늘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민족의 존엄과 권위를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온 세상에 자랑하게 되었으니 과연 이 위대하고 세계사적인 변혁과 창조의 원천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우리 조선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있는데 있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구름같이 찾아드는 온 세계 친선의 사절들을 그저 손님으로만 대하지 않는것이며 묘향산국제친선전람관에 진열된 그 귀중한 선물 하나하나를 가슴 부푸는 민족적인 자랑을 안고 바라보는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하기에 5천년력사국에 처음 꽃핀 자랑을 금수강산 더불어 후손만대 물려주리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나의 마음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신 이 위대한 민족적 자랑으로 하여 한없이 샘쳐오르는 행복감을 금할길없다.

그렇다. 우리 조선의 크나큰 민족적 자랑은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신데 있다. 우리 조선인민은 민족적 긍지로 충만한 이 위대한 자랑을 세세년년 대를 이어 세계에 소리높이 웨치며 살아갈것이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묘향산 가을날에》는 바로 이 사상을 나의 심장에 깊이깊이 심어주고있다. 이와 함께 이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 담고있는 호방한 시상, 심오한 철학적, 고도의 시적 함축과 일반화, 자연과 시대와 생활의 완전무결한 시적 통일, 사상성과 예술성의 완벽한 결합, 약동하는 운율 등 극치에 이른 이 모든 본보기들은 내가 시인으로서 과연 어떤 창작적 관점과 자세를 가지고 시를 써야 하는가 하는것을 나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고있다. 참으로 이 불후의 고전적 명작 《묘향산 가을날에》는 우리 문학 특히 우리 시문학의 앞길을 비쳐주는 찬란한 태양의 빛발이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제1부위원장 최영하

내 나라는 시가 많은 나라다

내 나라는 시가 많은 나라다. 시가 많은 나라라고 하는것은 이 땅우에 살아숨쉬며 솟구치고 나래치는 그 모든것들이 시처럼 아름답고 뜻깊고 웅건하고 찬란히 빛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지만 우리 조국처럼 아름답고 살기좋은 나라는 드문것입니다. 산천은 아름답고 땅은 기름져 오곡백과 무르익고 땅속에 금은보화 가득한 나라, 슬기롭고 용감하고 문명한 인민이 사는 나라,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중한 조국입니까!》

바로 그렇다. 이 땅우에 흐르는 역사와 함께 솟아 빛나는 모든 창조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꽃피워주신것이다.

이처럼 아름답고 찬란한것을 날에 날마다 바라보며 일터로 간다는것은 얼마나 행복한것인가. 이 처럼 행복한 우리 인민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또다시 것처럼 귀중한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안겨주신것이다. 그 명작이 바로 **《묘향산 가을날에》**이다. 이 명작을 두손에 받쳐들고 한자한자 그 뜻을 새겨가노라면 생각은 멀리 백두산으로 달음쳐간다.

우리 혁명이 첫 자욱을 떼던 그 준엄한 나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많은 시편들과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지으셔서 혁명투쟁의 앞길을 밝혀 주셨던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그때에 지으신 노래를 부르며 그때에 만드신 혁명연극들을 보며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쳐가고있는것이다. 이

러한 우리들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또다시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안겨주신것이다. 이 명작에는 5천년의 력사가 숨쉬고있으며 5천년 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대를 맞이한 주체의 우리 시대가 긍지높이 노래되고있다.

명작은 포괄하고있는 긴 력사와 흘러넘치는 민족의 긍지로 하여, 자연의 아름다움과 시대상의 대비로 하여, 웅심깊은 감정과 넘치는 정서로 하여 그리고 비범한 상상력과 웅건한 문체로 하여 시문학사상 최상의 걸작으로 되고있다. 동서고금의 유명무명의 시들이 흐르는 내물이 되고 설레이는 꽃송이로 된다면 불후의 고전적 명작 **《묘향산 가을날에》**는 력사 5천년을 포괄하여 흘러간 시대를 하나의 봉우리에 함축해버리면서 한 민족의 위대한 긍지를 노래한 하늘에 닿은 기념비와 같은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을 하루와 같이 새겨가시는 그 거룩한 자욱자욱은 모두가 시인것이다. 그러니 내 나라는 시가 많은 나라인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우리 시인들은 시의 기발처럼 휘날리며 혁명적 시문학 창작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갈것이다. 시의 나라에서 사는 시인의 행복은 얼마나 큰것인가. 우리처럼 행복한 시인들은 세상에 없을것이다.

조선문학창작사 시인
박호범

조선시인의 행복

행복으로 가득찬 가슴속에 또다시 크나큰 영광과 긍지가 차오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안겨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서정시 **《묘향산 가을날에》**는 우리 문학의 앞길에 또다시 휘황한 빛발을 뿌려주는 기념비적 걸작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수령님을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영광과 긍지를 한시도 잊지 말고 수령님을 더욱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로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투쟁의 매 시기마다 친히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발표하시여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 오시였으며 문학예술의 불멸의 보물고를 마련하시였다.

항일의 그날에 창작공연된 **《꽃파는 처녀》**를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이 오늘도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대건설행군의 앞길에 참된 생활의 진리와 혁명투쟁에 대한 신심과 량만을 불러일으키고있는가.

이번에 또다시 받아안게 된 불후의 고전적 명작 서정시 **《묘향산 가을날에》**는 참으로 우리 시 문학에 있어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민족적인 정서와 인민적인 언어, 시대정신의 구현

과 철학적인 심오성 등 창작실천상 문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준 지침이며 교과서적인 명작이다. 제인 운물구성에 의한 질은 서정성, 호방하고 뜻이 깊은 시적 대조로 이루어진 시 **《묘향산 가을날에》**는 5천년 력사가 함축되어있으며 존엄있고 당당한 우리 시대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민족제일주의정신이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한자한자 시를 읽어 내려갈수록 우리 조국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정신, 세상에서 가장 부강하고 빛나는 조국을 건설하시려는 뜨거운 헌신성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정녕 불후의 고전적 명작 **《묘향산 가을날에》**는 우리 시문학의 앞길에 불멸의 기치로 된다.

나는 지금 바로 이러한 위대한 명작을 받아안은 무한한 행복에 가슴설레임을 금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우리 조선의 시인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나는 앞으로도 불후의 고전적 명작에서 이룩해 주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며 대를 이어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에 한몸 다 바쳐나가며 창작실천에서 철저히 구현해 나갈 굳은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조선문학창작사 시인
구희철

가사

아, 혁명의 길

김휘조

당을 따라 나선 길 혁명의 한길
행복도 보람도 이 길에서 찾았네
봄빛이 따뜻해도 눈보라 몰아쳐도
가고가는 이 길에 내 한생 빛나네

믿음이 없으면 가까운 길도 멀고
믿음이 있으면 먼길도 가까워
기뻐도 우리 당만 믿고 가는 길

어려워도 우리 당만 믿고 가는 길

이 길을 떠나면 내 운명 끝나리니
이 길에 내 자리 비우지 않으리
우리 당과 함께라면 고난도 두렵잖네
가고가면 영원한 봄이 오는 길

아, 영광찬 혁명의 길

하루길을 떠나며

오영재

밤이 지나

창문에 아침해살이 비쳐들고
대동강 물우에 피는 안개가
눈꽃 소담히 안은
강안의 나무아지들을 어루만지는
새해의 첫 아침

출근의 옷차림 정히 갖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는 우러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저의 또 하루 생활이 시작됩니다

참다운 생명을 빛내여가는
보람찬 생활의 끝없는 환희가
날이 갈수록
새롭게만 안겨오는 이 아침

자애로운 사랑의 한품에 안아
따뜻이 일깨워주시는 그이의 말씀
이 가슴에 다시금 새겨안으며
내 문을 나서노라

충성을 떠난 삶이란 없는것
그것은 곧 당원의 죽음
충성에 작은 실금이라도 가지 않게
매일 아침 얼굴을 씻듯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함을
그이는 이 아침도 가르쳐주신다

어버이수령님과 당을 위해
진실로 깨끗하게 사는것은
한생을 두고 멈출수 없는 혈치 않은 투쟁
순간의 안일과 해이가
돌이킬수 없는 생의 길에서
영영 다른 길로
내 운명을 실어가버릴수도 있음을

당원의 진정한 삶은
강철같은 규율과 조직관념속에서만 숨쉬고
하나의 생각속에 걷는 그 길에서만
전사의 드림없는 걸음새가 있다

간곡하신 그이의 가르치심
울려와라, 이 가슴에, 출근의 이 아침에
한마디의 말을 해도
쟁쟁한 쇠소리가 울리게 하라
한사람의 벼를 사귀여도
진실하고 참다운 그 마음을 사라

건전한 사고와 관점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는 길에서
새롭게 간직해야 할 인생관, 도덕관
한생을 값있게 살아 그 위훈 자랑 높은
영웅들의 그 마음도 심어주시며
크고 영원한 생명체속에
나를 굳건히 안아주시는
그이는 정신과 의지의 위대한 빛발

아, 크나큰 믿음엔
스스로 따르는 마음
성실하고 참다운 당원으로
이 내 생명 아름답게 가꾸어감은
그이께 드리는 한떨기 기쁨의 꽃

하루를 잘 살아
한생을 빛내여가는
보통날 아닌 보통날 아침에
내 운명 다 맡긴
친애하는 그이를 우러러
마음속 깊이 삶의 선서를 엄숙히 다지며
전사는 한생의 하루길을 떠나노라

축원

자파르 로드히

나의 희망
나의 축원
수억만 근로인민의 축원의 노래 드립니다

김일성 동지 그이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
인류를 이끄시는 위대한 분
그이의 가르치심 현명하여
뒤떨어진 나라들 새 길 찾고
제국주의가 몰아온 암흑의 장막
저 멀리 영영 몰아가거니
그 업적 찬란히 빛나라
세세년년 무궁토록 빛나라

그이는
공화국의 창건자
자주화된 앞날의 세계 개척하시는분
그이의 향도아래
진보적 인류의 세계

로동의 보람 꽃피는 세계 펼쳐지고있어라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인민들
주체의 기치 높이 날리며
창조적 재능 쏟아부어
살기 좋은 지상락원 꾸리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 그이를
근로하는 인민들 따르고있나니
내 그이를 진정으로 신봉하는 사람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처럼 바라시는
자주적인 새 세계 펼쳐놓기 위해
우리 싸워가리라
밤낮을 가림없이 싸워가리라

세계 진보적 노동계급의 혁명적 수령 **김일성** 동지
그이 진두에 계시나니
은혜로운 그이의 손길아래
자주화된 세계는 기어이 펼쳐지리

(필자는 파키스탄 시인임)

김정일 그이는 위대한 계승자

느크와지에 앙두완느

압박받는 인민들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향도의 별
진주처럼 반짝이고
금빛으로 빛나라

친애하는 **김정일** 그이는
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계승자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시여라

그이는 정력적인 지도자
그이의 탄생 46돐을 맞으며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
그이의 불멸의 업적 찬양하며
그이를 우러러라

그이는 위대한 사상리론가
인민들을 진보와 번영으로 향도하시나니
그이 끝없는 존경 받으시여라

그이는 탁월한 계승자
그이께서는 위대한 지도사상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시키시고
영원히 빛내어나가시여라

그이의 숭고한 품모
그이의 존함 영광으로 빛나고
높이높이 떨치여라

위대한 계승자 **김정일** 만세 !

(필자는 까메룬 국회공보원)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창조의 나날에 깃든 불멸의 이야기

(제 1 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걸작입니다. ...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혁명가극 〈피바다〉와 같이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내용은 대작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가 창작 완성된 때로부터 17년 세월이 흘렀다.

이 혁명가극은 오늘도 만사람의 심장을 한없이 격동시키고있으며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나가도 손색이 없는 만점짜리 걸작으로 길이 빛날것이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창작하던 그날의 감격과 영광은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

X

혁명가극 《피바다》 창조로 그 장엄한 포성을 울린 가극혁명의 메아리는 날이 갈수록 온 누리에 더욱 힘있게 울려 퍼졌다.

장엄한 그 메아리속에 《피바다》의 뒤를 이어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과 《밀림아 이야기하라》가 창조되였다.

가극예술앞에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가극혁명을 보다 높은 경지로 발전시켜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었다.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을 지니시고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환히 꿰뚫어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가극예술앞에 나선 이 영예로운 과업을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를 오늘 가극무대에 올리는 사업을 통하여 실현하실 구상을 펼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창조현장에 몸소 여러차례 찾아오시여 창작가, 예술인들과 함께 계시며 장면 하나, 가사 한편을 놓으시고도 사색과 탐구로 밤을 지새우시였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간단하고 소박한 이야기를 가지고 심리적이며 섬세한 감정을 깊이 파고들어 형상을 꽃피우도록 한결옴한결옴, 손잡아 이끌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

와 세심한 가르치심속에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시대의 기념비적 걸작으로 혁명적 대작으로 창작완성 되였다.

이 보람찬 나날에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창작원칙과 형상방도들이 더욱 빛나게 구현되어 가극 예술발전에서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였다.

참으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완성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구상하신 주체적 혁명가극건설에서 또하나의 위대한 승리였다.

1. 장면장면을 기름지게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는 이미 영화로 각색되어 만사람의 심장을 틀어잡은 걸작이다.

그러므로 원작을 가극으로 각색하여 무대에 올리는 문제는 보다 무거운 형상과제를 제기하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영화형상의 테두리안에서 맴돌고있는 창작가, 예술인들을 일깨워주시면서 가극형상의 대를 세우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세부형상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와 따뜻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장면장면들 모두가 기름진 장면, 빛나는 화폭들로 완성되어 온 세상의 경탄을 불러일으키게 되였다.

《연출에서 무대적인 특성을 살려야 합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창조사업은 1972년 여름부터 시작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창조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원작의 종자에 기초하여 이때까지 나온 혁명가극들에서는 물론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에서도 볼수 없었던 새롭고 특색있는 예술적 형상을 창조하도록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27돐을 하루 앞둔 1972년 10월 9일 거리마다 명절축등들이 휘황한 빛을 뿌리는 깊은 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크고 작은 행사들을 돌보시기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시여 가극창조현장을 찾아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오늘은 가극 전반부만 보아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좌석에 앉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무대에 펼쳐지는 가극의 장면들을

주의깊게 보시었다.

가극의 전반부가 끝나자 객석에 불이 켜졌다. 휴게실에 들어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과 창작가들을 부르시어 극구성과 형상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한 장면씩 지적하여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머니가 죽는 장면을 잘 형상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시며 이 가극에서 어머니의 죽는 장면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그때 가극은 극구성이 짤리지 못하고 인물들의 극적 관계도 예리하지 못하며 생활이 메마르다보니 어머니가 죽었을 때 배우들이나 울었지 보는 사람들은 아무런 충격도 받지 못하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극형상이 이렇게 된 기본결함들을 분석하시고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히시었다.

《우리는 가극을 영화를 기준으로 하여 만들라고 하였지 모방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에 기준하라는것은 어디까지나 기본골격에 준하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영화의 골격에다 무대적인 살을 붙이라는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영화와 같이 할바에야 가극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색을 한다는것은 생활을 더 찾아 가극적으로 만든다는것입니다. 생활을 영화적인 안팎이 아니라 무대적인 안팎에서 찾아야 합니다.》

가극형상의 근본결함을 명확히 밝혀주시는 심각한 말씀이었다.

자책속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이윽도록 둘러보시며 잠시 말씀을 멈추시였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번에는 연출가를 바라보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일깨워주시었다.

《연출에서 무대적인 특성을 살려야 합니다. 배우들의 연기와 행동을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에서 따올것이 아니라 음악과 무대의 정황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 가극의 특성에 맞게 무대적으로 각색을 하여야 하며 정황설정도 영화와 달리 하여야 합니다.》

영화에서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배우의 얼굴도 확대하여 보여주기때문에 배우의 행동과 섬세한 감정을 통하여 등장인물들의 내면세계를 깊이 보여줄수 있다.

그러나 가극에서는 무대라는것으로 하여 장소도 배우의 얼굴도 영화에서처럼 확대하여 보여줄수 없으므로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충분한 생활축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것이다.

하지만 당시 가극에 형상된 장면들은 영화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제3장 3경만 놓고봐도 백만이가 어머니에게 꽃분이를 당장 팔아넘기겠다고 올려메는것과 애걸하던 어머니가 그놈의 발에 채워 죽는 장면, 약을 사가지고 돌아오던 꽃분이와 순희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을 알고 약봉지를 떨구며 《어머니, 약, 어머니, 약!》 하고 애라게 어머니를 부르는 장면 등은 모두 영화와 류사한것이였다.

이미 관중들이 잘 알고있는 사실마저도 무대적 특성에 맞게 형상하지 못하였다. 고생하는 어머니의 축적된 생활이 없다보니 극의 절정이 올라가지 않고 따라서 어머니가 죽는 장면에서도 눈물이 나올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러한 결함들을 일깨워주어나시어 어머니와 딸의 아기자기한 생활을 보여주며 지주놈에게 학대받고 고역살이를 하던 어머니가 비분에 못이겨 끝내 죽는것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을 찾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창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가극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생활을 탐구하지 못할 때 창작에서 어떤 결과를 빚어내게 되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였다.

그이의 간곡하신 말씀을 받들고 창조집단은 다시 수정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머니형상 문제에 대하여 마음놓지 못하시며 10월 11일 어머니가 고생하는 장면을 많이 보여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10월 12일에는 어머니가 남편도 없이 어떻게 살아간다는 신세타령의 노래를 하나 주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철용이 순사놈들에게 끌려간 다음 어머니가 부르는 노래 《악착한 이 세상을 내 어이 살리》가 생겨났다.

머슴살이 팔년이 끝나자마자
감옥으로 가다니 어인 말이나
남편 죽고 아들 잃고 딸은 눈멀고
악착한 이 세상을 내 어이 살리

창조집단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어머니가 죽는 장면을 예술영화 《피바다》에서 을남이가 죽는 장면만큼 울리기 위하여 애썼으나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하루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친히 전화로 연습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0월 30일 하루만도 창조현장에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전화도 거시며 무려 세번씩이나 어머니 죽는 장면의 형상에 대하여 알아보시었다.

그러시고는 그다음날인 10월 31일 밤에는 또다시 대극장에 나오시었다.

무대에서는 관통연습이 시작되였다.

가극의 서장으로부터 종장에 이르기까지 장면장면을 주의깊이 보아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노래는 좋은데 아직도 주인공과 어머니의

생활을 잘 형상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창작가들을 둘러보시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러나 누구도 선뜻 일어나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방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한 연출가가 정중히 일어서서 주인공과 어머니의 형상이 살지 못한것은 배우들의 연기 훈련이 부족한데 있으므로 배우들의 연기수준이 올라가면 인물형상이 살아날것 같다고 말씀올렸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던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주인공과 어머니를 잘 그리지 못한것은 창작가들의 수공업적이며 주관주의적인 창작 태도와 관련된다라고 지적하시며 심각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연출가들이 어머니의 형상이 잘 안겨오지 않는것을 배우의 연기에서 찾고있는데 그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형상이 잘 안겨오지 않는것은 생활론리에 따르는 지속된 감정축적이 없기때문입니다.》

결함의 본질을 한마디로 밝혀주시는 말씀이였다.

창작가들은 전번에 범하였던 결함을 다시 반복하고있었다.

병든 어머니의 형상도 방창과 매돌장면에서만 보여주고 다른 장면들에서는 보여주지 못했다. 늙은이 아들을 잡아간 다음 어머니는 앓아눕게까지 되었지만 딸자식을 위하여 이를 악물고 살아간다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사실 어머니가 앓는다는것도 노래가사나 있었지 무대적인 생활로는 형상하지 못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장면별로 결함을 지적해주시고나서 절절하신 어조로 일깨워주시였다.

《연출가들은 3대혁명가극을 창조한 경험이 있다고 하여 경험주의적으로 나갈것이 아니라 이미 거둔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가극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 위하여 깊이 연구하여야 합니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창작가들은 다시 한번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혁명가극 《꽃과는 처녀》창조사업에 착수할 때부터 그이께서는 이 가극에서는 새로운 형상을 창조해야 한다고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으시였다.

그러나 여러 가극을 창조한 경험만 믿고 지적된 대목들이나 수공업적인 방법으로 굼뎠고있던 창작가들이였다.

일군들과 창작가들 모두가 죄송스러운 마음을 안고 몸둘바를 몰라 하는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오늘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였다고 하여 걱정하지 말고 창조사업을 더 잘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 순간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잘못을 저지른 자기들에게 오히려 더 큰 믿음과 신심을 안겨주시는 그이의 한없는 사랑이 가슴 가득히 안겨와 눈곱이 뜨겁게 젖어들었다.

이윽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신께서 무르익혀 오신 새로운 형상안들을 내놓으시며 다정하게 이르시였다.

《무엇보다도 주인공과 어머니의 생활을 잘 형상하여야 하겠습니다.》

가극에서 기본은 어머니와 꽃분이의 조들린 생활을 잘 형상하는것입니다. 가극의 역인물들의 성격을 다시 설정하여 꽃분이 일가의 눈물겨운 생활을 생활적으로 펼쳐주어야 합니다. 꽃분이가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리기 위하여 거리에 나가 꽃을 팔게 되는것만큼 꽃분이와 어머니를 교감시키면서 어머니의 생활을 더 찾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선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면들을 새롭게 설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순간의 휴식도 없이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시며 어머니와 꽃분이의 선을 기본으로 하여 인정심리극의 특성에 맞게 인정선을 타고 진실한 형상을 창조할수 있는 열쇠를 안겨주시였다.

싸늘한 바람이 불어에는 가을밤은 벌써 자정을 넘어섰다.

하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모든것을 다 잊으신듯 오직 가극창조사업에 정열을 쏟아부으시며 배우들의 연기형상으로부터 시작하여 편곡과 무대미술, 조명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신 사색의 세계와 창작적 환상은 아무리 퍼내어도 다함이 없는 샘과도 같이 끝이 없고 저 가없는 우주 공간과도 같이 기슭을 몰랐다.

창조집단은 이날부터 새로운 신심을 안고 형상작업을 다그쳐나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후에도 매일같이 가극창조사업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창작가들이 생활의 세부를 찾지 못하여 모대길 때에는 몸소 창작가가 되시여 그것을 찾아주시고 철학적 깊이가 있게 형상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주곤하시였다.

이 뜻깊은 나날에 매돌장면을 비롯하여 온갖 멸시와 천대속에 병까지 들어 허덕이는 어머니의 비참상이 부각되고 새로운 생활세부들이 탐구되였다.

어머니의 이 모든 생활은 꽃분이와 인정적인 교감속에 하나로 관통되어 진실한 형상의 꽃을 피우게 되였다.

폭넓고 깊이있게 주어진 충분한 생활적 전제와 굴곡있는 무대적인 행동선을 그어준 결과 극은 저절로 승화되어 어머니의 죽는 장면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하여 가장 중요하게 노리는 대목으로 초점을 두어 온 어머니죽는 장면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세심한 가르치심에 의하여 영화적인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어 가극무대에 맞게 완벽하고 진실한 장면으로 완성되게 되었다.

영화에서는 백만이가 꽃분이를 당장 팔아버리겠다고 올리메는바람에 어머니가 숨지지만 가극에서는 빗값에 꽃분이를 거간군놈에게 팔아넘긴 배지주가 달려들어 꽃분이를 강제로 끌어내자 억이 막혀 죽는것으로 형상하였다.

바로 여기에 새로운 예술적 발견이 있고 생활의 철학성이 있는것이다.

무대에 어머니가 죽는 장면이 펼쳐지면 관객들은 참을길 없는 비분과 치솟는 분노를 안고 눈물 속에 3장 마지막에 나오는 대중창을 마음속으로 따라 부르게 되었다.

정성이면 돌에도 꽃핀다더니
아직도 딸의 정성 모자랐는가
원한의 이 세상 야속한 사연
그 누가 사람들에게 말하여주랴

원한의 이 세상 야속한 사연
그 누가 사람들에게 말하여주랴

(다음호에 계속)

나는 책임진다

김 철

나는 이 땅의 평범한 사람
조국은 나에게
창조의 로동을 권리로 주었나니
내 그것을 영예로, 의무로 간직했노라

하나의 나사못을 죄여도
량심의 눈금이 흔들리지 않도록
거창한 구조물에 이음줄을 새겨도
먼 후날 사람들 정히 쓰다듬도록...

책임졌노라! 일터를 가정을
실참에 흥겨운 손뼉금소리를
경쟁도표 붉은 줄을 발돋움해 쳐다보는
건설장 앞트락의 어린 은행나무를

당의 웅대한 작전도우에
내가 선 자리는 하나의 작은 점일수도 있으리
그러나 내 만일 그 점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면
거기 생긴 공백을 무엇으로 메우랴

책임지노라, 머리를 높이 들고!
책임지노라, 가슴에 방울방울 피를 끓이며!
대건설행군으로 들끓는 조국이며
내 너의 번영 너의 부강앞에 나의 몫을 책임지
노라

큰 호흡, 빠른 걸음 힘있는 활개로
비약하자 생활이여!
대렬 맞춰 진군하자 근로하는 계급이여!
우리 아닌 그 누가 굳게 겨룬 어깨로
혁명의 표대를 떠메고 갈것이나

그렇다. 혼자서는 가지 못한다
마치와 닳과 붓을 뜨겁게 겨안은
당의 성스러운 기치 우러러
하나의 생명 이룬 우리 아니냐

그대들이 나의 익측이기에
그대들이 새 200일의 저 깊은 종심까지
나와 함께 돌격할 전우들이기에
그대들이 나를 책임지듯이
나 또한 그대들앞에 책임지나니

말하지 말라
자기자신 하나 위한 책임이라면...
결전의 마당에서 동지들의 신의를 저버린다면
그에게 그 무슨 전사다운 모습이 남을것인가

보아라!
우리 함께 일떠세운 저 높은 탑들을
얼마나 좋아!
숲을 이룬 창조물 하나하나에
후두둑 뿌려진 불찌같은 팍방울이
뉘었이었던가는 다 잊을지라도
손에 손 잡고 솟는 해와 마주 웃는 이 아침은...

진정 기쁨이 여라
오늘에 숨쉬며 래일까지 말아 안고 산다는것은!
하거니 우리 책임지는것
실은 우리 자신과 후대들의 행복, 그것이 아니
던가

아! 뉘푸른 하늘
눈부신 산과 들
거리도 마을도 바다도 강줄기도
우리 아닌 다른 주인 찾지 않거니

책임진다, 영원히
그것이 조국이며 너를 위한것이고 네것이라면
손바닥에 따거운 한줌의 모래
그 한알한알이
자갈과 세멘트, 굳은 철근과 한몸을 이루며
거창한 탄생을 읊조리는 소리도...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위업실현으로 힘차게 고무하는 혁명의 참된 교과서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계급성 대하여-

리기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 혁명투쟁시기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를 친필하시어 첫 공연의 무대에 올린 때로부터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명작이 각색되어 무대에 재현된지도 어언 17년이 라는 세월이 흘렀다.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는 우리 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판도에서 커다란 견인력과 감화력을 가지고 자주위업실현을 위한 피압박근로인민대중의 성스러운 혁명투쟁의 예리한 사상적 무기로 복무하였으며 오늘도 복무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가르키는대로 인간의 삶과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인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그것을 가장 높은 사상예술적 견지에서 깊이있게 해명한 혁명적 대작이며 근로인민대중의 혁명교양, 계급교양의 불멸의 교과서이다. 우리 인민과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와 같은 혁명적 대작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에 이바지하는 혁명적 대작으로, 혁명교양, 계급교양의 불멸의 교과서로 되는것은 그것이 주인공 꽃분이 일가가 겪는 비극적인 운명의 형상을 통하여 착취사회의 반동성과 부패상을 적라라하게 폭로하면서 자주성을 짓밟힌 민족과 근로인민대중의 설움과 고통, 불행의 사회적 근원을 심오하게 밝혀준데 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1920년대말, 1930년 대초 우리 나라의 참혹한 현실을 반영하고있다. 당시 일제침략자들과 그들 등에 업은 지주, 자본가 계급의 전대미문의 야수적인 폭압과 악랄하고 잔인한 착취밑에서 우리 인민은 민족의 자주성과 인간의 존엄을 여지없이 유린당하였으며 더는 살래야 살아갈수 없는 막다른 처지에 놓여있었다. 가극은 이러한 시대상과 우리 인민의 참담한 생활현실을 당대 우리 나라 농촌의 그 어디에서나 흔히 볼수 있었던 머슴사는 꽃분이 일가의 기구하고 불행한 운명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

여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혁명가극은 계급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이 겪게 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은 착취계급이 인간의 사회정치적 생명인 자주성을 짓밟는데에 근원이 있다는것을 배지주님과 꽃분이 일가의 심각한 모순과 대립관계속에서 예술적으로 형상하였다.

착취사회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짓밟는 사회, 《약육강식》과 《부익부, 빈익빈》의 법칙이 작용하는 사회이다. 착취계급사회에서 한줄도 못되는 지주, 자본가계급은 수백만 근로인민대중의 피땀을 악착하게 짜내고 그들의 운명을 마음대로 희롱하며 제놈들의 치부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것도 서슴지 않는 귀족같은 무리들이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짓밟는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의 본질을 날날이 발가놓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에 대한 끓어오르는 증오심과 적개심을 가지게 한다.

가극에 등장하는 배지주와 그의 너편네, 마름, 거간군들이 바로 계급사회에서 야수성과 잔인성을 체질화한 계급적 원수의 전형적 인물들이다.

놈들은 꽃분이 일가에게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뜨우는것으로써 착취계급의 흡혈귀적 본성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가극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인공 꽃분이 일가가 당하는 착취와 억압, 불행과 고통은 말할수 없이 처참한것이였다. 배지주님의 머슴으로 시달리던 아버지는 빚진 좁쌀 두말을 갚지 못한채 세상을 떠났고 그 뒤를 이어 아들 철용이는 8년세월을 머슴으로 살았다. 빚을 다물게 된 날 온 집안이 함께 모여 살자던 기쁨과 희망은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았으며 지주집 토방에 넣어놓은 대추 한알을 집은것이 화가 되어 순희는 눈을 멀구는 참사가 벌어진다. 원통하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지주님의 집에 불을 지르는것으로 항거한 철용이는 죄아닌 《죄》를 지고 감옥으로 끌려간다.

지주님이 꽃분이 일가에게 들썩은 고통과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들의 뒤를 이어 머슴으로 6년을 산 어머니가 골병에 들자 지주님은 그를 내쫓고 꽃분을 머슴으로 끌어들인다.

가극에서는 꽃분을 머슴으로 끌어가던 날, 지주님과 마름님이 노는 회계장면의 형상으로 착취계급의 본성을 백일하에 드러내보이였다. 지주

놈은 리자란 계산하기에 달렸다는 강도의 론법에 따라 꽃분이네를 영원히 노예로 엮어매두려고 갖은 항목을 다 만들어내어 회계를 맞춘다. 빚진 좁쌀 두말을 갚지 못하여 아들과 어머니가 14년을 머슴살고도 꽃분이 또다시 머슴으로 끌려가는 마당에서 지주놈이 꽃분이네에게 지운 빚은 과연 얼마나 되였는가. 장리쌀 서말은 리자에 리자가 붙어 열말이 되고 변리돈 5원은 리자에 손자리자까지 붙어서 40원이 되었으며 여기에 어머니가 물긴다가 깨진 동이값, 머슴방에 불을 켜 등잔기름값, 밥값, 물다가 남은 인삼값... 지주놈의 장부에 오른 빚은 꽃분이 일가가 몇대를 두고 갚아도 갚을수 없는 엄청난것이였다. 지주놈이 마음먹은대로 부르는것이 꽃분이네가 걸머지는 빚으로 되었던것이다. 인간생활에서 당할수 있는 불행과 고통, 학대와 멸시가 아무리 크다 한들 이처럼 가혹할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에 의하여 빚어진 엄연한 현실이었으며 나라를 빼앗기고 자주성을 짓밟힌 당시 우리 인민이 겪는 눈물겨운 참상이였다.

자주성은 인간의 생명이다. 자주성을 잃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도 꽃분이 일가는 그 모진 설움과 고통에서 어떻게하나 벗어나 보려고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어 쓰러지면서도 부지런히 일을 하였으며 뜨거운 사랑과 지극한 효성으로 온 식구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무진 애를 쓴다. 때로는 지주놈에게 사정도 해보고 동정을 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깨끗한 량심, 근면한 로동, 자식들에 대한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 어머니에 대한 자식들의 지극한 효성도, 형제간의 우애도 꽃분이네에게 주는 마을사람들의 동정도 결코 그들을 수난자의 운명에서 구원할수가 없었다.

꽃분이 일가가 바라는것이란 과연 무엇이였는가.

권세를 쥐자는것도 아니였고 고대광실에 앉아 호의호식 하자는것도 아니였다. 지주놈에게 진 빚이난 《빚》을 성실한 노력으로써 갚고 굶주려도 헐벗어도 혈육이 한데 모여 단란하게 살아보려는것이였을뿐이다. 남에게 매이지 않고 어머니와 형제가 헤어져 서로 마음씩이는 일이 없이 살아가려는것이 그들의 소원의 전부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초보적인 이 인정조차 용납하지 않는 각박한 세상, 지주놈의 압제밑에서 꽃분이네는 온갖 수모와 멸시, 착취와 억압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것이다.

혁명가극 《꽃과는 처녀》는 어쩌서 꽃분이 일가가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생활상요구는 더 말할것도 없고 혈육의 뜨거운 인정세계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되는 사회적 근원을 명백히 밝혀주고있다. 그것은 그들이 정치적 자주성을 빼앗겼기때문이다. 인간생활에서는 참기 어려운 설움과 고통이

적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참기 어려운것은 정치적 자주성을 유린당하는 민족의 설움이고 계급의 고통이다. 혁명가극 《꽃과는 처녀》는 이처럼 꽃분이 일가가 겪는 비극적인 운명의 형상을 통하여 나라를 잃고 자주성을 짓밟힌 피압박근로인민대중의 운명, 민족의 운명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으며 그들이 당하는 설움과 고통은 어디에 하소연해도 덜수 없고 성실한 노력이나 깨끗한 량심, 극진한 효성으로써도 결코 면할수 없다는 생활의 진리와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이 존재하는 한 근로인민대중은 어느때나 자기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가르쳐줌으로써 사람들의 자주의식을 깨우치는 혁명의 참된 교과서, 계급투쟁의 예리한 사상적 무기로 된다.

혁명가극 《꽃과는 처녀》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에 이바지하는 혁명적 대작으로 혁명교양, 계급교양의 불멸의 교과서로 되는것은 그것이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의 본질을 예리하게 폭로하였을뿐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길은 오직 혁명투쟁의 길밖에 없다는것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밝혀준데 있다.

이 심오한 사상은 명작의 종자에 의하여 훌륭히 담보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과는 처녀》에는 설움과 효성의 꽃바구니가 투쟁과 혁명의 꽃바구니로 된다는 종자가 심어져있다. 이 종자로부터 나라 잃고 수난당하는 민족의 운명에 대한 주제가 흘러나왔으며 주제의 해결을 통하여 민족과 자기자신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혁명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상이 밝혀지고있다.

가극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의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피압박근로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길을 명시하고있다. 자주성은 사회적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일뿐아니라 민족에게 있어서도 생명이다. 사람의 삶과 민족의 운명에서 자주성은 더없이 귀중하고 인간과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보다 더 근본적이고 사활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는 없다.

혁명가극 《꽃과는 처녀》는 인간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진리로 사람들을 깨우쳐줌으로써 인간의 자주성을 짓밟는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을 때려엎는 혁명투쟁의 필연성을 예술적으로 확인하고 그 투쟁으로 근로인민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킨다.

가극은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은 피압박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짓밟을수는 있어도 영영 없애지는 못한다는것을 꽃분이의 세계관형성과정, 그의 자주의식의 발전과정을 통하여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류력사발전과정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되여가는 과정이다. 력사발전과정

에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자주성을 억제하는 낡은것과의 투쟁이다.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에서 새것이 승리하고 낡은것이 멸망하는것은 력사발전의 어길수 없는 법칙이다. 새것의 승리가 일시 우여곡절을 겪을 수는 있지만 결코 력사의 이 법칙이 달라질수는 없는것이다.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썩고 병든 자본주의제도와 착취계급은 종당에 파멸하고야말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반드시 실현된다는것은 주체사상이 밝힌 과학적 진리이다. 혁명가극 《꽃과는 처녀》는 이 진리를

꽃분이의 자주식발전과정, 혁명적 세계관이 서는 과정에 대한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밝힘으로써 근로인민대중에게 혁명투쟁, 계급투쟁의 사상적 무기를 안겨준다.

가극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주놈은 꽃분이 일가를 어느때까지든 머슴으로 부려먹을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꽃분이네는 지주놈에게 매여사는것을 차레진 운명으로 생각하였다. 지주놈은 사람을 마소처럼 부리고 모욕하고 팔시하며 치부를 위해서는 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지배적 지위가 어느때까지나 허물어지지 않으리라고 믿으며 꽃분이 일가는 권세없고 돈없는 가난한 사람은 압제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는것으로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은 그렇게 흐르지 않는다는것을 가장 심각한 불행과 고통을 겪는 꽃분이가 계급적으로 각성하고 혁명의 길에 나서는 과정, 혁명적 세계관이 서가는 과정에 대한 형상을 통해 뚜렷이 보여준데 가극이 밝혀주는 사상의 심오성이 있다. 혁명가극 《꽃과는 처녀》는 인민대중이 세계에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세계의 발전과 인간의 운명개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실현을 억제하는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은 기필코 멸망하고 근로인민대중은 반드시 깃잡힌 자주성을 되찾고 자기 운명과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야만한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인하였다.

가극은 피눈물나는 온갖 고통과 슬픔을 다 겪으면서도 자기 집안에 들켜워지는 참혹하고 기구한 운명이 무엇때문인지를 알기에는 너무도 어리고 순박하고 천진한 꽃분이가 최악과 모순으로 빚어진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의 본질을 인식하고 점차 계급적으로 각성하여 혁명의 길에 나서기까지의 그의 혁명적 세계관형성과정을 사실주의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이에 대한 훌륭한 대답을 주고있다. 오빠의 뒤를 이어 머슴으로 들어간 어머니가 끝병들자 지주놈은 그를 내쫓고 대신 꽃분이를 끌어간다. 조그마한 보따리를 들고 오막살이집 기둥에 몸을 기댄 꽃분이는 서럽게 눈물지며 앓고 계신 어머니를 잘 돌봐 드리라고 어린 동생 순희에게 당부한다. 머슴살이 여섯

해에 병든 어머니, 눈먼 어린 동생을 두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머슴살이 떠나는 꽃분이는 언제부터 이 땅우에 부자가 생기고 언제부터 이 땅우에 머슴이 생겼는가, 왜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과 딸도 대를 두고 머슴을 살지 않으면 안되는가고 통절하게 생각하면서 세상에는 일하지 않고 놀면서도 배불리 먹고 호화롭게 지내는 부자가 있고 대를 두고 머슴을 살며 고역에 시달리어도 기아와 빈궁, 천대와 멸시속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갈라져 있다는것을 깨닫게 된다.

모순과 갈등으로 뒤엀킨 착취계급사회에 대한 꽃분이의 인식은 어린 어깨우에 고된 머슴살이와 앓는 어머니 그리고 눈먼 어린 동생을 거느려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면서 더욱 새로와진다.

꽃분이는 낮에는 지주집에서 고역에 시달리다가 밤에는 어머니의 약을 마련하려고 지옥과 같은 지주집올타리안에서 벗어나 꽃을 팔러 거리에 나선다. 유홍거리의 밤도 결코 꽃분이를 동정하거나 그의 하소연도 들어주지 않았으며 랭대와 멸시가 있을뿐이었다. 술주정뱅이, 패덕한, 건달뱅이, 귀부인... 그들은 돈도 내지 않고 꽃을 빼앗고 꽃을 사고도 돈은 던져주며 꽃은 고우나 거지라고 모욕하며 꽃분이의 얼굴에 꽃을 던지면서 희롱한다.

지어 꽃분이는 패륜패덕이 가득찬 유홍거리에서 도적의 루명까지 쓰게 되며 지주놈과 거간꾼은 꽃분이를 너적공으로 팔아넘기는 흥정을 아귀짓는다. 그러나 꽃분이는 거리에서 자기와 같이 삶의 막바지에서 헤매이는 사람들도 보았다. 거지도 보고 순사에게 결박되어 끌려가는 애국자들의 모습도 보았으며 꽃으로는 못산다던 약방주인의 인정어린 동정도 받아보았다. 지주집올타리안에는 지주와 머슴이 있고 거리에는 남의 등을 쳐먹고 살아가는 기생충들이 있었으며 가난한 사람들, 오라를 지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달밤에 약봉지를 들고 집으로 가는 꽃분이의 심정은 괴롭고 번거로웠으며 그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눈물이 충충 고이였다.

가극에서는 꽃분이의 억울한 신세와 슬픈 감정을 표현하며 계급사회의 모순과 대립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혀주는 노래가 울린다.

하늘중천 밝은 달은 하나이건만
땅우에서 보는 사람 서로 달라라
어떤 사람 달을 보며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 달을 보며 서러워한다

자기네 일가의 처지를 운명적인것으로만 여겨오던 꽃분이가 인식하게 된 사회는 모든것이 거꾸로 선 모순된 사회였다.

딸을 내놓지 못하겠다고 애걸하던 어머니마저

지주놈의 매질에 세상을 떠난다.

이제는 애오라지 오빠에게 밖에 의지할곳이 없었다. 놈들에게 팔려가던 꽃분이는 결연히 도망쳐 오빠를 찾아 떠난다. 그가 걸은 700리길, 이 길에서 꽃분이는 온통 감옥으로 화한 당대 우리나라의 현실을 뼈에 사무치게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모순으로 가득찬 사회에 대하여 더 폭넓게 인식한다. 살길을 찾아 헤매이는 류량민들을 보게 되며 자유를 구속당한 수인들과 그의 가족들의 애절한 참상을 본다. 오빠가 죽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은 꽃분이는 한가닥 희망마저 잃고 절망한다. 고생끝에 병까지 든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집에 찾아온 꽃분이는 지주놈의 작간으로 어린 동생마저 없어졌다는 비통한 소식을 듣자 마침내 약탕관과 화로를 지주넌놈들에게 던지며 항거한다.

꽃분이의 자주주의식의 성장은 그 자신이 피눈물나는 착취와 압박을 직접 당하면서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의 본질을 실지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되는 과정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착취사회에 대한 그의 항거는 아직 개인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조직되고 단합된 투쟁으로써만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을 때려부시고 자주성을 되찾을 수 있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혁명투쟁의 진리를 오빠를 따라 혁명의 길에 나서는 꽃분이의 밝고 림름한 모습을 통하여 천명하였다.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어간 철용이는 감옥살이를 하다가 탈옥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시신 혁명군대원으로 되어 전우와 함께 고향에 돌아온다. 그는 꿈결에도 그리던 동생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마을사람들을 폭동으로 불러일으키며 지주놈을 통쾌하게 처단한다.

철용이는 마을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할건 우리의 힘뿐이며 혁명군을 따라 모두다 최악의 세상을 뒤집어엎고 인민의 새 세상을 마련하는 혁명의 한길로 달려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한다.

가극에서는 꽃분이네 3형제가 혁명의 길에 나서는 영광스럽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감격적이고 장쾌한 선물이 흐른다.

눈서리와 찬바람이 사납다 해도
봄과 함께 피는 꽃을 어이 막으랴
은혜로운 태양이 빛을 뿌리니
혁명의 붉은꽃이 만발해가네

마을에도 거리에도 마음속에도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난다네
삼천리 금수강산 내 조국땅에
활짝 필 꽃씨앗을 뿌려간다네

가극은 자주성이야말로 우리 인민과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의

길만이 우리 인민, 우리 민족이 살아갈 참된 길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가 어떻게 탄생하고 강화되어왔는가 하는것을 철용이와 꽃분이의 형상을 통하여 그토록 감명깊게 보여준 여기에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가 혁명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로 되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실현에 이바지하는 혁명적 대작으로, 혁명교양, 계급교양의 불멸의 교과서로 되는것은 명작이 시대와 시대를 넘어 혁명투쟁의 사상적 무기로서의 항구적인 견인력과 생활력을 가지는 데 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비록 지난날 일제 식민지통치하에서 우리 인민이 당한 민족적 설움과 고통,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내용으로 하고있지만 오늘도, 래일도 50년이고 100년이고 혁명투쟁의 사상적 무기로 영원불후할것이며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 수억만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위업실현으로 불러일으키는 혁명의 교과서로, 투쟁의 기치로 될것이다.

력사는 흐르고 세대는 바뀌어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새 세대들이 혁명의 골간으로 자라나고있다.

새 세대들은 지난날 꽃분이 일가가 것처럼 모진 고생속에서 고달픈 삶을 거쳐서야 체득한 계급투쟁, 혁명투쟁의 진리를 위대한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파악하고있지만 꽃분이네가 겪은것과 같은 쓰라린 생활고를 직접 체험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지난날 식민지노예살이를 체험한 세대들이라고 하여도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려오면서 쓰라린 과거를 옛말처럼 되새기게 되었다.

세월은 흘렀어도 우리 인민은 아직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혁명, 민족적 자주위업을 실현하지 못하였으며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통일의 념원도 실현하지 못한채 분렬의 수난을 겪고있다.

일제를 대신하여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인민들에게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하고있다. 오늘도 남조선땅에는 꽃분이네와 같이 자주성을 유린당하고 착취와 억압,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과거 일제식민지통치기반에서 자주성을 무참히 짓밟혀오던 수난의 역사를 잊지 말며 오늘 남녘땅에서 우리의 동포들이 겪고있는 고통과 불행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으로 우리를 깨우쳐주고있다.

우리는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가 주는 혁명투쟁의 진리와 생활의 교훈을 잊지 않고 투철한 혁

명관을 지니고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을 고수하고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의 발걸음을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 할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하에 우리 인민이 자신의 피와 땀으로 창조하였고 자주적 인간의 가치와 삶의 참된 보람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의 생활에 대하여 끝없는 긍지와 애착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창조적 힘과 지혜를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생활이야말로 온갖 사회악을 모르는 참다운 사회주의적 생활이며 그것은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고 개인의 안락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할수조차 없는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이다.

자본주의사회는 그것을 아무리 미화분식하여도 착취사회이외의 다른것으로 될수는 없다.

낯은것이 일시 둔갑하여 사람들의 눈을 유혹하고 사멸해가던것이 한때 되살아나는것 같이 보일수도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은 계급의 무기를 버리고 계급투쟁, 혁명투쟁에서 물러나는 변절이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혁명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동시에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주체의 기치높이 계속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는 진리를 완벽하게 밝혀주는것으로 하여 위대하며 우리 인민의 생활과 투쟁의 불멸의 교과서로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그 사랑 그 은정에 목이 메여

강수명

해빛 떠나 피는 꽃
이 세상 어데 있고
어머니 품 떠난 생명
이 세상 그 어데 있으랴

고마운 당의 사랑
그 자양분 한껏 받으며
아름답게 피어난 꽃송이
세월이 가도 시들줄 몰라랴

그 은정에 보답하지 못하고
귀밑머리 희여진 나에게
오늘은 또다시 생일날마저 헤아려
몸소 차려주신 60 돌 생일상

아, 그 사랑 그 은정에 목이 메여
숫구치는 눈물 금치 못하여
가슴속으로 목청껏 아뢰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가까이에 있어도
이 세상 먼곳에 가 있어도

굳게 믿으시고
아끼시며 이끌어주신 사랑
그 얼마였던가

지혜의 나래를 펴라고
어제는 과학의 전당에 세워주시고
오늘은 주체의 외교방법 꽃피워가는
시대의 척후병으로 내세워주시니

아, 나의 심장
영원히 뛰게 해준 그 사랑
생의 첫 걸음부터 언제나
그 어떤 절해고도에서도
변함없는 삶의 숨결을 안겨주는
그 위대한 사랑이여

나는 가리라
험한 진펄이 가로놓이고
불타는 강물이 막아서도
위대한 그 사랑 안고
생의 끝까지 변함없이 가리라!
전사의 의리를 다하며!

광복거리에 울리는 사향가

박창화

하늘도 땅도 노을속에 불타는
광복거리 건설장에
은은히 울려퍼지는 노래소리
사향가, 사향가

김정숙어머님과 손잡고 나란히
등근달 바라보며 불렀다는 그 사향가
그날 그때처럼
항일의 너투사 목메여 부르네

그래서인가
하늘 가득 어린 저녁노을은
어머님의 군복에 붙게 어리던
못잊을 그 우등불빛이런듯 생각깊어지고

가슴에 젖어드는
사향가의 구절구절은
김정숙어머님의 절절한 목소리런듯
자꾸만 눈굽 뜨거워지고

아, 밀림처럼 설레는 마음들
어느새 사향가 따라부르며
훤훤 나래쳐가네
우등불 타오르던 그날의 속영지로

정녕 그래서
눈앞에 선히 안겨오네
단 한번만이라도 가까이 뵈고싶은
김정숙어머님 그 영상이

정녕 그래서
귀에 쟁쟁히 울려오네
단 한번만이라도 가까이 듣고싶은
김정숙어머님 그 음성이

수령님의 사상을 지켜
청봉밀영에 높이 올리시던 목소리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자고
울기강 재봉대를 고무하시던 목소리

아득한 세월의 언덕을 넘어
노래와 함께 뜨겁게 울려오는
어머님의 그 목소리
온 건설장이 듣고있나니

아, 사향가 사향가
백두밀림에 꺼지지 않던 우등불
어머님의 심장속에 타오르던 신념의 그 우등불을
그대로 가슴마다에 옮겨주네
충성의 불이 되라고

조국엔 영웅이 있어야 한다

오필전

조국엔 영웅이 있어야 했구나
화근의 불이 달릴 때
육탄으로 그 불을 꺼주어야 할

조국엔 영웅이 있어야 했구나
식어드는 로속에 남먼저 뛰어들어
용광로를 살려주어야 할

그래서 있었는가
나라가 첫 걸음을 힘겹게 떼던 그때
금옥같은 애국미로 조국을 받든
농민영웅이,

그래서 있었는가
나라에 만톤의 강재가 그립던 그때
쇠물로 조국의 아픔을 풀어준
천리마의 영웅이

조국이 집이라면

그 집을 받들고선 영웅이 있어야 했으니
그 기둥이 영웅

조국이 철탑이라면
그를 떠이고선 고임돌이 있어야 했으니
그 고임돌이 영웅

발전소 굴뚝에선 흰 연기 뿜개치고
활짝 열어놓은 창가에선
행복의 웃음이 넘쳐흐른다
나라의 이 안녕을

그대들이 두어깨에 받들고 섰기에
지하천길 막장에서
그대들이 한몸으로 석수를 막아주었기에

영웅없는 조국은
기둥없는 집과 같고
피줄없는 심장과 같다

영웅이 많은 우리나라에
인민모두가 영웅이면 얼마나 좋으랴

기둥이 든든해야
집이 든든하고
고임돌이 커야

탑이 크고
성돌이 굳건해야
성벽이 영원하듯

아 조국엔 영웅이 있어야 한다
조국엔 영웅이 많아야 한다

좋다! 직선동독

리병철

갈개는 바다
바다밑 새 땅을 건져낼
또하나의 거창한 동독
좋다! 직선으로 뻗어가는것이

해상굴착기 긴 팔뚝이
무뚝무뚝 파올리는 흙과 바위로
자를 대고 줄을 치듯 바다를 찢니
희디흰 갈매기떼 놀라서 날고
먼곳의 섬들 손을 내민다

그렇다 너 바다
더는 물러서지 않고 배겨내지 못하리라
항일의 그날부터 어버이수령님
가슴속 안고오신 위대한 구상
현실로 펼치며 가고가는 우리의 길은
멈출수도 예돌수도 없는 바쁜길

곧추 곧추 뻗어가자 간석지 동쪽아
80년대 이 기슭에서
90년대 저 첫 기슭까지

굴곡많은 해안선 직선으로 메우고
조국지도 우리는 새로 그리리

바다를 뒤흔치며 솟구치는 물기둥
물기둥 넘어질 땐 물사태가 들썩우는데
신호기 흔들며 호각을 불며
자동짐배 신호하는 신호수 처녀야
방수복 고깔밑에 네 눈빛 곱기도 하구나

간고한 투쟁의 나날
날바다의 항거를 짓누르는 우리의 의지
너의 빛나는 눈빛이 되고
만년대계의 이 거창한 동독이 되어
뻗어간다 직선으로!
직선으로!

그렇다, 직선동독
이것은 수령님께 더 빨리
큰 기쁨을 드리려는 우리의 마음
간석지의 평방으로 충성심을 재며
남먼저 공산주의에 가닿으려는 우리의 신념

그 나날에

-한 영웅의 이야기-

한웅빈

...아득한 옛시절, 망각의 언덕너머로 사라졌던 30여년전! 무엇때문에 나는 지금 그 시절을 회상하는가. 수백톤짜리 트라스, 수십미터의 탑들로 화려하게 장식된 오늘의 이야기를 미루고. ... 나도 알수 없다. 아니, 한마디로 대답하기 어렵다. 다만 말할수 있는것은 그 시절에 대한 추억이 내가 해야 할 모든 이야기들의 첫 이야기로 생각된다는것이다. ...

하여 나는 그 추억을 더듬는다.

30여년전의 추억, 오늘이 빛날수록 더욱 자주 때없이 시없이 찾아와 추억의 문을 두드리는데 나의 어린 시절. 그 시절에 대한 회상은 아직 군데 군데 남아있던 무너진 벽체와 깨어진 벽돌장들, 그우에 올려퍼지던 《타전을 다진다. 힘차게 다져라...》 하는 노래와 함께 석실하면서 한없이 부드럽게 느껴지던 다정한 음성으로 찾아온다.

《...옛날옛적에 한 착한 소년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몇해째 앓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밤 소년의 꿈에 한 선녀가 찾아와 어머니의 병은 불로초라는 풀을 써야만 낫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불로초가 어데 가면 있는가 하는것도 가르쳐주었습니다.

소년은 불로초를 찾으려 떠났습니다. 험한 산을 넘고 깊은 강을 건넜고 호랑이도 만났고 괴물과도 싸웠습니다. 불의 바다가 막아서기도 했고 가시밭 이 앞길에 솟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물러서지 않고 가고 또 갔습니다. 그리하여 불로초를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놀라울것없는 재미있는 보통 옛말일뿐이다. 허나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것은 그 옛말을 들은것이 국어시간이 아니라 세포요 세포핵이요 하는 말을 들어야 할 식물시간이었다는때문일것이다.

우리에게 식물을 가르친것은 최문성선생님이였다. 마흔살이 좀 넘었으나 하얗게 센 머리와 구부정한 등, 얼굴의 주름살로 하여 10년, 15년은 더 나이들어보이는 선생님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어른들은 나이보다 무척 젊어보였던것 같다. 아마도 생활때문이었을것이다. 해방전의 생활, 가렬한 3년간의 전쟁, 전후의 어려웠던 나날...

그렇다.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었다.

1958년, ... 역사적으로 보면 혁명적 대고조의 시기, 천리마의 발구름소리가 세계를 진감시키며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높이 울리던 대양양의 시기였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한것이 많았다.

우리 학교에는 그때에도 큼직한 폭탄깍지가 매달려 종을 대신하고있었다. 먼지이는 신작로로는 총탄과 파편자국을 용접으로 《지워버린》 화물차들이 덜컹거리며 소란스레 굴러다녔다.

그해 9월에 나는 중학생이 되었다. 개학을 앞둔날 밤 어머니는 나를 앉혀놓고 길고 짧은 술한 당부를 하고 또 했다. 선생님들의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하라는것, 이제는 장난도 적게 하고 어른 구실을 하라는것 등등... 끝이 없었다.

《네가 공부를 잘하고 선생님들에게 칭찬만 들으면 이 에미가 널 머리에 이고 다니겠다.》

나는 어머니의 머리에 올라앉아다니는것이 좋으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으나 공손히 들었다. 어머니는 전쟁때 불속에서 기적적으로 건져낸 아버지의 바지를 뜯어 내 바지를 만들고있었던것이다. (아버지는 적들의 폭격에 세상을 떠났었다.) 그 바지는 중학생이 된 나에게 어머니가 해줄수있는 유일한것이였다. 동시에 아버지의 마지막 유물이였다.

이튿날 나는 그 바지를 입고 학교로 갔다.

그날 두번째 시간인지 세번째 시간인지가 식물수업이었는데 최문성선생님이 들어왔다. 첫인상부터 엄해보이는 선생님이였다. (사실 선생님은 무척 엄했다.) 석실히 목소리가 그 인상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흑판에 《식물》이라는 두 글자를 써놓고 돌아서더니 의외에도 《옛날 옛적에...》 하고는 불로초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서 서로 마주 보았으나 잠시후에는 이야기에 끌려들어갔다. 석실히 음성도 점차 부드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했다.

《...학생들은 불로초가 옛말에만 있는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로초는 오늘에도 있

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불로초는 어디 있으며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옛말의 그 착한 소년은 안타깝게도 불로초가 어디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년은 글을 몰랐으니까요.》

우리는 웃었다. 그러나 선생님은 웃지 않았다.

《그 불로초를 바로 학생들이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알려줄 아름다운 선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이 〈식물〉이라는 과학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흑판의 두글자를 가리켰다.

《학생들이 우리 나라의 모든 나무와 풀에 대하여 잘 알게 된다면 반드시 불로초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식물〉을 잘 알려면 옛말의 착한 소년이 걸었던것보다 더 어렵고 먼 길을 걸어야 합니다. …》

첫 식물수업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우리는 마치 동화속에 끌려들어가듯했다. 선생님이 펼쳐보이는 식물세계는 얼마나 신비해보였던가. 그 시간에 우리는 자신을 모험으로 가득찬 멀고 비사한 길을 떠난 옛말속의 착한 소년처럼 느꼈다. 그렇다. 선생님은 우리가 자신을 인류에게 불멸의것을 기여할 위대한 사명을 지닌 존재로 느끼도록 했다. 식물세계의 신비속으로 우리를 불렀다. …

그러나 우리들중에서 식물학자로 된것은 명철이 (그런 이름을 가진 학생이 있었다.) 하나뿐이었다. 그만이 선생님이 불러준 식물세계의 신비속으로 들어갔다. 불로초를 찾으려 떠났다고 할가. 그외에는 모두 공장과 농장, 바다… 나는 건설자로 되었다. 이것은 일종의 배은망덕이 아닐가. 선생님은 명철이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었다. (나는 그것을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이 사실을 두고 아직껏 한번도 가책을 느껴보지 못했다. 선생님에게 미안함을 느끼지도 않았다.

선생님이 그토록 식물수업에 애정을 기울인것이 우리모두가 식물학자가 되기를 바라서였을가. …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우리는 식물시간을 좋아했다. 최문성선생님을 무척 존경했던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선생님을 퍼그나 두려워했던것도 또한 사실이었다. 큰 소리치거나 성을 내는적은 거의 없었지만 우리는 두려워했다.

선생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을 때도 소리치거나 이름만으로 막 부르며 추궁하는적이 없었다.

언제나 《광록학생》, 《길호학생》 하는식으로 불렀는데 억양이나 표정은 《광록선생》, 《길

호선생》 하는것처럼 무게있었고 정중했다. 그것이 왜서인지 우리를 더 조심스러워지게 했다.

나는 더우기 매사에 조심하려고 애썼다.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보다도 어머니때문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선생님들의 말이라면 콩을 팔이라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일만치 무조건 믿었다. 선생님이 인사삼아라도 칭찬을 한마디한 날이면 나의 국사발에는 주먹만한 병아리가 한두놈 떠있곤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일이 알려지더라도 하면 그날은 집에서 일장의 폭풍우가 일곤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홀어머니로서의 기질을 남김없이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한것은 아버지의 이름까지 걸고 해대는 욕이나 매가 아니었다. 그런것은 얼마든지 견딜수 있었다.

견딜수 없는것은 그 어떤 소란스러운 폭풍우도 종당에는 부엌에서 소리를 죽여가며 우는 어머니의 호느낌으로 끝나고말곤하는것이였다. 나는 그 눈물에는 꿈쩍할수 없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앞이 엉터리없게 뿌애지곤하는것이였다.

그것이 나는 제일 두려웠다.

그러나 내가 선생님에게 잘못 보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했겠는지를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얼마후 나는 그만 의외의 일로 선생님에게 잘못보이고말았다. 본의아니게도 선생님을 노엽혔던것이다.

공부를 시작해서 한주일인가 두주일인가 지난 어느날이였다. 그날은 갑자기 비가 내렸다. 우리는 분주히 길가집 처마밑에 들어섰으나 그때는 옷이 벌써 반나마 젖어있었다.

비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불평들을 하는데 최문성선생님이 나타났다. 그는 옷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젖어있었다. 그런데도 처마밑에 들어서기를 별로 서두르지 않고 우리를 빙 둘러보기부터 했다.

《왜 그렇게 뿌루통해들 있소? 비때문에 그러오?》

우리는 불평하던 그대로 한마디씩 했다.

《옷이 다 젖었습니다!》

《가을비는 소용없답니다.》

누군가는 어른들에게서 들은듯한 말을 했다.

선생님은 빙그레 웃었다.

《소용없다니? 학생들은 지금 농촌에서 무엇이 자라는지 모르오? 가을남새가 한창이요. 이 비에 배추, 무우가 부쩍부쩍 자랄게요. 농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소?》

《장마라도 지면 어떻게 합니까?》

명철이 불쑥 물었다. 선생님은 우리를 내려다보더니 머리를 흔들었다.

《가을에 무슨 장마가 지겠소? 설혹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발전소언제들에 물이 가득 찰게 아니요? 전기가 많이 나오고... 학생들도 우리 나라에 수력발전소가 많다는걸 알겠지요?》

모두들 열성적으로 대답했다.

《예!》

그런데 나는 그만 못된 호기심이 시키는대로 묻지 말아야 할 말을 묻고말았다.

《발전소언제에 물이 가득찬 다음에도 비가 계속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

내 얼굴에 구멍이라도 났듯 내려다보는 선생님의 눈길에 나를 당황하게 했다.

《학생은 이상하구만, 취미가 이상하오. 그렇게도 현명한 사람이 되고싶소? 흐린날도, 비오는 날도 많을수 있지만 어떻게 구름우에는 푸른 하늘이 있을게 아니요? 비오는 날 구름은 누구나 보는게요. 동물들도 볼줄아오.》

《...》

나는 그때 선생님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알지 못했다....

전쟁의 폐허속에서 나라가 힘겹게 일어서던 날,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장 또 한장 벽돌을 쌓아 올리던 그 날에 가장 필요한것은 락판주의였다. 그때야말로 기나긴 장마비속에서도 푸른 하늘을 볼줄 알고 푸른 하늘이 펼쳐지리라 믿음을 가지는것이 필요한 때였다.

이것은 물론 썩 후야야 깨달은것들이었다.

그때는 그저 선생님에게 잘못보였다는것, 노엽혔다는것으로 하여 더 두려움을 느꼈을뿐이었다....

이런 옛말을 하던것이 기억된다.

《어느 먼 옛날에 한 장군이 침략자들과 싸우러 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험해서 말을 타고 가기 어려웠습니다. 말에서 내려 걸어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걸으면서 보니 말을 탔을 때는 미처 몰랐던 별의별 풀과 꽃이 다 있었습니다. 이제껏 궁궐같은 집에서 태어나 말을 타고서만 다닌 장군이었습니다. 볼수록 신기하고 아름다와 더 자세히 보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머리위로 핑- 하고 화살이 날아지나갔습니다. 장군을 죽이려고 숨어있던 적들이 쏜 화살이었습니다. 자그마한 풀 한포기가 장군을 살린것이었습니다. 장군은 그 풀을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생명의 풀이로다!> 하고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나라의 작은 풀 한포기에도 머리를 숙일줄 알라. 그러면 나무와 풀들은 그대의 보호자로 되리라...》

선생님은 전번 식물시간에 좀 이상한 숙제를 내주었다. 배워준것이나 교과서에 있는것들은

내어놓고 식물을 다섯가지이상 찾아오라는것이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자 숙제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렸고 다음날 학교로 가면서야 다시 생각했다.

《야단났구나!》

다섯가지란 쉬운것이 아니였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선생님이 말해준것들이였고 다른 풀들은 이름을 모르는것들이였다. 그러다보니 점점 막연해졌다. 기껏 찾아냈다는것이 달구지바퀴와 밭에 밟혀 볼풀없이 납작해진 길장구나 능쟁이 그리고 고양이밥, 조뱅이... 이런 따위들이였다. 그러나 다른것은 더 찾아낼수 없었다. 나는 바지가랑이에 어지럽게 달라붙은 우월을 내려다보며 우물하게 다섯번째를 꼽았다. 《도깨비바늘.》

교실에 들어서는 길로 명철에게 물었다.

《너 숙제했니? 식물숙제.》

《그럼!》

《좀 보자!》

그때 선생님이 들어섰고 수업이 시작되였다.

나는 아무것도 보충할수 없었다.

선생님은 숙제검열을 시작했다.

《누가 먼저 말해보겠습니까?... 명철학생!》

제일먼저 손을 들었던 명철은 기운차게 일어났다.

《제라 늑! 베고니야! 그라지오라스! 다리야!...》

선생님은 왜서인지 열개라도 더 꼽을 기세인 명철의 말을 중지시켰다.

《명철학생은 그 식물들을 어디서 찾아냈습니까?》

《우리 집 화분에 모두 있습니다.》

《앉으시오. ... 그럼 이번엔...》 선생님의 눈길이 나에게서 멎었다. 《광록학생.》

나는 일어섰다. 그러나 선뜻 입을 열수 없었다.

명철이 말한 희한하고 멋있는 식물들에 비하면 내가 말할것들은 너무도 시시한것들이였다. 어데 가나 볼수 있는 흔하디흔한 풀들, 눈에 띄만한 꽃도 피우지 못하는 풀들, ... 나도 명철이처럼 유리창이 번들거리고 화분이 주련이 놓인 집에서 산다면 더 희한한 이름들을 말할수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손바닥만한 집뜨락에조차 꽃이 아니라 가지나 고추따위만 심어놓았었다.

《광록학생은 한가지도 찾아내지 못했습니까?》

《찾아내긴 했는데...》

《그럼 말해보시오.》

나는 중얼중얼 말했다.

《길장구... 능쟁이... 고양이밥...》

키득키득하는 웃음소리들이 들렸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게 다요?》

나는 눈을 딱 감고 마저 대답했다.

《조뱅이, 도깨비바늘!》

와-하고 웃음이 터졌다. 나는 주저앉고말았다.

선생님이 얼마전처럼 《학생은 이상하구만! 취미가 이상하오. 어떻게 그런 쓸모없는 풀들만 찾아냈소?》 하고 말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아도 잘못 보였는데, 차라리 숙제를 못했다고 했을것을!

《조용하시오!》

선생님은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말했다.

《광록학생은 숙제를 잘했습니다.》

《?!》

나는 뻥-해졌다. 내가 숙제를 잘했다니?... 왜 선생님은 이로부터 희한한 멧쟁이 식물들을 찾아낸 명철을 칭찬하지 않고 누구나 다 밟고 다니면서도 한번 여겨보지도 않는 풀들을 알아낸 나를 잘했다고 하는것일까. ... 나는 이해할수 없었다. 내가 무엇을 잘했다는것일까. ...

선생님은 우리모두를 둘러보았다.

《광록학생이 찾아낸 풀들은 귀중한 풀들입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그것을 알게 될것입니다. 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손가락이나 손등을 다쳤다고 합시다. 그때 학생들은 광록학생이 찾아낸 풀들중에서...》

선생님은 마치 그 풀들을 내가 처음으로 찾아내기라도 한것처럼 말했다.

《세가지 이상을 잘 짓뎠어 붙여보시오. 그러면 깨끗이 나을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있는 식물은 그 어느것이나 물론하고 쓸모없는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풀 한포기라도 귀중히 여길줄 알고 눈여겨 볼줄 알아야 합니다.》

하고 선생님은 그 옛날의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 선생님에게는 그런 이야기들이 끝없이 많았다.

나는 지금도 알수 없다. 그 많은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어디서 알았는지.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아니면 식물교과서와 딱딱한 글줄사이에서 독특한 사랑의 눈으로 찾아낸것인지...

하여튼 그것은 내가 최문성선생님에게서 받은 첫 칭찬이었다.

서늘한 가을이 왔다. 맑고 푸르러진 하늘은 아득히 높아졌다.

우리 도시에도 천리마회장을 단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했다. 리발소나 빠스정류소들에는 《영예군인, 천리마기수들에게 우선 봉사합니다.》 하는 패쪽들이 나붙었다. 차장들이 《손님여러분, 자리를 좁혀주십시오. 우리 빠스에는 지금 천리마기수동지가 타고있습니다.》 하고 말하는것도 때때로 들을수 있었다.

길거리와 담벽들에는 당중앙위원회 9월전원회

의에서 제기한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구호가 나붙었다. 나는 그때 그 힘있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구호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나의 눈앞에 보인것은 그 구호밑에서 태어나고 있던 거대한 사변들이 아니라 가을걷이가 끝나가는 논밭들의 단조로워지는 색조며 봄을 맞은듯 싱싱해지는 가을배추, 무우의 선명한 푸른 빛이었다.

그런데 최문성선생님은 건강이 무척 나빠졌다. 자주 열이 올랐고 기침을 몹시 했다. 우리는 선생님이 백목가루를 많이 마셔서 기침을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날 우리는 학교에 나가자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어제 수업을 끝낸 선생님은 교원실로 들어 가자 쓰러지고말았는데 구급차가 와서 태우고 갔다는것이였다.

그 소식은 수업종이 울리기 몇분전에 들어온 교장선생님에 의하여 확인되였다. 교장선생님은 최문성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했기때문에 오늘 첫 시간인 식물수업을 못하게 되였으니 조용히 자습하라고 말했다.

우리는 물론 우렁차게 대답했다. 《예!》 하고...

그러나 교장선생님이 나가자 주머니와 책가방들에 숨어있던 《재산》들이 책상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무총, 총알까지, 나무권총... 지어는 사과알까지 등장했다. 모든 책상들이 《고물상》처럼 변해갔다.

수업종이 울렸으나 누구도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그런데 종소리가 멎는것과 함께 문이 열리더니 뜻밖에도 입원했다던 최문성선생님이 들어섰다.

《?!》

우리는 본능적으로 후닥닥 일어섰으나 너무도 의외여서 책상우에 널린것을 치울 생각도 못하고 선생님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앉으시오.》

선생님은 책상우의 《고물상》들을 보지 못하기라도 한듯 아무말없이 백목을 쥐고 흑판으로 돌아섰다. 수업규률이 엄격하던 선생님답지 않았다.

선생님이 수업제목을 쓰는사이 우리는 책상우를 정돈하느라고 서둘렀다. 여기저기서 무엇이 떨어지는 소리, 굴러가는 소리...

우리가 머리를 들었을 때 선생님은 이미 수업제목을 써놓고 돌아서있었다.

그런데 흑판에는 놀라운 글자가 씌여있었다.

《식물의 뿌리》라는 수업제목대신 《프락포르》라는 네글자가 커다랗게 씌여있는것이였다. 우리는 어리둥절했다. 프락포르, ... 프락포르가 무슨 식물이기라도 하단말인가.

《학생들!》

선생님의 음성은 저이기 떨리는듯했다.

《어제 11월 14일, 기양의 노동자아저씨들이 〈천리마〉 호 트랙포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버지원수님께서는 그 트랙포트를 친히 보시고 〈천리마〉 호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흑판에 《천리마》 호라고 커다랗게 썼다.

《〈천리마〉 호! 이것이 우리 나라 트랙포트의 이름입니다. 전쟁이 끝난지 5년밖에 안되는 재더미우에서 기양의 노동자아저씨들은 이 트랙포트를 단 35일동안에 만들어냈습니다.

이 세상에는 백여개 넘는 나라들이 있지만 트랙포트를 자기힘으로 만드는 나라는 열손가락안에도 못됩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의 〈천리마〉 호 트랙포트입니다.》

선생님은 《로동신문》을 펼치며 높이 쳐들었다. 온 교실이 신문으로 쓸렸다.

《앞에서부터 돌려가며 보시오.》

누구도 제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지 않았다. 서로 먼저 보려고 앞으로 나갔다.

누군가의 잉크단지가 굴러떨어졌다. 당황한 학급반장은 질서를 지키라고, 조용하라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선생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았다. 우리가 떠들썩하며 신문을 보는 사이 흑판에 《천리마》 호 트랙포트를 큼직하게 그려놓았다.

《트랙포트의 생산은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공업화에로의 큰 걸음을 내디디었다는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농촌에서 모든 힘든 일을 〈천리마〉 호 트랙포트가 하게 될것입니다. 10년, 20년후에는 온 나라에 〈천리마〉 호 트랙포트가 넘치게 될것입니다. 그때면 소들은 목장에서 풀을 뜯고있을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수업이었다. 책상우에는 식물교과서가 펼쳐져있는데 식물선생님은 트랙포트에 대하여 강의하고있었다.

우리는 식물학습장에 식물이 아니라 《천리마》 호 트랙포트에 대하여 썼다. 구조와 작용, 성능, 지어는 운전법에 대해서까지... (이것을 위하여 선생님은 병원에서 나왔던것이였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우리에게는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우리 나라에서 만든 트랙프라는것이 얼마나 만족을 주었던가. 영웅조선의 《천리마》 호 트랙포트! 어린 가슴을 가득 채우던 긍지와 자부심, 환희, ... 그것을 회상할 때면 지금도 나는 가슴이 울렁거린다. 그리고 나는 지금의 자기에게 의혹을 느낀다. 왜 오늘에 와서는 그보다 더 크고 더 벅찬 소식에도 그런 긍지와 자부심, 환희를 느끼지 못하는가. 많은것을 알게

되어서인가, 현명해져서인가.

만일 그래서라면 나는 자신이 많이 알게 되는것도 현명해지는것도 바라지 않는다! 차리리 30년전의 그 환희와 긍지로 가슴 울렁이던 소년으로 남아있고싶다!

때문에 선생님의 말이 아직 그토록 기억에 생생한지도 모른다.

《학생들은 앞으로 〈천리마〉 호 트랙포트를 물게 될것입니다. 그러면 명심해야 합니다. 짐싹지 않은 트랙포트는 짐실은 트랙포트에 길을 비켜주어야 합니다. ...》

그 마지막 말이 우리는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 규정이 《천리마》 호 트랙포트에만 한한것으로, 그것을 《천리마》 호의 겸손성과 근면성으로 받아들였다. ... 그런데 선생님은 우리의 실수를 깨우쳐주려고 하지 않았다. ...

그런데 며칠후에는 또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신문과 방송을 떠들썩하게 했다. 《승리-58》, 우리 나라의 첫 자동차가 생산된것이였다.

며칠후에는 락원에서 첫 대형굴착기가 태어났다.

또 며칠후에는 《붉은별-58》, 우리 나라의 첫 불도젤이 만들어졌다.

미처 익숙해질 사이없이 새라새로운것들이 쏟아져나왔다. 기계폭포라도 터진듯했다.

우리는 그것들이 언제면 우리 도시에 오게 될런지 무척 알고싶었다.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제 곧 올것입니다. 래일 올수도 있고 지금 오고있을수도 있으며 혹시는 벌써 우리 도시의 어느곳엔가 와있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은 우리 도시에 그 기계들이 오면 즉시 견학을 조직하기로 우리와 약속했다.

그러나 어찌된셈인지 신문과 방송, 우리의 수업까지도 가득 채운 《기계폭포》는 우리가 사는 곳에 나타날줄을 몰랐다.

어느날 아침, (그것은 아마 《천리마》 호 트랙포트에 대한 류다른 수업이 있을 때로부터 20일 남짓이 지나서였을것이다.) 나는 명철이와 함께 학교로 가다가 얼마 떨어진곳에서 발가운데 서있는 트랙포트를 보았다. 메뚜기이마같은 앞대자리, 개구리눈알처럼 푹 볼거진 전조등, 커다란 뒤바퀴와 조그마한 앞바퀴... 신문에서 본 《천리마》 호와 그 생김새가 비슷해보였다.

《여- 저저 〈천리마〉 호 트랙포트가 아니야?》

내 말에 명철은 눈을 크게 떴다.

《응? 〈천리마〉 호?》

《가보자!》

《지금?》

《지금 아니면?》

나는 앞서서 프락포르트로 달리기 시작했다.
갈아엎어놓은 발은 달리기 쉽지 않았다. 발
목까지 푹푹 빠져드는가 하면 강냉이 그루터기가
발과 바지가랑이를 걸어챘다.

그러나 나는 검은 연기를 뿜으며 굴러가는 프
락포르만 보며 달려갔다. 저 프락포르가 《천리
마》호 였으면! 제발 그대주었으면, 그러면 나는
한달음에 학교로 달려가 소리높이 알리리라. 우
리의 《천리마》호가, 첫 프락포르가 우리의 옆에
서 일을 하고있다고! 그 소식을 들으면 온 학교
가 떨쳐나 나를 따라 프락포르트로 달려오리라.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프락פור트는 강냉이짚을 산더미처럼 싣고 통통
거리는데 최쪽에서는 멩에를 벗은 황소가 느릿느
릿 새김질을 하고있었다. 그것은 선생님이 말한
그대로였다!...

허나... 그것은 《천리마》호 프락포르가 아니었
다. ... 앞고승이에는 《천리마》라는 글자가 아니
라 알수 없는 꼬부랑 글자들만 썩여있었다. ...

나는 한동안 멩하니 서있었다. 다음은 까닭없
이 쓸쓸하고 서글퍼지는 마음으로 천천히 돌아섰
다.

그때 학교에서 폭탄까지 두드리는 땡-땡- 소리
가 들려왔다. 수업시작종이였다. 명철은 언제 돌
아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나만이, 어리석은 나만
이 뒤엎어놓은 발가운데 혼자 서있었다. ...

나의 《견학》은 이렇게 끝났다. ...

교실문은 별로 소란스레 삐걱거리며 열리는듯
했다. 나는 머리를 푹 숙이고 주춤주춤 들어섰다.
일시에 날아오는 수십쌍의 눈길을 느꼈다.

최문성선생님은 교단에서 나를 잠시 내려다보
기만 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다.

《광록학생은 어데 갔댔소?》

《저... 발엘...》

《발엔 왜 갔댔소?》

《...》

나는 흙투성이 되고 찢어진 바지가랑이를 쓸쓸
하게 내려다보기만 했다. 아무것도 말하고싶지
않았다.

《프락포르를 보러 갔댔소?》

《...》

명철이가 다 말한것이 틀림없었다. 제발 빨리
들어와 앉으라고만 해주었으면.

《〈천리마〉호 프락포르를 보고싶어서 갔댔소?》

《...》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중에서도 명
철의 웃음소리가 제일 높았다.

《조용하시오!》

선생님의 음성은 무척 엄했다.

《명철학생은 왜 웃소?》

《저-》

명철은 벌떡 일어섰다.

《프락포르를 만들었다고 한지 한달도 안되는
데 어떻게 벌써 여기에 옵니까? 뻔한걸 가지구
바보처럼...》

나는 온몸의 피가 꺼꾸로 치솟는듯했다. 수업
중이 아니라면 한대 든든히 먹여 입을 다물게 했
을것이다!

그런데 선생님의 삼시에 달라진 음성이 명철의
입을 다물게 했다.

《학생은 정말 똑똑하구만!》

나는 선생님에게서 그런 음성을 두번째로 들었
다. 비오는 날, 나에게 이상한 취미가 있다고 하
던 그때의 음성이었다. 왜 저렇게 노했을까.

선생님은 명철을 똑바로 내려다보고있었다.

《너무도 똑똑하오! ... 똑똑한 바보요!》

《?!》

《앉으시오!》

그리고 선생님은 우두커니 서있는 나에게 머리
를 돌렸다.

《어서 자리에 들어가 앉소.》

그 음성은 의외에도 무척 부드러운다. ...

그날저녁 나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밖에
오래도록 쪼크리고 앉아있었다. 마른 쭉대풀이
침울하게 설렁거렸다. 12월의 찬바람이 황혼과
함께 옷설으로 스며들었으나 나는 그냥 그대로
앉아있었다.

찢어지고 흙투성이 된 바지때문이었다. 집에서
무엇이 맞아줄지는 불보듯 뻔했다. 나한테는
바지란 입고있는것 하나밖에 없었다. 그 어떤 변
명도 어머니를 진정시키지 못할것이었다.

어머니의 욕설과 눈물에 부딪치기보다는 밖에
앉아 밤을 새우는편이 훨씬 나았다.

그러나 밤보다 먼저 배고픔이 찾아왔다. 굴뚝
에서 나오는 연기에서도 밥냄새가 풍기는듯했다.
배고픔이 나를 더 앉아있을수 없게 하였다.

어떻게 할가. 배가 금시 끊어지는듯 아픈 시늉
을 하며 들어갈가. 아프다고만 하면 삼시에 겁 많
고 어쩔바를 모르는 너인으로 되는 어머니였다.

나는 벌떡 일어났으나 도로 주저앉았다. 배가
아프다고 하면 욕은 면할수 있지만 그대신 좁쌀
죽을 반사발이나 겨우 되게 쑤어줄것이었다.

그렇게는 할수 없었다. 죽을 먹느니보다는 욕
과 함께라도 밥을 먹는편이 천백배 나았다.

그때 뜻밖에도 마당가에 최문성선생님이 나타
났다. 그는 나에게로 몸을 굽혔다.

《광록학생이 아니요? 왜 여기서 이러고있소?》

《선생님...》

나는 당황해서 일어났다. 선생님이 어떻게 여
기에 나타났을가 하는 의문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저 어쩔바를 모르고 쳐다보기만했다. 그토록

나는 놀랐고 당황했었다.

(선생님이 나와 어머니를 만나려고 온 것이었다는 생각은 썩 후에야 떠올랐었다.)

《어머니가 아직 안돌아오셨소?》

《예. 아니 저-》

그때 부엌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나왔다. 설 것이 물을 쏟아버리고 돌아서던 어머니는 마당밖에 서있는 나와 선생님을 보고 눈이 둥그래졌다.

《아니?!... 선생님!...》

어머니는 황급히 물그릇을 내려놓고 반가운 얼굴로 마주 걸어 나왔다.

그러나 다음순간 내 옷주체를 분간해본 어머니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해쓱해졌다. 여불없이 못된 장난 끝에 선생님에게 끌려온 형상이었던 것이다. 그런 《불행》을 한두번만 아니게 겪어온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두손이 맥없이 축 내려졌다.

나는 가슴에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 《불행》을 주게 된 데로부터 느낀 첫 아픔이었던지도 모른다.

선생님은 화석처럼 서있는 어머니에게로 다가갔다. 나는 그자리에 서있었다. 이제는 어떤 거짓말도 소용없게 되었다. 선생님은 오늘 있는 일을 모두 그대로 이야기할 것이다. 그 무엇도 피할 수 없었다. 육설과 눈물... 나는 머리를 돌리고 말았다. 사방으로 짜늘한 어둠이 밀려들고있었다.

《선생님, 저너석이 또 무슨...》

절망으로 떨리는 어머니의 목소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광록이 어머니, 광록인 오늘 장한 일을 했습니다.》

《예? !》

어머니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았다.

아니, 너무도 뜻밖의 칭찬이어서 어리둥절해버린 것이었다. 나도 같았다. 내가 장한 일을 했더니, ... 언제, 어떻게?...

선생님은 다시 한번 툭툭히 말했다.

《광록인 오늘 정말 장한 일을 했습니다.》

《예? 그게 정말인가요. 선생님?》

어머니는 어떤 일인지를 알고도 하지 않았다. 첫마디에 벌써 목이 메여오르고있었다.

선생님이 찾아와 아들칭찬을 해주는 《경사》를 여직껏 모르고 살아온 어머니였다.

《광록이 어머니, 광록인 오늘 우리 나라에서 만든 프락포르를 보러 갔다왔습니다.》

《예?!》

어머니는 휘둥그래진 눈으로 나의 옷차림을 더듬었다.

《그럼...》

《그렇습니다.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우리 나

라에서 프락포르를 만든 것이 얼마나 기뻐하면, 그 《천리마》호 프락포르를 얼마나 보고싶었으면 그렇게 달려갔겠습니까?》

선생님은 마치 내가 《천리마》호 프락포르를 보고 오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고있었다. 그러나 사실 그 곳에는 《천리마》호 프락포르가 없지 않았는가. 나는 아무것도 못보지 않았는가...

그러나 선생님은 말하고있었다.

《광록인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선생님!》

어머니는 벌써 울고있었다. 눈물에 목이 메여 더 말을 못하고 그저 울며 웃고있었다.

선생님은 나에게로 돌아섰다. 손으로 내 머리를 천천히 쓸어주었다. 그 손은 무척 뜨거웠다. 신열이 높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광록아, 앞으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선생님!》

눈앞이 뿌옇게 흐려들고 입으로 찻절한 것이 흘러들었을 때야 나는 나도 역시 어머니처럼 울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다른 것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 왜 장한 일을 했다고 하는지, 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는지...

그때로부터 30여년이 지났다.

그 나날들에 내가 항상 그 일들을 회상하곤 했다고 하면 거짓일 것이다. 그러나 잊지는 않았다.

얼마전에 명철이가 선생님의 소식을 전해왔었다. 그는 편지에서 오래전부터 년로보장을 받고 있는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을 때 내 소식을 이야기 했다고 썼다. 선생님은 한동안 말없이 먼 곳을 바라보다가 (아마도 30년전의 그 먼 기슭을 보셨을 걸세.) 천천히 말하더라고 한다.

《고맙소. ... 광록이를 만나게 되면... 고맙다고 하더라고... 말해주시오.》

(그런데 선생님의 주름진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질 않겠나? 선생님도 늙으셨더군.)

늙으면 눈물이 해퍼진다고들 한다. 그러나 나는 선생님의 눈물을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고맙다고 하더라고 전해주시오.》

과연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푸른 하늘과 불로초였던가. 크고 작은 풀과 나무, 그리고 프락포르였던가. 아니, 선생님이 가르친 것은 그 모든 것이 자라는 이 땅이었고 이 시대였다. 이 땅, 이 시대에 사는 자각이었다!...

《광록인 오늘 장한 일을 했습니다.》 그 말속에 그리고 이 머리위에 놓여졌던 따뜻한 그 손길에 나의 《오늘》이 있었던 것이 아닐가. 그렇다. 그 시절에 바로 나의 《오늘》이 있었다. 잊을 수 없는 그 시절에...

조국과 병사

차명문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끝없이 뻗어가는 고속도로로
앞산에 뜨겁게 새겨져있구나
-조국은 병사들을 잊지 않으리!

어찌 앞산뿐이던가
진펄을 넘어서는 다리보에도
저 글발이 우리 가슴 올려주지 않았던가
-조국은 병사들을 잊지 않으리!

저 글발이 아닌가
조국 수호에 피를 바치고
조국 건설에 땀을 바치며

때로 생을 바쳐도
조국과 함께 영생하는
병사의 삶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끌며 떠밀어주는
글발이여, 너는 다름아닌
어머니 조국의 파사로운 눈빛
병사들 위훈에 대한
믿음과 담보

정녕 저 글발은
병사들 가슴마다에 빛나는
금별혼장속에 숙연하여라

시를 두고 갔다

황명성

시인들이 찾아와
병사들에게 시를 읊어주고
로반우에 흠도 함께 다지더니
떠날 땐 시를 두고 갔다

뜨거운 속삭임이런듯
열정의 호소이런듯
들을수록
심장을 울리던 시

현장방송차도 놓칠세라
록음테이프에 다 담았고
병사들은 병사들대로
수첩에 다 적어넣고

발과연기가 배인 바위를 딛고
시를 읊던 시인을 생각한다
배우들처럼 랑송은 류창하지 못했어도
소박한 그 목소리를 지금도 듣는다

언제나 못잊는 어머니의 당부처럼
군기앞에 다진 선서의 맹세처럼
병사들의 넋을 붙들고 놓지 않던
주옥같은 시의 구절구절이여

군가처럼 너를 외우며
기계가 부족해도 산을 허물고
맨손으로도 바위를 안아내며
로반우에 위훈새긴 병사들

시인들이 두고 간 한편의 시
백대, 천대의 굴착기보다도
너는 더 필요했다
너는 더 위력했다

평양-개성사이 고속도로도로여
자욱마다 병사들의 위훈을 새기며
시처럼 아름답게 뻗어가라!
시처럼 즐기치게 뻗어가라!

청춘의 삶이 빛나는곳

김명익

당을 따르는 일편단심 마음이런가, 넓고 곧게 뻗어간 평양-개성사이 고속도로로! 산이면 산을 가르고 강이면 강을 건너 깎아지른듯한 벼랑굽과 협곡들을 가로 타고 곧추 지나간 다리들과 로반에는 얼마나 많은 우리 시대의 유명무명의 청년 군인건설자들의 충성의 마음이 심심히 깃들어있는것인가.

병사의 위치

봄빛이 질어가는 어느날 조선인민경비대 신용택소속부대의 군의소에서는 뜻밖에 소동이 벌어졌다. 중상을 당하여 입원하였으나 이제는 회복기에 들어 료양소로 떠나보낸 한 청년군인이 중적을 감추어버린것이다. 예정날자가 지났으나 료양소에 도착하지 않았다는것이다. 군의소에서는 나타난 사실에 대하여 상급에 보고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해당한 구분대에도 알렸다. 구분대에서도 놀랄뿐이었다. 하다면 그리도 애타게 찾고있는 그 청년군인은 어떤 사람이며 그가 간곳은 어디인가?

송원언제공사의 맡겨진 전투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한 구분대앞에는 평양-개성사이 고속도로로 건설장으로 진출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이 하달되었다. 새 전투명령을 받아안은 군인건설자들의 기세는 자못 하늘을 찌를듯하였다.

그러나 중사 맹만수동무는 그때 군의소에서 수술을 받고 침상에 누운몸이었다.

(아, 동무들은 어디로 가고 나혼자 남았는가.) 맹만수동무는 자신의 일신상에 부닥친 불상사보다도 전우들을 생각하였으며 자기 분대를 생각하였다. 그는 구분대가 새 전투장인 평양-개성사이 고속도로로건설장으로 이동하던 도중 북방의 가파로운 눈길에서 설비와 자재를 실은 자동차가 뜻하지 않게 위험에 처했을 때 한몸을 내대여 구원하고 중상을 입었던것이다. 돌이켜보노라면 군사복무의 나날 조국보위초소에서 그리고 중요대상건설전투장에서 그의 삶은 얼마나 보람차게 흘러왔던가.

송원언제기초굴착공사때였다. 구분대앞에는 임시 난관이 조성되었다. 곧은 암반을 단지 소발과

에 의거하여 까내야 했다. 조금이라도 한정된 발과량을 넘기면 기초에 균열을 가져올수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이런 속도로는 당앞에 결의한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할수 없었다. 지휘관들도 병사들도 속이 달았다. 돌과구를 열수만 있다면 한몸을 그대로 바칠 각오였으며 결심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영웅부대》의 전사들인데 물불을 가릴소냐, 만수동무의 심정인들 조금도 다름바 없었다.

그는 측량공이였으며 구대원의 한사람이었다. 며칠동안 현장에서 밤을 밝혀가며 탐구와 사색을 거듭하던 그는 마침내 실머리를 찾아쥐었다. 동발목을 깔고 대발파를 한다면 충격파에 의한 균열현상을 막을수 있지 않겠는가.

구분대장 김익중동무가 그의 착안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아주 대담한 시도요. 대발파를 시험해봅시다.》

수십여차례의 시험끝에 가장 합리적이며 안전한 발과량을 선택하였으며 그것은 공사속도를 무려 33 배로 끌어올렸다.

그날 구분대전투원들은 부대의 돌격로를 열어놓은 만수동무를 들어올리며 축하해주었다.

《정말 수고했소. 만수동무가 큰일을 해냈소.》 구분대장이 못내 대견하여 그의 어깨를 두드리는데 만수동무는 얼굴을 붉힐뿐이었다. 그리고는 그윽한 눈길로 푸른 하늘을 이윽히 바라보는것이었다.

《무엇을 생각하오, 만수동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입대할 때 고향마을을 떠나오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

그의 고향은 리원이었다. 푸른 소나무숲이 끝나는 바다가 백사장에 쉬임없이 파도가 철썩이고 갈매기떼들이 유유히 날아왔다.

초소로 떠나는 그를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무들이 먼 모래불까지 배려주었다. 그들속에는 담임선생님도 있었다. 녀선생이었다. 그는 만수동무의 손을 잡고 걸으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전호숙의 나의 노래 고향으로 울려가라
조국땅을 보위하러 총을 멘지 삼년석달

녀선생의 노래는 은은하고 절절하였다. 동무들

이 담임선생의 노래를 따라불렀다. 만수동무의 가슴은 걱정의 파도가 일렁이었다.

투쟁의 노래

적탄알이 비발치는 격렬한 싸움에도
공세우라 하신 말씀 명심하여 싸웠네
공세우라 하신 말씀 명심하여 싸웠노라

아버지, 어머니가 말없이 지켜서서 림름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만수동무는 어느 하루도 그날의 일을 잊은적 없었다. 침상에 누워서서 더욱 그러하였다. 상처가 아물고 몸이 회복되어가며 그의 가슴은 피가 끓었다. 그의 가슴에 끓는 피는 단지 아버지, 어머니가 그에게 물려준 피와 젊음만이 아니었다. 앞을 다투어 병원으로 달려온 전우들이 그의 몸에 피와 살점을 보충하여주었다. 바로 그들과 함께 새로운 전투명령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나는 이러고만있는가. 명령을 받은 전사는 물러설수도 죽을수도 없다는것을 우리는 항일혁명선열들의 불멸의 생애에서 배우지 않았던가. 조국해방전쟁시기 중상을 입은 인민군대의 한 지휘관은 자기에게 5분만 생명을 연장하여달라고 절절히 부탁하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원썩적의 성전으로 부대를 이끌지 않았던가. 가자, 나의 초소로, 병사의 위치로!

이렇게 되어 료양소가 아니라 평양-개성 사이 고속도로로 건설장으로 향하였던것이다.

그날밤 구분대가 자리잡고있는 양암산 기슭의 병실앞마당에는 구분대장 김익중동무와 정치지도원 리순영동무가 있었다. 그들은 군의소에서 방금전 전화를 받았던것이다. 그랬던만큼 그들의 낮빛은 반가움보다도 엄격한 표정이 더 짙었다. 그러나 료양을 해도 치료를 받아도 고속도로로가 완공된 다음에 하겠다는 만수동무의 불같은 열망앞에 그들도 더는 어쩔수 없었다.

《그러나 절대로 작업장에 나타날 생각은 아예 마오. 동무의 임무는 병실에서 안정하는것이요.》

구분대장의 엄격한 명령이었다.

만수동무는 얼굴을 찡그렸다.

《자, 이제 그만 됐소. 어서 병실로 들어가시오.》

어깨를 툭 건드리며 정치지도원이 시원스레 웃었다.

만수동무는 어째서인지 눈물이 핑 돌았다.

허나 어찌 다 알았으랴. 소대병실에는 예나 다름없이 만수동무의 자리가 깨끗이 마련되어있었으며 여전히 소대의 제 4분대장이었다.

밤은 깊었으나 구분대병실은 멀리 헤여졌던 천혈옥을 맞이한듯 오래도록 불이 켜져있었다.

벽찬 투쟁의 나날은 흘러갔다. 구분대앞에 맡겨진 전투임무는 평양-개성사이 고속도로로의 로반 한가운데 들어앉은 양암산에 소갱을 뚫고 쌍차굴을 뚫어나가는것이였다. 경쟁이 무어지고 낮에 밤을 이어 착암을 하고 발파를 했다. 소갱은 한메터 또 한메터 지심을 향하여 전진해갔다.

동무들의 전투소식을 만수동무는 병실에서만 들을수밖에 없었다. 가파로운 산정길을 타고가야 하는 전투장으로 그가 오는것을 원치 않았다. 그것은 변함없는 구분대장의 명령이기도 하였다.

몸을 빨리 회복하라는것이다. 맛있고 영양가 높은 음식은 언제나 만수동무의 식탁앞에 푸짐히 차려졌으며 닭곰이며 보약을 병실로 날라왔다. 소대전투원들은 그가 병실에 와있는것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진다며 그의 자기 희생적인 행동을 두고두고 말했다. 그리고 전투장에서 돌아올 때면 철쭉꽃, 산나리 등 갖가지 꽃들을 꺾어다가 그가 있는 병실에 언제나 그윽한 향기가 넘치게 했다. 저녁이면 모여앉아 그날그날의 작업이야기도 들려주고 노래도 함께 부르며...

그러나 천고의 지심을 뚫고 차굴을 이어가는 공사는 말그대로 자연과의 투쟁이여서 난관이 없을수 없었다. 더더구나 소대원들중 많은 동무들이 착암기를 처음 잡아보는 신입대원들이였다. 발파효률이 낮고 굴진속도가 떨어질 때면 그들의 얼굴에는 그들이 비끼곤하였다. 될수록이면 만수동무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그것을 모를리 없는 그였다. 그는 비록 병실에 앉아 있었으나 마음은 언제나 전투장에 있었다. 지심을 울리며 들려오는 착암기소리와 발파소리를 심장으로 가늠하며 살았다.

하지만 마음만으로 무슨 소용이랴. 그의 온몸에 뛰고있는 젊음과 약동하는 힘을 깡그리 바치지 않고서야 무슨 청춘이며 삶이랴. 동무들이 일하는 전투장을 지척에서 바라만 보고있는 그의 가슴은 한껏 달아올랐다. 이럴바엔 차라리...하루에도 이런 생각이 그 몇번...

동무들이 전투장으로 나간 그날아침도 만수동무는 병실앞마당을 서성거리며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

(암질상태가 달라져서 애를 먹는다는데 오늘은 어떻게 되었을가?)

누구인가 다가와 가만히 그의 팔굽을 잡았다. 정치지도원이였다.

만수동무는 피로게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는 그를 정치지도원이 말없이 데리고 병실로 들어갔다.

《정치지도원동지, 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만수동무는 피로운 심정을 그앞에 터놓았다.

한동안 묵묵히 듣고만있던 정치지도원이 웃음을 띠우며 그의 손을 잡았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동무는 지금 대원들과 함께 전투대오에 당당히 서서 고속도로로진설에 참가하고있단말이요.》

《예?! 제가말입니까...》

정치지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말을 이었다. 남다 자는 깊은 밤이면 어린 대원들의 목덜개도 새로 갈아대주고 갱안에서 젖고 더러워진 신발과 발싸개를 깨끗이 빨아서 밤새워 말리워주곤하는 만수동무의 소행, 그것은 비록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이지만 그 웃을 입고 신발을 신고 전투장에 나간 대원들은 만수동무의 마음까지 합치여 일하고있다는것이다.

《자, 만수동무, 다른 생각 말고 오늘부터는 나를 좀 도와주오.》

이러면서 정치지도원은 그에게 숙보원고를 주었다. 구분대의 숙보공작을 맡아달라는것이였다. 구분대에는 그보다 솜씨가 있는 숙보원이 있다는것을 그가 왜 모르랴. ...

《정치지도원동지, 알았습니다!》

갈린 목소리로 힘차게 대답하는 그의 눈빛에는 조직과 집단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려는 결연한 빛이 넘쳐흐르고있었다.

이튿날부터 숙보판에는 류다른 글발이 전투원들의 심금을 울렸다.

《전투명령은 법이다!》

《개통의 그날을 위하여!》

《당중앙이 안겨준 <영웅부대>의 고귀한 칭호를 충성으로 빛내이자!》

그렇다. 한자한자의 글발에는 한생을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려는 만수동무의 굳은 의지와 결의가 댕댕히 담겨져있었다. 그러한 전투속보는 누가 언제 세워놓았는지 갱앞에도 압축기실에도 나붙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막장에서는 겹질로 된 암반상태로 하여 작업이 중지되었으며 어디에 정대를 대야 효율적이겠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그날따라 소대장도 없었고 경험있는 대원들도 없었다. 그런데 막장의 고요를 흔들며 투격투격 들어서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다름아닌 만수동무였다. 새로운 숙보를 써가지고 올라와 바람이 새는 고무호스를 손질하던 그는 문득 벗어나는 착암기소리에 불안한 마음을 안고 달려들어온것이였다.

《왜 떴었소. 착암기가 왜 떴어셨소?》

허둥지둥 걸어오는 그앞에 대원들이 막아섰다.

《분대장동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습니까? 그 불편한 몸으로...》

《어서 나가자요. 여기 일은 우리가 감당해요.》

신입대원들인 길대철, 김영남 동무들이였다.

《동무들, 이러지들 마오. 나도 초소에 선 병사요. 나의 몸에는 동무들의 피가 흐르고있소. 나를 동무들곁에 세워주오!》

그는 동무들을 가볍게 물리치고 막장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암질상태를 분석하고 속빠기발과워치를 합리적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나서 착암기를 역세게 틀어쥐었다. 착암기는 세찬 진동을 일으키고 막장은 다시금 들끓기 시작하였다.

누구인가 착암기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

빛난 혼장 가슴팍에 내 집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부모처자 두팔로써 안기리
사랑하는 부모처자 두팔로써 안기리라

오락회때마다 만수동무가 즐겨부르고 전사들이 사랑하는 노래였다.

이 노래를 부르며 만수동무가 전투장에서 동무들과 함께 불굴의 정신으로 투쟁의 나날을 보낸 것은 그 몇날, 몇밤이었던가.

구분대앞에 맡겨진 과제를 부대에서 제일 선창으로 끝내고 충성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삼가 올리던 그날! 정녕 그날은 만수동무의 일생에 있어서도 잊을수 없는 날이었으니 그는 영광스럽게도 조선로동당의 영예를 지닌것이였다.

조선로동당의 당원증을 가슴에 소중히 지니고 당위원회문을 나서던 못잊을 그날 두사람이 그를 맞아주었다. 정치지도원과 그의 입당보증인인 구분대장이였다. 그들은 만수동무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정치지도원동지, 구분대장동지, 저는 오늘의 이 영광, 이 행복을 심장에 지니고 영원히 당을 받들어 한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렇다. 순간을 살아도 당을 위하여 살고 그 품속에서 청춘도 삶도 빛내어나가는것은 우리 시대, 혁명하는 시대의 청년군인들의 의지이며 리상이다. 이런 청춘들의 심장으로 하여 오늘 평양-개성사이 고속도로로의 완공의 그날은 앞당겨지고 조국은 날로 통성변명하는것이다!

로반을 걸으며

리의석

나는 지금
말없이 걷는다
승엄한 생각속에
아득히 뻗어 수백리끝에 닿은
평양-개성사이 고속도로로 로반우를

협산의 한복판을 찍 갈라낸
그날의 300만산 대발파소리
상기도 저 벼랑끝에 메아리치는듯
쏟아지는 석수속에서도
호방하게 울리던 전사들의 웃음이
수백미터 굴길 암벽에 그냥 젖어있는듯

아슬한 교각밑을 감도는 저 강물은
얼음물속에서도 노래높이 부르며
기초를 파내던 뜨거운 그 마음 어려
저리도 맑고 맑은가

길은 곧고 넓어도
내 선뜻 발걸음 내디딜수 없구나
여기 포성없는 전투장
한자욱 한자욱 구간마다에
그렇듯 높은 위훈 새겨온
병사들 그 모습이 떠올라서

세월은 흘러 먼 후날
사람들은 이 길을 오가며
길가에 핀 꽃향기에만 취할수도 있으리
산천경개에만 눈길을 팔수도 있으리

허나 잊지 않으리라 조국은 영원히
성토로 교각으로 콘크리트로 응결되어
그렇듯 드뭇없이 이 길을 받들고있는
우리 전사들의 불타는 그 마음을

내 걷는 이 한자욱을
천리로 만리로 헤아린다면
로반에 깃든 사연
심장에 다 새겨안을것인가

아, 당의 위대한 구상속에
또하나 시대의 대기념비로 태어나는
고속도로로여
너는 이 길을 걷는 누구나의 가슴속에
오가는 길만이 아닌
누구나 한생 걸어야 할
위훈의 길을 펼쳐추고있구나

조선의 보통날에

윤경주

오늘은
마지막 폭약을 장약하는 오늘은
이 땅우에 흘러간
그런 날과 다름없는 보통날이다

지금 병사들은
대피호 흙벽에 기대서서
숨죽이며 초조하게 기다리고있다
대발파의 순간을

이 시각, 푸른 하늘가 저 멀리엔
깃을 치며 날아가는 철새들 무리
염소떼 풀을 뜯는 언덕 너머 기슭엔
소담한 들국화
계곡에선 실개울이 주절대며 흐른다

지금 이 시각
저기 해빛밝은 아담한 교정에선
아이들의 랑랑한 글소리
산굽이를 돌아간
두줄기 궤도우엔 차륜의 동음
어제도 이렇게 하루가 흘렀거니

땀젖은 군복을 갈아입을새없이
강도를 뚫고 폭약을 장진하며
병사들이 맞이한 이 순간은
조국의 수많은 날들중에 작은 물방울
대하의 장쾌한 흐름에서
그 작은 물방울이 무슨 대수랴

그들에게는 명예를 바란적도 없노라
순간을 한생처럼 빛내며 살자고

당앞에 맹세한 그 신념으로
300만산을 들어옮길
대담한 작전을 벌려왔거니

우리 다 이야기하지 말자
훈련의 휴식참
고향의 자랑속에 읽던 편지구절이
여기 300만산 발파를 앞둔 시각
왜 다시금 떠오르던가를

새 가정을 이루는 외동딸이
아버지의 성공을 빌어
애타게 썼을 그 편지
착암기를 틀어잡은 막장에서
딸의 행복을 축복했다는 러단장아바이

이렇게 마련된 순간이었거늘
보아라, 움쉴 흠기둥이 치솟는다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소리

아이들이 팔매질한 조약돌처럼
가볍게 날아가는 집채같은 바위돌들...

드넓은 우주공간도
300만산이 폭발하는
저 소리 담기엔 너무도 작아
요란한 메아리를 터쳐놓는다
굉! 짜르릉-

아
하늘이 운다, 땅이 태질한다
우리 군대들이, 우리 병사들이
당이 키워준 무비의 담력으로
수령을 받드는 철의 어깨로
300만산을 통채로 들어옮긴
조선의 보통날에
조선의 이 순간에
세계가 놀란다

전선은 종대로

김석래

극비였다
언제나 작전지도는
봉투에
문건함에 벽함에
깊숙이 넣고 또 봉인하는것으로

그런 작전지도에
못지 않아도
공개되었다
고속도로도로건설지도는

자기 고향마을을 지난다고
기뻐하는 량볼붉은 전사
사단구간에 건설할 다리를 세여보는
공병과장
저마다 하는 그 생각의 물결우에
잔물결을 일으키는 로병의 말
-전선종대로군!

-전선종대

그 어느 군사교범
그 어느 군사규정
그 어떤 군사상식에도 없건만
어렵지 않게 이해하노라
우리의 전선은 종대로!

병사와 병사들이 봄비여도
참호가 필요없는
고속도로도로건설장

좌우측은 있어도
린접은 없고
앞뒤가 똑같은 전투장
후방이 량옆으로 바다까지 뻗어간
불꽃튀는 건설전투장에 새롭게 태어난 말

평화의 대로를 다지는
우리의 전선은 종대로!
우리 식 건설전투의
전선은 종대로!

《평양이 보인다!》

- 신용택동무소속구분대 군인건설자들을 찾아서 -

신리섭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영웅적으로 살며 영웅이 되는것은 자주적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값있고 보람찬 삶으로, 가장 높은 영예로 됩니다.》

이 땅위에 시대의 기념비로 높이 솟아오르는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을 바라볼 때면 우리는 전국 영웅대회호소에 따라 새로운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나가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투쟁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며 격앙되는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군 한다.

《평양이 보인다!》

이것은 평양-개성사이 고속도로로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가고있는 신용택동무소속구분대 군인건설자들의 전투장에서 본 속보의 내용이다.

물론 한두줄에 불과한 속보내용을 통해서 이곳 구분대 군인들의 전투소식을 다는 알수 없었고 짐작도 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군인건설자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 신념과 의지, 아름다운 꿈과 랑만, 티없이 깨끗한 랑심으로 추만된 교상한 정신세계를 가슴깊이 느낄수 있었다.

고요...

전투장에는 끝없는 고요가 흐르고있었다.

산타를 깎아 내느라고 용을 쓰며 대지를 흔들던 대형불도젤의 동음도, 꼬리를 물고 들이닥치는 자동차들에 버력을 실어주느라고 분주하게 팔을 저으며 돌아가던 굴착기도, 신호공의 야무진 호각소리도, 병사들의 웃음소리와 방송원의 격동에 찬 목소리도 고요속에 잠겨들었다.

평양에서 시작되어 개성을 향해 기운차게 뻗어오던 고속도로로는 이곳 구분대 전투장에 와서 멈추어섰다.

연연히 물결쳐간 산줄기들 한복판에 심술궂게 웅크리고 앉은 높은 봉우리가 군인건설자들의 의지와 맞서 버티고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끝내 당에서 《영웅부대》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준 이곳 구분대 전사들에 의해 수천톤의 폭약을 배에 깔고 종말의 그 시각을 한초한초 기다리고있다.

300만산 대발파! 전문가들한테도 처음인 대발

파를 우리 청년군인건설자들이 진행하고있는것이다.

그래서인지... 참으로 흐르는 시간의 한초한초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된 순간이었다.

우리는 동행하던 구분대 정치위원 문형종동무의 얼굴을 돌아보았다. 그의 입은 떨어지지 않을 상실킨 듯 딱 다물려져있었고 두눈에는 불꽃이 튀기는 듯 하다.

발파가 어떻게 될것인가고 물으려던 우리는 단념하고말았다. 이런 시각에 그런것을 묻는다는것은 너무나도 경우가 맞지 않는것이다. 우리는 다시 얼마후면 눈앞에서 없어질 산봉우리에 흥분과 초조의 눈길을 돌렸다.

급한 경사를 이루다가 점차 완만한 기복을 이루며 솟은 봉우리위로 뻗어 올라간 외줄기의 오솔길이 우리의 시선을 끌었다.

길, 다문 얼마라도 질러가기 위해 누군가가 낸 발자국이 한걸음 두걸음 넓어져 생긴 오솔길, 지난날 도시 문명과 멀리 떨어진 이곳 사람들의 한숨과 고행의 증견자인듯 이리 구불 처리 구불 힘겹게 봉우리로 넘어갔다. 그 옛날 어느 너럭바위에 앉아 다리가 아파 못걸겠다고 엎어달라고 칭얼거리는 어린것을 달래며 룡선너머로 사라진 오솔길을 바라보며 한숨짓던 아낙네들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았다.

바로 그 령길을 날려버리고 현대적인 고속도로가 건설된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가슴은 또다시 감격으로 설레이는것이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어 평양-개성사이 고속도로로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무르익혀 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곳 구분대에도 고속도로로 건설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구분대에 압축기와 착암기, 수송기재를 비롯한 각종 설비들과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주시었다.

크나큰 믿음과 사랑! 그것을 자양분으로 하여 군인들은 세인을 놀래울 300만산 대발파를 하게 되는 영웅적 위훈을 창조할수 있는것이 아닌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300만산 대발파를

앞둔 얼마전에도 발파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료해하시고 그 누구도 미처 관심하지 못했던 사소한 문제들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었다.

야산기술에 소담하게 활짝 핀 청초한 들국화도 못잇을 그 사랑을 전하려는듯 꽃잎새를 가볍게 하느적이고있다. 날씨조차 이날은 류별나게 쾌청하다. 목화송이 같은 흰구름송이가 몇점 등등 뜬 하늘은 유리알처럼 맑고 파아랗다.

주위 산발들을 바라보느라니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라는 당의 구호를 심장으로 받들고 굴을 뚫고 폭약장입을 하며 대담하고 통이 큰 전투를 벌리던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 투쟁모습이 영화의 화면처럼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다.

이들은 백수십만립방에 달하는 토량을 단번에 처리하는 날림방향식 발파법을 도입하였고 굴진과 폭약장입에서 매일 전투과제를 3배, 4배로 해제끼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조금전에 정치위원 문형종동무를 만나 군인들의 영웅적 위훈에 대하여 이야기해줄것을 정했더니 그는 매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 정말 자랑할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보시오. 우리가 발파를 해본 경험이 있기를 합니까. 그저 당에서 믿어주니까 한것이지요.》

너무나 소박하고 겸손한 대답에 우리는 한동안 실망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받아안은 믿음과 사랑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생활적이면서도 체험에서 우리나온 말인가!

전투가 마감고비에 이르러 더욱 긴장해졌다.

하루밤사이에 수백톤에 달하는 폭약을 10여리 되는 역전에서 운반하여다 장입을 끝내야 할 무거운 전투임무가 제기되었을 때에 지휘관들과 전사들은 할수 있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일체 생각지를 많았다. 다만 발파기일을 얼마나 앞당길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만을 논의했다.

우리와 만났던 참모장 서우범동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번 300만산 대발파는 다만 하나의 산봉우리를 날려보내는데 경제적 의의만 있는것이 아니라 혁명전사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성심을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산 모범을 창조하는데 보다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목소리를 최영수동무소속구분대 상등병 김용은동무한테서도 들을수 있었다.

임대한지 1년도 채 못되는 나 어린 전사는 대발파 전투를 하면서 우리 조국이 시련을 겪던 준엄한 전화의 나날, 불타는 조국의 고지에서 미제침략자들에게 섬멸적 타격을 안겼던 영웅전사들을

생각했다.

《저는 준엄한 전쟁도, 간고했던 전후복구건설에도 참가해보지 못한 새 세대입니다. 300만산 대발파로 새로운 200일전투에서 우리 부모들의 투쟁의 계주봉을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이런 전사들과 지휘관들에 의하여 300만산 대발파의 시각은 드디어 초를 다투게 되는 긴장한 오늘에로 이른것이다.

그리고보면 세인을 놀래울 위훈은 비록 한순간에 세워진다 할지언정 그 위훈의 기초는 얼마나 오랜 나날을 걸쳐 마련되는것인가.

300만산 대발파를 위해 벌린 이들의 투쟁은 그처럼 대담하고 통이 큰것이였으며 새롭고 독창적인 시공발파법인 동시에 당과 수령에게 바치는 충성심의 빛나는 결정인것이였다.

드디어 시계의 초침은 발파시간으로 육박하고있다. 발파기앞에 앉아 시간을 재고있는 참모장 서우범동무의 이마에는 땀발이 비오듯한다.

《발파!-》 신호와 함께 참모장 서우범동무가 발파스위치를 돌렸다. 순간 딥고 선 발발이 지진이라도 만난듯 움쉴 진동했다. 뒤이어 쿵-하고 웅글은 소리가 지심깊이에서 울려왔다.

《발파다!》 마음속에 걱정이 솟구치는데 오솔길이 명주찌처럼 뻗어간 산봉우리 전체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하늘을 뒤덮는 불그죽죽한 폭연과 흙 먼지, 한쪽으로 서서히 날려가 떨어지는 회색빛갈의 암반줄기, 순간 성공이다! 하는 예감이 전신을 찌릿하게 하였다.

그런데 주위는 여전히 조용하다.

감격에 목메인 환호성은 어디에?... 군인들의 얼굴은 발파전보다 오히려 더 긴장하고 초조하다.

우리는 그제서야 이해할수 있었다.

결과가 문제였다. 만약 토량이 한쪽 방향으로 날아나지 않고 공중에 뿔다가 그냥 내려앉았다면 완전히 랑패를 보는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연기와 먼지구름때문에 도저히 가늠할수가 없었다.

타는듯한 눈길들이 숨소리조차 죽이고 앞을 주시하고있었다.

고속도로로 건설장에서 삽자루 한번 쥐여보지 못했고 착암기 한번, 버럭 한광차 밀어보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초긴장상태일진대 건설을 직접 담당한 이들의 심정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오, 순간이여, 순간이여!

이윽고 먼지구름이 설피여지고 눈설은 자태가 드러나자 발파현장으로 달려간 우리들은 이외의 광경에 어리둥절해졌다.

봉우리는 간데없고 그옆에 아찔한 산봉우리가 새로 생겼는데회암색 돌쪼박이 한벌 깔려 마치도 백두산부석을 밟고선듯한 심정이다.

인간의 힘이란 이렇게도 무한대한것인가!

발과는 완전히 성공적이였다.
환성은 그제서야 터져올랐다. 서로 부둥켜안고
비비고 모자가 공중에 날아오르고...

《평양이 보인다!》
걱정이 그대로 솟구치는 목메인 웨침...
순간 우리의 가슴은 뜨거움으로 몽클해졌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켜주는 말인가!
고속도로를 건설할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
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이런 믿음이 있어 병
실도 짓기전에 전투장으로 달려나가 첫 전투를
벌리던 이들, 쏘아지는 석수와 앞길을 가로막는
봉락구간을 극복해야 했던 간고한 나날을 거쳐
끝내 300만산 대발과의 메아리를 울리고 충성의

보고를 올리게 되었으니 이런 웨침이 어찌 터져
나오지 않을수 있으랴.

《평양이 보인다!》
참으로 우리는 이 한마디 웨침속에서 크나큰
믿음이 충성심을 남고 새로운 80년대의 가장 전
형적인 영웅적 위훈이 창조되고있음을 가슴깊이
느낄수 있었다.

이렇듯 평양-개성사이 고속도로로우에 수령과
전사간의 혁명적 의리로 충만된 믿음과 충성의
위훈이 새로운 영웅서사시로 수놓아지고있는것이
다.

평양하늘을 우리르는 그들의 마음인양 찬란한
래일을 예고하며 서컨 하늘가에 노을이 붉게 타
오르고있다.

평양은 기다린다

최치영

세계의 청년들아
동방의 맑은 아침의 나라
해와 별 찬란한 조선
평양은 축전의 문을 활짝 열었다

어서 오시라 벗들이여
반제련대성 친선 평화를 위해
온 세계의 뜨거운 마음들이 모여오는 여기
열세번째축전봉화가 타오를 평양
희망의 등대 축전도시 평양으로

평양은 기다린다
우리 당의 따뜻한 손길로
이 땅 어디 가나 5대륙 벗들을 기다려
화려한 거리들 활짝 창문을 열고
나날이 축전준비로 설레이며

우리 행성의 푸른 하늘 위해
비둘기가 날으며
축전봉화가 타올라
성대한 개막을 선포할 룡라도경기장도

오, 기다린다
자주의 힘찬 발걸음 내짚을 거리거리가
단결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퍼질
화려한 극장, 민족구락부들의 연단들이...

제국주의 핵참화를 반대하여
대양과 대륙을 넘어 찾아올 그대들 위해
청춘거리 축구경기장 탁구관 배구관...
대동강반 화려한 축전무대들이
대성산 기슭 국제민속놀이장들이...

아, 민족과 신앙은 달라도
반제련대성 친선 평화를 위한 길에
하나로 굳게 뭉치며
종루높은 사원으로 성지로 옮기던 발걸음들도
끝없이 찾아올 축전도시 평양

이 세상 광막한 저 하늘아래
투쟁하는 청춘들이 그 어디서나 찾아와
반제련대성 친선 평화의 대합창
온 세계에 다시한번 울릴 평양
여기 평양으로 어서 오시라

소원

오광호

소원-그것은 인생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고 바로 그 소원에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담겨지는것이다.

설날 아침이었다.

어머니를 모시고 온 가족이 모여앉은 자리는 즐겁기 그지없었다. 가는 해도 돌아보고, 오는 해도 그려보고...

이야기는 줄기가 뻗어 가지를 치고 그 줄기 그 가지마다에는 웃음꽃이 활짝 폈다. 노상 흡족하여 앞에 앉은 네아들과 며느리, 손자들을 빙 둘러보던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리고보니 우리 집엔 새해에도 경사가 많구나. 셋째삼촌은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막내삼촌은 장가를 가겠고...》

미처 어머니의 이야기가 끝나기도전에 어린것들이 《야!》 하며 손뼉을 쳤다.

흔히 그렇듯 시집 장가가는 소리가 나오면 멋도 모르는 애들이 더 좋아하는 법이다.

《할머니, 그럼 그 아지미 요렇게 썩찌되나?》

방금 여섯살이 된 조카딸 은별이가 두손을 무릎에 살짝 놓으며 새색시 모양을 내는바람에 또 한바탕 온 식구가 웃어댔다.

《요고!...》

막내동생이 주먹을 쥐여보이자 은별은 《해해》하며 얼른 할머니앞에 가앉았다. 어머니가 귀염둥이 손녀를 두팔로 감싸안으며 계속했다.

《그리구 우리 은별인 학교엘 가고》

《정말 그렇구만요.》

나는 조카딸을 안아 무릎에 앉혔다.

생각할수록 세월이 빨랐다.

《은별이가 벌써 학교에 간다. ... 그럼 이거 야단인데. 큰아버지 은별이에게 뭘해줄까? 오늘은 한살 더 먹는 날인데 우리 은별이 요구하는걸 다 해줘야지.》

《정말!?...》

조카딸은 머무랄 같은 두눈을 깜빡이며 나의 얼굴을 뚫히 올려다본다. 찜지게 한껏 벌린 입귀엔 기쁨과 기대가 담뿍 담겨있다.

《정말아니구.》

《말하라.》

《말하라.》

제 동생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내 아들이 부추겼다.

《음...》

은별은 한참이나 가웃거렸다. 그러다가 드디어

생각한듯 《오, 나 말할래.》 하며 무릎에서 발딱 일어섰다. 그리고는 이마에 드리운 머리오리를 살짝 옆으로 밀어놓고 두손으로 나비마냥 치마자락을 곱게 잡았다.

어머니도, 나도 온 식구가 웃음을 머금고 그 애를 지켜보았다. 나는 그 애가 뭘 해달라고 할지 자못 궁금했다. 이윽고 은별은 입을 열었다.

《내가 하고싶은건 할머니랑 큰아버지랑 다같이 만수대에가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만수무강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거야.》

은별은 허리를 굽혀 인사까지 하였다.

모두가 이 엉뚱한, 그러기에 더 기특하고 가슴을 치는 행동에 《야!》 하며 일시에 박수를 쳤다.

은별은 저도 장한듯 내 목에 와 매달렸다. 나는 그 애를 꼭 껴안았다.

《우리 은별이 대단한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음... 그거야머 할머니랑 아버지랑 다 그러니까 나두 같지머.》

《아버지 나두...》

《나두 아버지...》

동생에게 한수 진 내 아들들도 제마끔 손을 들었다.

《그래 내 충일이하고 충국이도 말해봐야지.》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자 그 애들은 나는듯이 옷방으로 올라가 지난밤 정성껏 마련한 꽃다발을 하나씩 안고나와 《자, 우리도 이렇게습니다.》라고 말하듯 내앞에 차렷하고 섰다.

《용타, 우에서 부은 물이 아래로 흘러간다고 갈데 있니.》

어머니의 눈가에는 벌써 이슬이 솟아올랐다.

이윽고 우리 식구들은 애들을 앞세우고 거리에 나섰다.

흰눈이 내리는 명절거리리는 사람들로 붐비었다. 만수대쪽으로 꽃바구니를 실은 차들이 연방 달려갔다. 마치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다 모여가는 듯싶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수령님을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영광과 금지를 한시도 잊지 말고 수령님을 더욱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로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우리의 영광과 금지에 대하여 생각했다.

동서고금의 어느 력사에 이렇듯 한 민족이 대를 이어가며 하나의 소원을 안고 산적이 있었던

가!

그리고 그 어떤 소원이 한해, 두해 세월의 년
륜이 늘어갈수록 이렇듯 더더욱 뜨겁고 간절해진
적이 있었던가!

문득 나의 뇌리에는 언제인가 읽은 백범 김구
의 어느 한 수기가 떠올랐다. 아직 그 수기를 쓸
때까지만 하여도 그 완고한 《반공》사상에서 헤
어나오지 못했던 김구는 만약 하느님이 있어 나
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첫째도 조
선의 독립이요, 둘째도 셋째도 다 조선의 독립이
라고 대답할것이라고 썼었다. 하기에 김구는 저
상해시절부터 《림시정부》의 인장을 자신의 생명
처럼 귀중히 여겼고 1948 년 4 월 비장한 결심을
품고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오면
서는 그것만이라도 두고가 달라는 측근들에게 인
장은 김구고 김구는 곧 인장이라고 하면서 끝까
지 품에 안고 왔던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김구
가 인장을 다름아닌 경애하는 우리 수령님께서
받으셔야 한다면 삼가 머리숙여 올리지 않았던
가!

그것은 곧 김구까지도 어버이수령님은 조국이
시며 수령님의 만수무강이야말로 자기자신의 가
장 큰 소원이라고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웨친것
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렇다. 이 땅에 태를 묻
고 태어난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은
곧 조국이며 온 세상이다.

나는 《큰아버지 빨리》 하는 은별의 소리에 생
각에서 깨어났다.

어느덧 우리는 만수대언덕, 꽃물결이 끊임없이
흘러오르는 계단앞에 서있었다.

나는 또 생각했다.

천만물줄기가 하나의 대양으로 흘러들듯이 수
억만 인류의 소원이 하나로 합쳐지는 시대, 이것
이 바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
는 위대한 주체시대인것이다.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우리 가
족, 우리 인민, 온 세상 사람들의 뜨거운 소원이
굽이쳐 오르는 영광의 언덕으로 올라갔다. 우리
의 이 행복을 축복하듯 흰눈이 내리고있었다.

신입병사에게

변홍영

분대의 《포마》로 불리우는 애어린 그 모습
어찌보면 한창 크는 우리 집 막내와도 같다
이제 방금 신병훈련 마치고 대렬에 들어섰으니
어머니의 애무어린 다심한 손길

때없이 그리울적도 있으리라
산악을 허물고 고속도로도로를 열어나가는
헐치 않은 로동속에 하루해가 저물면

어린 날 뛰놀며 자란 고향집이
그리운 꿈에 보일적도 있으리라

아직은 일과에 습관되지 못하고

아직은 로동에 단련되지 못했어도

참고 견디라, 성스러운 복무의 길에

의지의 힘을 키우라

너와 동갑나이 수많은 병사들이

조국이 쥐는 시련을 맞받아 나아갔거니

한생을 조국앞에 헌신한 로병의 첫걸음도

너처럼 신입병사시절로부터 시작되었거니

해빛 밝은 교정의 창가에서

아이의 아름다운 노을속에 나래 젖던 꿈

네가 그리도 갈망하던 영웅들의 위훈의 길이

네앞에 열려있다

곧추 뻗어가는 저 고속도로도로를 지나

이제 가고 갈 병사의 그 길은 멀고도 험하리라

총잡은 병사의 사명은

평화로운 로동으로만 끝나는것 아니거니

걸음걸음에 땀을 묻고 피를 바치며

갑절 힘겹고 값비싼 대가를 치뤄야 한대도

곳곳이 걸어가라 그 길 한끝에

기어이 이어야 할 동강난 강토의 철교가 있어라

오호, 목숨도 바쳐야 하는

미제와의 판가리결전의 그 언덕이 병사를 부른

다면

서슴없이 뛰어들 각오속에

너는 종잡고 고향집뜨락을 떠나오지 않았더냐

너를 키워준 조국앞에 땀뻗은 아들로

그리고 자랑스러이 군복을 떨쳐입고

고향의 역두에서

어머니의 배움을 받지 않았더냐!

4 부자의 대답

정덕철

이게 정말인가

꿈만같이
이른새벽의 고요를 흔들며
바다건너 조국에서 날아온 보도

이게 정말인가?
이제라도 제나라에 가서
욕된 일 자리를 면하라고
불행한 식구들을 달아
등을 밀어 떠나보냈던
그 사위가 영웅이 되었다니
이게 정말인가

바다가 땅이 되고
땅이 다시 바다가 된대도
그 사위만은
그런 위인 될수 없다 생각던끝에
제눈으로 가보자
조국으로 달려왔을 때

아들들을 줄레줄레 거느리고
딸과 함께 마중나온 사위
천지개벽이랄가
가슴부터 바라보니
아, 거기엔
누런 금별이 번쩍거렸네

차를 잘 거두고
쇠돌을 많이 실어날라
영웅이 되다니
바라볼수록 꿈만같고

굽어볼수록 대견한 사위
하루밤만 늦어 돌아와도
온 집안이 불안속에 잠못들던 나날
굴욕스런 샅차를 몰기 싫어
그 언젠가는 술을 퍼마시고
이역의 담모퉁이에
택시를 구겨박은채 한탄하던 그가 아닌가

그런 걱정 아득한 옛말로 남겨두고
사랑하는 딸자식을
새 사람된 사위와
마주 세워준 손길이어

부모의 질책도
안해의 간청도
자식들의 애원도
구원 못한 인생
협악한 세상의 막바지에서
탄식속에 거칠어진 쓸모없던 인생을
영웅으로 키워준 조국이어

뜨거운 사랑의 품
어머니당에 내 감사 드리기전에
아버이수령님께 내 큰절을 올리기전에
아שר라
나에게 인사하지 말아라
허리 굽히는 사위를 일으키며
백발의 할머니
꿈이 아닌 현실앞에 눈굽을 훔쳤네

행복의 수레

교대운전대 넘겨주던 날
아버지는 다 큰 아들의 불에
처음으로 불이 번쩍 뻘을 쳤다
어린애의 얼굴 세수시키듯
짚만 있으면 씻어주고 문지르며

십년도 넘는 세월
거울처럼 닦아온 기관실 뚜껑우에
신발을 신은채 올라서기에

이역땅에선

가슴속 화불을 끄려
술 한병을 다 기울이고
술병마저 산산이 부서면서도
귀뿌리 한번 다친적 없는 아들이건만
이날만은
이날만은
그에게 무서운 손찌검을 하고서도
아버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낡아빠진 택시운전대에
온 집안의 명줄을 걸고
애젊은 타발군녀인들앞에서도
허리 굽혀 샅전을 구걸하던 손에
새 운전대 쥐여준 고마운 조국
일 잘하면 사람마다 제일처럼 기뻐
신문에도 방송에도 내줄 때에도
아버지는 자동차를
행복의 수레라 불렀다

짓밟혀 영영 없어진줄 알았던
인간의 존엄을 싣고
민족의 긍지를 싣고
이역땅에서는 반생을 달려도 못찾은
빛나는 삶의 언덕을 달리며
가슴벅찬 금별을 번쩍이며
아버지는 대형차를
희망의 수레라 불렀다

세월은 멀리 흘러갔어도
잊혀지지 않아라
아버지가 술을 끊지 않는다고
도꼬의 골목길로
늘 머리를 수그리고 다니던 아들
운전대를 교대받는 그 기쁜 시각
그렇듯 아픈매를 맞고서도
나라차를
제살불이보다 더 아껴야 한다는
아버지의 진정
뜨거운 눈물속에 받아안으며
이윽도록 쳐다보던 선망의 그 눈길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더라
아버지는
차에 찍힌 하나의 발자국앞에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운전대보다
애국의 조향간을 먼저 쥐여준 날을

탓하지 않더라
아들도
아버지한테 경친 그날을
그날의 그 순간이 있어
어제날의 행복의 수레, 희망의 수레
대를 물려 발동소리 높이 울리며
오늘도 철산봉을
지칠줄 모르고 달리기에

사랑의 대화

아버지와 나란히
가슴에 금별을 달고
영웅대회에서 돌아온 날
아들은 먼저 찾았다
자기의 정다운 대형자동차를

아버지가 물고
아들이 몰아온 길 멀고멀어
이제는 지구를 여러차례 돌고도 남는 차
영광의 이 높은 언덕에
잇당은 그 길우에는
자동차와 아들사이에
얼마나 뜨거운 사랑 오갔던가

제철소에서
쇠돌을 더 많이 보내달라
불같은 독촉 꼬리를 물 때면

친절한 의사 건강 진찰하듯
아들은 자동차를 끌고루 두드려보고
풀리지 않은 나사도 한번 더 조여주었다
그러면 대형차는 고르로운 숨을 쉬며
철산봉을 단숨에 날아올랐다

눈보라 맴판
깊은 겨울밤
한차만 더 실어나르자며
아버지가 끓여온 물 라제다에 부어주고
어머니가 햇솜두고 누빈 천
덕석처럼 포근히 씌워주면
자동차는
굽이굽이 산길을 대낮같이 밝히며
눈보라를 박차며 잘도 달렸다
아, 이제
주인의 손이 닿기만해도

순진한 말처럼 말잘 듣는 자동차

실어나른 쇠돌을
저 벌판에 쌓아놓으면
언덕이 되고
산을 이루리니

아들은 제 가슴의 영웅메달 똑 떼어
자동차에 달아주고싶었다
처녀들이 걸어준 축하의 꽃목걸이도
자동차에 벗어 걸어주고싶었다
아들은

자동차를 끌어주며 속삭이었다
마치 제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
-사랑하는 나의 룡마야
내 이젠 눈을 감고도
너의 속내를 알수 있으니
우리 또다시
조국이 기다리는 쇠돌을 싣고 달리자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헤아리며
저 철산봉이
지평선이 될 때까지

4 부자의 대답

자식들의 일터를 찾아가며
힘들게 일하지 않는지
자식들의 집을 찾아오며
탈없이 잘 있는지
동구밖에서부터 묻는
어머니의 정겨운 목소리던가

먼길의 피곤도 가실새없이
뜨락도 거뒀주고
쟁기도 살펴보며
속깊은 마음 기울이는
다심한 아버지의 음성이던가

무산의 광부들을 줄곧 생각하시며
산넘고 고개넘어 내물을 건느시여
멀고 험한 길 달려오신 지도자동지

휴식도 잊으시고 철산봉에 오르시여
들끓는 채광장을 한눈에 굽어 살피시며
운전사 4 부자가 잘있는가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뜨거운 은정 베푸신 간곡한 말씀

어제는
그들이 하는 일 바치는 진정이
대견하시여 못내 대견하시여
그토록 값높이 치하하시며
영생하는 생명도, 금별메달도
아낌없이 안겨주신 지도자동지

오늘은
모두 잘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일 잘한다는 보고도 받으시고
너무 기쁘시여

너무 반가우시여
광산의 휘황한 새 설계도 펼쳐주시며
다시금 다시금 외우시던 그 말씀

외우고 외울수록
해빛처럼 마음을 따뜻이 덥혀주고
새기면 새길수록
온몸을 포근히 감싸주는 그이의 음성은
광부들이 받아안은 행복도
영웅들이 달려가는 희망찬 길도 지켜주시는
영원한 사랑의 메아리거니

아, 이런 날 이런 때
그이께 무슨 말씀 올리고
무슨 대답을 드리면 좋을가

그저 차를 더 잘 거두고
쇠돌을 더 많이 날라
나라의 용광로들 배부르게 먹여주면

그것이 그것이
언제나 그들이 잘있다는 대답
천만전사들을 돌보시며
또다시 먼길 떠나신 그이
그 어디에 가계시여도 기쁨드릴 보고이기에

무산의 운전사 4부자는
오늘도 사랑의 운전대 역세계 틀어잡고
꼭같은 마음으로 뛰고 달린다
무료히 흘리는 분초도 죄스럽게 여기며
오로지 오로지 일밖에 모르며

1988년 10월 무산에서

인간의 참된 사랑을 보여준 감동적인 형상

-예술영화 《나의 행복》에 대하여-

최명숙

예술영화 《나의 행복》은 조국해방전쟁의 나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지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고있는 한 녀성군의 생활과 투쟁을 보여주고있다.

영화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된 행복관, 사랑관에 대한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전형적인 생활을 진실하고 풍부하게 그리면서 당과 수령, 동지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할 때 참다운 사랑과 행복을 누릴수 있다는 혁명적 인생관을 밝혀주고있다. 참으로 영화는 인간들의 참다운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주체의 인생관의 견지에서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풀어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에서는 생활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사상감정을 그에 고유한 성격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야 한다.》

우리의 문학예술이 주체의 문학예술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다하자면 어떤 생활을 반영하든지 반드시 사람들의 정신세계의 변화발전과정을 성격의 논리에 따라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예술영화 《나의 행복》이 깊은 감동을 주는것은 우선 작품이 제기한 주제사상을 깊이있게 천명하기 위하여 주인공이 어떤것을 인간의 참다운 행복으로 보는가 하는 문제를 복잡다단한 생활속에서 진실하게 파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일제통치하에 피눈물나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수정이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서야 청춘의 꽃으로 피어나게 된다.

그러나 조국땅에 전쟁이라는 불구름이 몰려오자 의학대학에서 공부하던 수정이도 동무들과 함께 군복을 입고 전선으로 떠난다.

군사복무의 첫 걸음을 떼던 때만 하여도 수정이는 동지와 집단에 대해서는 거의나 생각지 못하는 처녀였다. 지어 군의으로써 대오를 책임지고 서향팔에 나가 부상병을 치료하다가 애인이 멀지 않은 수리봉계선에서 싸운다는것을 알았을 때 전투임무를 잊어버리고 무작정 수리봉계선으로 달려간다. 그에게서는 박영이가 더없이 귀중했던 것이다.

여기서 수정이는 우박처럼 쏟아지는 총탄속에

서 자신의 부상은 아랑곳없이 지휘관인 중대장을 구원하고 장렬히 전사하는 이름 모를 젊은 전사를 보게 된다.

참으로 자기 중대장을 구원한 전사의 모습은 수정이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개인의 리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하여주었다.

《난 자격이 없어. 자격이! 수송대렬을 책임진 지휘관이라는게...》

그가 눈물을 흘리며 동무 지은이앞에서 하는 이 말은 나 어린 이름 없는 그 전사가 사상정신적으로 얼마나 높은 경지에 있는가를 진심으로 깨닫고 양심의 가책에 못이겨 부르짖는 마음의 고백이었다.

영화는 이렇듯 자기의 개인적인 사랑밖에 모르고있던 주인공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다는것을 가슴뜨겁게 간직하는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특히 일시적인 전략적 후퇴의 길에 오른 대오가 적의 포위속에 들게 되어 커다란 위험이 닥쳐왔을 때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적합선을 폭발시킨 간호장 전영숙의 최후, 자기의 희생으로 전우들에게 크나큰 사랑을 바치고 간 영숙의 모습에서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녀야 할 사랑, 개인의 사랑을 초월한 숭고한 참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간호장의 영웅적 최후는 수정으로 하여금 혁명적 동지애의 숭고함을 절감하는 극적인 계기였으며 정신적 발전의 큰 걸음을 내딛는 전환점이 아닐수 없었던것이다.

매 사람은 자기의 고귀한 모든것 청춘과 사랑, 성실성을 집단과 동지를 위해 스스로 바치고 집단과 동지들은 개인의 리상과 행복을 마음껏 꽃피우도록 성심성의로 도와줌으로써 매 개인의 행복이 최상의 경지에서 이룩되는것, 이것이 바로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 사회에서 창조되는 참된 행복이다.

이름 모를 젊은 전사가 중대장을 구원하기 위하여 청춘을 바칠수 있었던것도 전투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길에 삶의 참된 보람이 있다는것을 자각했기때문이며 간호장이 적함을 맞받아 나아간것도 자신의 한몸보다 수많은 전우들의 운명이 중요하다는것을 의식했을뿐아니라 동지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때문이다.

하기에 수정이는 전화의 어려운 조건에서 전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대담하게 수술을 진행할수 있었으며 전선에서 헤여진 박영이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변함없이 그를 굳게 믿고 사랑할수 있었던것이다.

예술영화 《나의 행복》이 깊은 감동을 주는것은 다음으로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행복을 찾는길과 함께 그것을 가꾸고 빛내여가는 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준데 있다. 전쟁후에도 군복을 입고 전우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투를 벌려나가던 수정이는 뜻밖에도 지은이로부터 박영이가 살아있다는 편지를 받게 된다.

자기의 모든것을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아낌없이 다 바쳐온 수정이었기에 동지들의 사랑속에 마침내 박영이를 만나게 된다.

결혼후 수정이는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활을 누리게 된다.

다정한 남편인 박영과 귀여운 딸 현아 그리고 아늑한 보금자리인 집, 남편을 뒤받침해주고 아이를 키우는 안해와 어머니로서는 더이상 바랄것이 없었다.

수정기도 군복을 벗고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안해로서 살아가고싶은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만 위해서 사는 인간이 아니라 혁명동지를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이 가장 보람있는 인생이라는 박영이의 고무가 있었기에 그는 변함없이 군사복무의 길을 걸어갈수 있었으며 큰 병원 원장이라는 중책을 지니고 당과 수령, 동지와 집단을 위하여 성실히 일할수 있었다.

영화는 수정과 그의 남편과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 시대 인간들은 어떻게 살며 일하고 어떤 행복을 위하여 투쟁해야 하는가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영화는 조국을 받드는 길에서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이들의 형상을 통하여 진실한 동지애로 흘러 넘치는 부부의 사랑은 개인의 운명과 집단의 운명이 하나로 결합된 우리 사회에서만 이루어지고 꽃피날수 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천명하였다.

그들 부부간의 사랑은 가정세태적인 순수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참된 혁명동지들간의 사랑인것으로 하여 주인공은 비록 가정부인이지만 자기 혁명과업수행에 더 충실할수 있었고 보다 큰 집단의 행복을 창조해나갈수 있었던것이다.

영화에서는 피로써 쟁취한 행복을 누리는것은 전사의 응당한 권리이지만 투쟁으로 마련된 행복을 지켜가고 빛내여 나가는것은 더욱더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밝혀내고있다.

수정이를 따듯이 떠밀어주고 이끌어주던 박영이는 해상에서 적 함선과 조우하여 전투를 벌리

던 끝에 그만 전사한다. 박영이의 희생은 수정에게 커다란 아픔을 자아내는 타격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박영이를 잃은 슬픔을 묵묵히 이겨내고 전술훈련에 참가하여 부대를 면밀히 지휘하여나가는 수정이의 모습은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줄뿐 아니라 것처럼 살며 일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굳게 하여준다.

수정이가 당한 불행, 그것은 그 한사람만의 슬픔이 아니라 병원 전체 성원들의 마음의 커다란 아픔이었다.

군 의들과 간호원들의 눈가에 맺힌 뜨거운 이슬과 비분에 떠는 얼굴들은 남편과 자식도 그에게 줄수 없는 사랑의 표시였고 그 어떤 표창도 대신해줄수 없는 신뢰의 뜨거운 정이었으며 참다운 인간이 사회와 집단, 동지들속에서만 받아안고 누릴수 있는 가장 귀중한 행복이기도 하였다. 사랑하는 사람은 갔으나 수정이는 사랑을 잃은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찾았으며 존엄있고 긍지로운 행복을 더 넓게, 더 뜨겁게 누릴수 있게 되었다.

영화는 이와 같이 수정이의 형상을 통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데 혁명전사의 참된 삶을 꽃피워가는 길이 있으며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주체의 인생관을 심도있게 예술적으로 밝혀내고있다.

영화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현실에서 형성된 행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신조로 삼고있는 혁명적 인생관, 행복관을 자랑스럽고 힘있게 확증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적 가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현실에 대한 격조높은 찬가로 되고있다.

총체적으로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하여 혁명적 동지애에 기초한 새로운 인간관계로 맺어진 우리 사회의 참다운 우월성과 그 무한한 견인력과 생활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실감있게 생동한 화폭으로 보게 된다.

이와 함께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랑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꽃피어나는 동지애로 승화될 때 그것이 무한한 행복의 원천으로 된다는것을 생동한 형상으로 밝혀주고있다.

영화가 이처럼 사상예술성이 높은 걸작으로 될수 있는것은 창작집단이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리론을 창작실천에 훌륭히 구현한데 있다.

예술영화 《나의 행복》은 영화를 영화답게 훌륭히 만드는데서 좋은 본모기를 창조한 성과작이며 걸작이다.

영화는 그 어떤 서사시적 화폭을 펼치거나 요란한 내용을 담은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그 어

데서나 흔히 있는 평범한 생활을 섬세하게 그리고있다.

특히 작가는 문학을 생활적인 언어로 감동깊게 썼다.

영화가 자기의 인식교양적 역할을 옹계 수행하자면 반영하는 모든 생활들이 진실하게 형상되어야 한다.

여기서 작품의 사상적 내용을 드러내는 작용을 하는 언어를 진실하게 쓰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작가는 언어를 씬에 있어서 생활적으로 그대로가식이 없이 진실하게 썼다.

대사도 생활적 언어로 썼기때문에 매우 자연스럽고 화면과 생활이 밀착되어 실감있고 진실하게 안겨온다.

이는 전적으로 작가가 문학을 생활적인 언어로

진실하게 쓸데 대한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깊이 체득하고 풍부한 생활체험과 깊은 사색에 기초함으로써 이처럼 자연스러운 생활적 언어들을 찾아내어 형상을 깊이 무르익힐수 있었다.

영화는 문학을 생활적인 언어로 감동깊게 썼을 뿐아니라 영화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이 또한 연기를 진실하게 창조하였다. 이 모든 사상예술적 성과로 하여 영화는 우리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하나로 뭉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한 성원으로 된 공지를 깊이 간직하고 혁명적 단결과 동지애를 강화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예술영화 《나의 행복》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새로운 200일전투를 성과적으로 끝내는데 크게 기여할것이다.

벗들을 기다리는 마을

김석주

찾아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 살아보고싶으리
만경대에 잇닿은 대통로를 끼고
웅장하게 뻗어간 광복거리

여기서 살아보지 못한다면
한번 걸어라도 보고싶으리
광복거리에도 한복판에 즐비하게 늘어선
불러 정다운 그 이름 축전동

하지만 그대 누구이던
반제, 평화의 노래를 안고
친선 단결의 춤을 안고
13 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달려온 벗이라면

대륙을 지나왔건
바다를 건너왔건
려권 하나면
여기 축전동에 거주할수 있으리

눈비속에 용접의 불보라를 날리면서도
흑한속에 벽체를 높이 안아 세우면서도
노래춤 설레일 축전의 날을 그려보며

청춘의 열정과 사랑을 다 바친 새 집들이다

벗들을 즐겁게 하려는 따뜻한 정이
고르고 고른 벽지에 꽃무늬로 아롱지고
손님들을 환대하는 친절환 지성이
담고 담은 창문에도 맑게 비껴있거니

제 집문밖을 한걸음만 나서도
벌써 안락한 제 집이 그림다지만
벗들이여, 이름까지 지어 놓고 기다리는
여기서는
제집처럼 그대 마음 편안하리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친근한 이웃처럼 화목한 주인들처럼
하나의 동을 이루고
성대한 축전의 나날을 즐겁게 살아가리

어서 오라, 대통로는 활짝 열리고
안아보자, 거리는 두팔을 벌리고
축전동은 벗들을 기다리는 마을
온 세상이 모여들 광복거리의 새 마을

비오는 들에서

로정법

1

《여보, 날씨두 참 밍겐 놀지요? 어제는 쉬는 날인데두 창창 맑더니 오늘은 일을 나가자니까 비가 오누만요.》

안해가 아침상을 안고 들어오며 하는 말이였다.

《날씨가 오죽이나 잘하오? 어제는 작업반에서 바다가놀이를 간다구 창창 맑아준거구 오늘이야...》

《오늘은 며칠째 가물더니 비가 참 잘 온다는 거군요?》

《좋구만.》

상준은 상앞에 나앉으며 빙그레 웃어보였다.

그런 남편에게 너인은 방금 굶어낸 노곳노곳한 흰쌀밥가마치를 쥐여주며 따라웃었다. 아직 단출하기 그지없는 부부살림이라 상준은 안해한테서 남편대접 아이대접을 같이 받고있었다.

《왜 자꾸 웃소? 내 말이 틀렸나?》

상준은 안해가 그 고운 손으로 닭알처럼 빚어 놓은 가마치를 푹 떼서 다시 안해의 손에 쥐여주며 웃음을 머금었다.

《호... 당신처럼 생각한다면 흐린 날두 맑게 보일테니까 그제 얼마나 좋은 일이나요?》

《좋다마다. 일을 나가자니까 비가 온다구 으시시한 생각을 하기보다야 얼싸좋지. 마음두 가뽀구 듣는 사람도 좋구...》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생각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가요?》

너인은 남편의 국그릇에 파끈한 덧국을 놓아주며 상글상글 웃었다.

《하하... 나야 아직 그렇게 생각하자면 멀었지. 덕수로인의 말을 본따서 한번 해본데 불과하오.

그 로인은 비가 와도 그래, 눈이 와도 그래, 늘 그렇게 말하거든. <어, 비가 참 잘 온다. 며칠째 가물더니 강냉이구 호박이구 흠썩 자라게 했어> 하는 식으로말이요. 그제 얼마나 좋소? 그제 바로 흐린 날두 맑게 보는 눈이 아니겠소? 그런 눈, 그런 정신력만 지니면 비가 아니라 불비속에서도 웃을수가 있다고 생각하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좀 되보자는건데...》

상준은 싱긋 웃고나서 《여보, 아침에 토끼풀을 줬던가?》 하고 물었다.

《풀을 뜯자고 나가다가 비가 와서 그만...》

《그럼 콩나물이라도 한줌 뽑아다 줍시다.》

그 말에 너인은 폴짝 뛰었다.

《아이,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그저 찍하면 콩나물이시네, 사람은 먹어보기도전에...》

《그러지 마오. 장안에 갇혀서 주면 먹고 안주면 굶고, 굶어 죽으면서도 배고프단 소리 한마디 못하는 착한 짐승이 아니요. 돼지는 껍썩 야단이나 하지만...》

상준은 안해가 바들바들 떨며 뽑아주는 콩나물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나와 보니 잔등이나 적시기 좋게 내리던 비가 점점 소리를 내고있었다.

날은 더욱 침침하게 어두워 오는데 해바라기잎 사귀우에 올라앉은 청개구리가 개바닥에 내다 묻은 어미를 걱정하는지 객객저렸다.

상준은 얼른 발을 털며 토방에 올라섰다.

《이거 비가 많이 오겠구만. 1반에선 어제 일을 하고 오늘 선다지?》

《강냉이밭비료주기를 끝내느라구 휴식을 하루 미루었다나보아요.》

《비료를 묻자 비가 오니 일이 착착 맞아떨어지는셈이구만.》

《그러게말이에요. 1반에선 어제 바다가놀이를 못간 봉창으로 오늘 돼지도 잡는대요.》

《그렇디까? 그제 좋구만. 오늘 그 사람들이 돼지순대를 한바탕 먹어대고서는 불쑥한 배를 파끈파끈한 아래목에 붙이고서 비를 줄줄 맞으며 일하는 우리를 내다보며 <일할줄 모르는놈이 수리날에 한다더라> 하구 노를 부를텐데 이거 심술이 좀 나긴 나는데...》

상준은 안해를 돌아보며 허허 웃었다.

《수리날에 일한거야 그 사람들이지요 뭐. 어제가 바로 그런 날이 아니겠나요?》

《하하. 듣고 보니 당신의 말이 옳소. 오늘은 논김매기를 한냈지?》

《예. <작별포전>으로 나오라구 덕수로인이 첫새벽에 이르고 갔어요.》

《이름이 참 좋거든 <작별포전>이라...》

《작별포전》이란 버들골안의 뽕기논들을 이르는 말이였다. 몇평 안되는 그 포전들만 마저 정리하면 힘든 손로동과 영영 작별하게 된다고 분조선동원 옥금이가 처음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농장토지분포도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참 여보, 우리 농장에 제대군인들이 온대요.》

안해가 비웃을 들고 나오며 말했다.

《그렇소? 그제 정말 반가운 소식이구만. 그제 언제 온담디까?》

《당장 온다나봐요. 색시들까지 모두 달구 온

대요.》

《그렇습니까? 농장에서 새집을 지어놓구 기다리고 있더니 오긴 오는구만.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을 맞을 준비를 좀 해야지?》

《그러게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덕수로인이 당신의 미장칼을 가져갔어요. 부뚜막미장을 마쳐 할데가 있다면서 정만동무를 거기로 보낸다나보아요.》

《정만이 혼자서 될가... 그런 집이 서너동 되는데...》

《당신을 보냈으면 일자리가 나겠지만 김매기 철이 아닌가 하면서 대신 부대로력을 서너명 달아 주었다는군요.》

《그렇습니까?》

대답은 그렇게 하면서도 상준은 속이 좀 좋지 않았다.

정만으로 말하면 나이는 자기보다 서너살 아래여도 농전을 나오자 인차 농사를 해오는 동무여서 아무 일도 잘하지만 김매기에 들어가서는 분조에서 한다하는 강특실이기도 그를 따르지 못했다.

반면에 미장과 같은 건설일은 상준이가 선수였다. 그런데도 로인은 정만을 건설에 돌리고 자기는 기어코 논으로 불려낸 것이었다. 김매기는 바쁘다고 하면서도...

말하자면 자기는 아직 《흙내를 더 말아야 한다》는 소리였다.

농전을 나와 도에 있는 한 농업부문기관에서 일을 하던 상준이가 안해와 더불어 들끓는 사회주의농장벌에서 청춘을 꽃피워가자고 이곳으로 내려온것은 작년 여름이었다.

상준은 이사짐을 풀어놓은 첫날부터 팔을 걷고 나섰다.

체격이 좋고 한창 힘풀이나 쓸 때인데다, 농산준기사라 농사물계도 뻔한 것이어서 상준은 아무 일을 맡겨주어도 막힘이 없이 제 성미처럼 씨원하게 해제겼다. 그러지 않아도 일에 들어가서는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는 상준이었다. 일을 시작한 첫날에 벌써 분조장은 자기 분조에 상일군이 왔다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했다.

상준은 상일군이라는 평가가 훈장을 준다는 소리보다 더 반가웠다. 농사를 짓자고 내려온 자기한테 표창이면 예서 더 큰 표창이 어데 있으랴.

다만 너무 쉽사리 그런 평가를 받은것만 같아 걱정될뿐이었다. 왜 걱정이 없으랴. 힘쓰는 일이라면 남의 두릅을 하고도 성차하지 않는 것이지만 천리준마도 뒤를 잡는데는 고양이만 못하다는 격으로 김매기와 같은 일에 들어가서는 아직 아낙네들한테 떨어졌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더구나 그러했다.

이런 날에 김을 맨다는것이 누구한테도 험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낙네들은 벼포기미를 술술 헤치며 어떻게나 재빨리 달아나는지 그걸 따라가자고 덤벼치다나면 간혹 돌피를 놓치기가 일쑤였다.

사람들은 그런 상준이를 보고 농사일이 처음이니 그럴수 있다고, 빼기는 몇배때문에 아직은 머칠씩 손로동을 하지마는 이제 정리될 날도 멀지 않았으니 아예 손김매기같은 일은 배우지 말라고, 지금은 그런 일을 잘못하는것이 수치가 아니라고 《위로》하러 들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은 범을 잡으래도 잡을수 있는 대장부가 너자들한테 저서야 말이 되는가.

이런 상준의 심정을 자기처럼 이해해준것은 분조장이었다. 요사이 맹장수술을 하고 입원해있는 분조장은 상일군으로서의 상준의 체모가 깎이지 않게 일감을 하나 주어도 될수록 힘을 쓰면 쓰는 만치 일자리가 폭폭 나는 그런것을 주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덕수로인이 막아나서곤하였다.

《상준이도 논에서 일하게 하세나. 차라리 그 일은 정만일 시키드래두...》 하고...

집둘레서 일감을 찾아도는 사람을 제일 질색하는 로인이라 그럴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은근히 부아가 치밀어 《자 이런데도 날 그렇게 보겠소?》하는 식으로 땅크처럼 와랑와랑 일을 냅다 밀어대곤하였다.

늘 그렇게 자기를 채찍질하며 일해 온 상준이었다. 그런데도 로인은 오늘까지 《미장선수》는 김매기에 내몰고 《김매기선수》는 부뚜막미장에 돌렸으니 상준의 속이 왜 편안하랴.

상준은 안해가 굶은날에 물에 들어설 자기를 넘려하여 꺼내주는 내의를 뿌리치고 집을 나섰다.

안해가 장화를 들고 허둥지둥 쫓아나오며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서둘러요? 다른 집에선 이제야 조반들이 한창이겠는데》 하며 불안한 눈으로 상준을 바라보았다.

《서두르지 않게 됐소? 김매기가 그렇게 바쁘다는데... 당신두 돼지물이나 주곤 얼른 나오우.》

상준은 안해가 갈아 신으라고 내미는 장화를 탁치듯 손에 받아들고 썩 바람을 일쿠며 걸어갔다.

오늘은 어떻게 해서나 강특실이썩은 보기 좋게 꺾어놓아야 속이 풀릴것 같았다.

이때 어느 처녀의것인지 연분홍빛 꽃우산을 든 정만이가 혼자 싱글싱글 웃으며 걸어오다가 상준을 보더니 윤기있는 그의 미장칼을 흔들었다.

《형님, 난 오늘 휴가를 받았수다. 형님은 아직 흙내를 더 말아야 한다더구만요. 그러니 이 미장칼은 나한테 인제하구 말라요.》

《가지려무나. 꼭 가져라. 채간좋은 요 손목까지 싹둑 잘라가거라.》

상준은 혼자 투덜대며 정만을 보지 않고 재빨리 걸어갔다.

마침 살찐 수돼지 한마리가 끌끌거리며 상준의 앞으로 뛰어오고있었다.

저 미옥한 사람들이 돼지의 네다리도 바로 묶

지 않고 먹을 찌르려다 놓쳐 버린 모양이었다.

돼지는 살겠다고 거품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뛰여오는데 험쩍거리며 쫓아오던 1반장 광두가 상준을 보더니 《여 길목을 좀 막으라》 하고 손을 내저었다.

불쑥 광두가 정만이의 외삼촌이자 덕수로인의 둘째사위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지 않아도 심사가 잔뜩 뒤틀려 눈앞에 얼썩거리는 개라도 있으면 배때기를 콕 건어차려고 두리번거리던 참인지라 상준은

《막아주지 막아주구말구》 하며 한옆으로 슬쩍 비껴섰다가 돼지가 앞으로 지나가자 놈의 살찐 엉덩판을 있는 힘껏 건어쳤다.

《옳다 받아라. 떡인줄 알구...》

그러자 돼지는 고맙다는 인사려듯 《쩍》 하며 뒤돌아보더니 방향을 꺾 꺾으면서 감자와 완두콩, 강냉이가 소담하게 자라고있는 상준이네 터밭으로 뛰어들었다.

아차, 하고 후회할 사이도 없이 등뒤에서

《이게 무슨 짓인가? 곡식밭에 돼지를 몰아넣다니?》 하는 천둥같은 고함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어느 새벽에 벌써 눈으로 나갔었는지 물이 푹푹 흐르는 두렁풀을 잔뜩 걸머지고 들어오던 덕수로인이 작시미를 부르치고 상준을 노려보고있었다. 로인을 보자 상준은 다시 한번 뺨이 꼬여나

《잘못했습니다. 내야 아직 흉내를 덜 맡은놈이 아니요.》 하고 콧지 않게 내뺨었다.

《뭇이라구?》

로인의 시커먼 두 눈썹이 소뿔처럼 곤두섰다.

상준은 로인이 이렇게 성난것을 처음 보았다.

로인은 상준이보다 밭을 밟는 돼지가 더 급한지 지계를 뚫다뚫지고 돼지를 따라갔다.

《어서 밟힌 곡식을 바로 세워놓자요.》

일차비를 해가지고 뒤따라 나오던 안해가 눈을 급게 핏거리며 상준의 팔소매를 잡아끌었다.

《놓소, 이거.》

상준은 잡힌 팔소매를 꺾 건어쳤다.

《여보, 사람들이 보아요.》하며 상준의 손목을 다시 잡아끌었다.

《아침부터 쟤장...》

상준은 고삐를 잡혀 외양문을 나서는 소처럼 안해한테 끌려 떨어지지 않는 밭을 밭으로 옮겨놓았다.

《어서 허리를 굽히세요. 아바이가 보아요.》

기울어진 강냉이포기를 바로세워주던 안해가 귀속말로 주의를 주었다. 아닐세라 로인이 밭가녀으로 조심조심 돼지를 몰아오다 말고 우뚝 서서 이쪽을 노려보고있었다. 여차하면 당장 달려와 작시미로 종아리를 후려갈길 기상이었다.

상준은 얼결에 허리를 굽혔다. 그러자 돼지의 발목에 잠기여 뭉쳐 뽕혀 나간 감자포기가 눈에 띄었다. 그 푸른 포기를 쳐드니 꺾알, 메추리알, 새알만큼씩한 감자알들이 스무나문알 잘되게 조

롱조롱 매달리우는데 그것을 보려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안해는 그걸 보더니 손뼉을 딱 쳤다. 그리고는 노래하는듯한 목소리로

《아유, 많이도 달렸네! 감자풍년이 분명해요.

여보, 감자알들이 막 불쌍해 보이지요? 등지에서 떨어진 제비알 같네. 그렇지요?》 하였다.

《예-에.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외다.》

상준은 감자포기를 휙 쥐어뿌리고 밭에서 나왔다. 하지만 제비알 같은 감자가 눈앞에 자꾸 얼른거리 하루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저녁 상준이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보니 덕수로인이 감자포기가 뽕혀나간 자리에다 강냉이모를 옮기고있었다.

이제는 모종할 철이 아니여서 아이키만한 강냉이 모는 벌써 잎이 시들시들해졌는데 그래서 더욱 보기가 좋지 않았다.

《아바이, 이거 너무 그러지 맙시다. 감자 한포기가 뭐라구 이제 거기다 구실도 못할 강냉이를 옮겨심으면 앞으로 보거나 딱하지 않습니까? 아침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말구 어서 물이나 한바가지 떠오게.

비가 와두 옮길 땐 물을 푹 적셔야 한다네. 구실을 왜 못하겠나. 늦게 옮긴 모라 얼마간 앓긴 하겠지만 이제 팔뚝같은 이삭이 달리지 않나 두고 보라구.》

로인은 상준을 돌아보며 빙그레 웃었다.

상준은 자기의 말에 성을 내거나 아니면 어떤 훈시의 말이나 할줄 알았던 로인에게서 그런 말을 듣게 되자 생각이 깊어졌다.

그날부터 상준은 덕수로인보다 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늦게 옮긴 모가 새 뿌리를 내릴 때를 기다리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늦게 옮겨진 모처럼 생각되었기때문이었다.

농전농산과를 졸업하고서도 부모의 결을 떠나기 싫어 도에 눌러앉았던 상준이었다. 뒤늦게야 뉘우치고 내려오긴 하였지만 적기를 농친 모처럼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어졌다.

그래놓고 보면 정만이는 제철에 옮긴 모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었다.

2

바야흐로 농사의 종합적 기계화가 완성되어가고 있는 큰 농장의 보이지 않는 으스스한 버들굴 막바지에 낡은 세상의 흔적처럼 뽕기뽕기 충충을 이룬 다락논이 있었다.

《작별포전》이라고 부르는 이 다락논우에서 내려다보면 무연하게 펼쳐진 규격포전들에서 제초기를 끄는 프락프락들이 그림처럼 안겨왔다.

《금년가을엔 어떻게 해서나 이 충충다리를 정리 하자요.》

《몇평 되지두 앓구, 또 눈에 잘 띄우지 않는 다구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어.》

《농장적으로 해줄것만 바라면서 앉아있었지.》 하고 떠들던 사람들이 주섬주섬 눈에 들어설 차비를 하고있었다.

《장화는 왜 벗나? 어서 신으라구.》

덕수로인이 상준에게 하는 말이였다.

《난 벗겠습니다.》

상준은 싱긋 웃으며 말을 받았다.

《농장에 온지 1년이 되여오는데두 아직 신발을 벗으면 발바닥이 아프단 말입니다. 단련두 좀 해야지요.》

《되지 않은 소리... 옛날에야 장화는커녕 신발 한짝 변변한것이 없어 할수 없이 그랬지만 지금에야 왜 그러겠나.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구서 기계를 타구 농사하는 세월인데... 나두 한때는 밤송이를 밟고도 피غم해하지 않았네만 지금은 발바닥 이 얼마나 얇아졌는지 신발안에 콩알이 한알 들어가두 벗어 꺼내구서야 걷는다니까. 좋은 세월이지... 어서 신으라구. 다락논이 돼서 돌두 많은데...》

《나두 생각이 있어 그러합니다.》

상준은 고집을 쓰며 부득부득 장화를 벗었다.

그러다가 상준은 녀인들 틈에 끼여서서 자기를 바라보고있는 안해의 눈길과 마주쳤다. 안해 역시 벗은 발에 살갗고운 종아리를 걷어올리고서 새물새물 웃고있었다.

상준은 비물이 들어가지 않게 장화를 얹어놓고서 바지를 걷어올렸다.

《자 이제 한바탕 해볼가.》

로인이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다. 그런 로인에게 따로 모여앉아 담배를 피우던 애젊은 패들이 《아바이, 저리 한대 더 끄슬리구 들어갑시다. 날씨두 이런데 일을 시작하면 언제 철사이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럼 그러자구.》

로인은 다시 무릎을 꿇고 앉으며 이번에는 마을쪽으로 자꾸 눈을 팔고있는 옥금에게 《애야, 그렇게 자꾸 바라보단 눈이 빼뿔어질라. 정만이 그사람은 오늘 안나온다.》 하며 웃었다. 그러자 처녀는 《어마나!》 하며 녀인들의 등뒤로 숨어버렸다.

《자- 일어들 나세나. 오늘 같은 날엔 적시지 않겠다구 몸을 웅송그리지 말구 마음까지도 폭적서 가지고 일을 해야 자리두 나구 성수가 난다니. 어- 비가 참 잘 오는군. 며칠째 가물더니만 강냉이구 호박이구 흠씩 자라게 됐어.》

로인은 풀이 제일성한 논두렁옆에 자리를 잡고 었드렸다. 사람들이 그 옆으로 주런이 늘어섰다. 이제부터는 서로가 말없는 경쟁이였다.

기계손이 미치지 못하는 꽤기논이라 사태는 짙았다.

벼잎사귀에 내리는 소연한 비소리와 논고로 주절대며 흐르는 물소리뿐이던 논판에는 물장구를

찰싹찰싹 치며 논흙을 주무르는 소리로 하여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상준은 덕수로인의 옆에서 김을 땀다. 로인은 젊은이들처럼 먼저 나가려고 덤비지 않았다. 하지만 땅질고 헤엄치듯 쭉쭉 미끄러져나갔다.

붕어를 손더듬하듯 팔굽까지 물속에 엮비슷히 잠구고서 벼포기사이 흙을 물쩍하게 주물러 나가는데 그 손놀림이 어떻게나 재빠르고 자연스러운지 보는 사람이 다 흥이 날 정도였다.

상준은 입을 보고 돌피를 골랐지만 로인은 물속에서 손끝의 감각으로 돌피를 가려냈다. 그러다가 한번씩 허리를 펼 때면 왁살스런 그의 손에는 돌피와 거름속에 섞였던 오물들이 쭈미 벌게 걸려나오곤하였다. 로인의 손이 한번 지나간곳에는 돌피 한대, 물우에 떠도는 짚검불 하나 찾아볼수 없었다. 보기만 해도 멀غم해진 논판에서 푸른 벼잎만이 살랑살랑 춤을 추는것이였다.

이따금 로인은 허리를 펴며 자기가 매여나온 이랑을 뒤돌아보곤하였다. 그럴 때면 로인은 아기를 애무하는 어머니처럼 살랑거리는 벼잎새를 다정하게 어루쓸며 《어때? 이제는 숨쉬기가 험해졌지?》 하고 흠죽해서 중얼거렸다.

《여보게 상준이, 명년에는 이 논에두 기계가 들어오겠은즉 이런 일도 올해가 마지막일세그려.》

《그리고보면 우리가 손으로 농사짓는 마지막 사람들인셈입니다.》

《옳은 말이네. 그 말을 들으니 생각이 많아지누만. 술한 사람들이 이런 논에서 등이 굽고 손가락이 터갈렸지... 지금은 저렇게 규격논들로 변했지만 농촌체제가 나오기전에는 농장의 거의 모든 논밭들이 꽤기들이였네.》

물에 뛰여든 수영선수들처럼 처음에는 어스듯스듯 하게 나가던 사람들이 점차 간격을 두기 시작하였다. 오늘도 어제처럼 상준이가 맨앞에서 나가고 그뒤로 일심도 세고 손탁도 드센 강특실이와 옥금이가 바짝 따라오고있었다.

안해는 상준의 바로 옆줄, 얼마쯤 뒤에서 따라왔다. 논김을 뿔 때면 안해는 늘 놀림을 받으면서도 상준의 옆에 서곤하였다. 그래야 남편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나갈수 있도록 도와줄수가 있기 때문이였다. 물론 그것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남편이 매여나간 이랑에 살짝살짝 덧손질을 해주는 《도적김》이였다. 남편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겠다는 그 한가지 생각에 간혹가다 김을 놓치는 때가 있었다. 안해는 그걸 따라가며 알뜰하게 손질해주는것이였다. 그럴때보면 안해는 자기의 이랑보다 남편의 이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것만 같았다. 그러다가 걸리는 날엔 한바탕 단련을 받아야 하였다. 그제 싫어 상준은 이랑을 잡을 때면 애초에 안해곁에서 멀찌기 물러서곤 하였다. 하지만 한두이랑 매는 사이면 어느새 안해가 자기 옆에서 따라 나오는것이여서 당장 다 큰데로 가라고 눈총을 쏘면 안해는 그저 새물새

물 웃기만 하였다.

안해는 키가 크고 덩치가 큰 남편이 영치를 잔뜩 하늘로 솟구쳐서 계구멍을 쭈시듯 한자리에서 우물거릴것이 아니라 잔손질감은 뒤따르는 자기한테 남겨두고 쭉쭉 앞질러 나가기를 바랐다.

상준의 꼬리를 문 강특실이가 새 이랑을 잡아가 지고 들어오며 남자처럼 석싹한 음성으로

《자-오늘도 제일 뒤진 사람이 노래할대지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너인들이 상준의 안해를 돌아보며 웃어댔다. 그들은 안해가 뒤떨어졌다고 웃는것이 아니라 남편의 이랑에서 돌피 한대를 뽑아들다 깜짝 놀라 당황해하는 모양을 보고 웃는것이였다.

《도적김을 잘 매주는 깜찍한 색시가 노래를 해주겠단누만.》

특실이가 점범점범 안해한테로 다가가며 붙들자고 하였다. 오늘은 모두 일을 점잖게 하나보다 했더니 또 시작된것이였다.

《젠장, 김을 매재도 저 로친 드살이 싫어 못매킬다니까.》

상준은 돌피즙을 두렁우로 핵 뿌려던지며 《자-이거 두 이랑두 매기전에 밋들 이릅니까? 비두 오는데 점잖게 일들이나 하자구요.》 하고 통명스럽게 내쏘았다. 그 말에 아낙네들이 왁자그르 웃어대였다.

《젠장, 비가 이렇게 오는데 웃음이 나가는가.》

뭐라고 한마디 또 했다가는 더 웃음거리가 될것 같아 상준은 벼포기사이로 머리를 푹 박으며 혼자 투덜거렸다. 그런데 갑자기 박수소리가 짜락짜락 울렸다. 안해가 노래를 부르려는것이였다.

너인은 부끄러움에 발개진 눈매로 상준을 돌아보며 《볼러도 일없겠어요? 당신 탓인걸요 뭐.》 하는듯 방긋 웃더니 《김을 매면서 다 같이 부르자요.》 하고는 허리를 굽혔다.

풍년의 노래 울려가는 내 나라 황금벌 좋아라
그 어데 가나 오탁백과 기쁨에 설레이네

안해의 목소리는 청아하면서도 부드러웠다. 한껏 정서를 담아 부르는 노래소리가 소연한 비소리를 누르며 푸른 논판으로 굽이치기 시작하였다.

노래는 후렴부문에 이르러 합창으로 번져갔다.

아 풍년이 왔네

수령님이 마련하신 풍년이 왔네

안해의 노래가 끝나자 옥금이가 인차 예술영화 《은비녀》의 주제를 불렀다. 이번에도 모두 따라불렀다. 따라부르지 못한 사람은 상준이와 덕수로인, 강특실이뿐이였다. 덕수로인과 강특실은 아직 그 노래를 몰라서였고 상준은 아무리 노

래를 따라부르자고 해도 뽀족한 돌이 발바닥을 자꾸 아프게 찢려대고 등골로 비물이 흘러드는바람에 목이 껍껍 막혀버리기때문이였다. 노래가 이쪽 저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자 강특실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자-참깨 들깨 다 노는데 아주까린 못놀가.》 하며 《능수버들 휘늘어진》 하고 선자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좋다!》

《조-오치!》

《음썰 음썰...》

《우쭈 우쭈...》

《중-다!》

덕수로인까지 일어서서 어깨를 우쭈거리는바람에 버들골안이 다 흐물흐물 놀아나는것만 같았다.

《하하 오늘은 왜들 이러십니까?》

《자네도 웃는구만? 됐네. 자네까지 웃는걸 보나 됐단말일세. 하하... 여보게 상준이, 다락논에까지 벼가 이렇게 흠썩하니 됐는데 왜 이러질 않겠나. 두고보라니, 자네도 이제 제흥에 겨워 덩실거릴 때가 오지 않나...》

작업총화때 상준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다하는 강특실을 켜 이틀째 보기 좋게 꺾어 놓고 최고점수를 받는 상준에게 처녀들은 짜락짜락 박수까지 보내었다. 덕수로인도 만족해서 연신 빙글거렸다. 하지만 상준이와 같이 집으로 들어오면서는 침을 놓듯 은근히

《오늘 입자가 노래까지만 불렀으면 한점 더 받는건데 아쉽거든.》 하고 웃는것이였다. 웃는 말처럼 했지만 상준이한테는 로인의 그 말이 가슴에 쿵 박혀들었다. 그렇다. 자기가 최고점수를 받았다고 속으로 기뻐한것은 너무나도 때 이른 것이였다.

그러고 보면 자기가 앞섰다고 생각했던 강특실이나 옥금이네들은 얼마나 먼 앞에 있는것인가.

그들이야말로 상준이가 부러워하고 자기도 꼭 그렇게 되자고 하는, 《흐린 날도 맑게 볼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였다.

비는 계속 내렸다.

물소리가 한결 높아진 논고에서는 비물따라 올라온 봉어새기들이 웃논으로 올라보려고 쭉쭉 소리를 내며 튀어오르는데 그때마다 흰 배때기가 번쩍거렸다.

3

그날저녁 상준은 밥술을 놓기 바쁘게 그자리에 노그라졌다. 그런데 덕수로인이 웃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찾아왔다.

《구경 안가겠나? 좋은 영화가 왔단누만.》

로인은 손에 들고 온 껏감 두가치를 상준의 부부한테 하나씩 쥐여주며 《황소같은 사람이 녹초가 됐구만.》 하고 웃었다.

《꽃감이 다 어디서 났습니까?》

상준은 그 한알을 쑹 뿔아 입에 넣으며

《늦지 않게 아바이나 가십시오. 나야 가면 또 줄기나 할걸요. 전번에두 그래서 사람들을 웃겼는데… 점수를 또 떼워두 할수가 없습니다.》하였다.

《힘들지? 공장에서는 눈비가 와도 그것을 가려 주는 지붕이 있지만 농사일이란 한니 하늘을 지붕삼아 들에서 하는 일이거든. 게다가 아직 공장처럼 기계화, 자동화가 다돼있질 못하지. 날씨까지 오늘처럼 변덕을 부리면 곱질 힘들다네. 머지 않아 농촌체제가 완성이 되면 그때 농사일이 말그대로 노래와 춤으로 될걸세.》

《여하튼 아바인 장습니다. 하루종일 비를 맞으며 일을 하시구두 구경이라면 빠지지 않으니말입니다.》

《부럽나?》

《부럽지 않구요. 》

《하지만 뜻대로 안된단말이지?》

《웁습니다. 우리가 여기로 내리올 땐 산을 옮길것처럼 각오가 좋았구 또 내판엔 그렇게 하느라구 애써보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단말입니다. 남보다 몸이나 약하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젠 노래를 부르재도 노래가 되나… 하하… 저 사람이 뭐라는줄 압니까?》

상준은 꽃감 한알을 다시 뿔아들며 안해를 가리켜보었다.

《저사람은 내가 아바이처럼 비에 옷이 젖는줄도 모르고 일재미에 정신이 팔렸다가 끼때를 가끔 잊어버리곤하는 광경을 그려본답니다. 그런 광경이 떠오를 때면 가슴이 막 울렁거린다나요.》

상준은 웃었다.

로인은 생각이 깊어지는지 한동안 말없이 담배를 피웠다. 그러다가 혼자말인듯

《임자넌 정말 좋은 젊은이들이야. 당에서 신통한 사람들만 골라 보내주었거든. 온다온다하던 제대군인들도 왔네. 꽃같은 색시들까지 달구말일세. 너무 조금해 말라니 어렵히 그럴 때가 오지 않으리…》하였다.

《하긴 나도 그럴 때가 있겠지요. 이제 조금만 더 단련이 되면…》

상준은 다시 싱긋 웃었다.

《아닐세.》

로인은 따라 웃으며 도리를 저었다.

《내 생각엔 단련부족두 아니구 열성이 덜해서도 아니야. 임잔 아직두 의무감을 앞세우며 힘내거나 하려 했지 이 벌에다 정을 주지는 못했네. 벌도 역시 새사람한테다는 선뜻 속을 주지 않는다네. 의심많은 처녀처럼 갖은 번덕을 다 부려가며 자네의 진정을 떠보려들지. 오늘처럼 비오는 날에 자네를 논에다 세워놓구서 〈자, 이런데도 나를 사랑해주겠어요?〉 하는 식으로말일세. 임잔 거기에 합격이 돼야 하네. 그러자면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처녀총각은 간혹 선만 한번 보구서

두 재미나게 사는수가 있지만 땅과는 그리질 못하는 법이니까… 허지만 한번 정을 들이면 뽕수가 없는것이 이 땅이라네.》

《아바이의 말을 듣고 보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웁습니다. 사랑은 그 어떤 의무의 리행으로 대신 할수야 없지요. 결국 심장이 뚫어야 한다는 소린데 그게 밥가마 같은거라면 제깍 불을 때서 달구련만은…》

상준은 허허 웃었다.

《그러게 조막만한 심장을 달구기가 백톤짜리 로를 달구기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있질 않나.》

《하하 웁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저사람과련애하던 생각이 다 나누만요.》

《그거 좋구만. 나도 아직 그런 얘기라면 뻑하고 달려든다네.》

로인은 무릎걸음으로 다가왔으며

《에라, 오늘은 또 영화를 다 봤군.》 하고 웃었다.

《아니, 들을만한게 못됩니다.련애를 해도 너무 못난이 처럼 해서…》

상준은 얼굴이 빨갛게 되어 말하지 말라고 눈총을 쏘는 안해한테 눈을 찡긋해보이며 싱긋 웃었다.

《하하, 글썄 난 저 사람한테 반해서 한달을 두구 쫓아다녔다니까요. 〈왜 만나자고 하세요? 할 말이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하구 매번 딱 잡아 뻘지만 난 집에까지 쫓아가며 못살게 굴었지요.》

얼리기두 하구 위협도 하면서말입니다. 그러다가 한번은 령기지도원을 하는 저 사람의 아버지 가 팔을 걷으면서 술을 걸어나오는바람에…》

《도망쳤나? 》

《별수 있습니까? 》

《하하.》

로인은 무릎을 치며 웃었다.

…총각이 한달을 두고 쫓아다니며 만나줄것을 간청해도 매번 무꼬랑지 잘라버리듯 하던 처녀에게서 뜻밖에도 처녀 여섯시반에 강안공원으로 나와달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방금 저녁상을 받고있던 상준은 숟가락을 팽개치고 뺄스정류소로 내달렸다.

처녀가 나오라는 시간까지 공원에 가닿자면 당장 뺄스를 잡아타도 시간이 빠듯할것 같았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여 시계를 보니 10분전이었다. 그때에야 상준은 하늘에 먹장구름이 밀려오고있으며 당장 비꽃이 날리게 되리라는것, 자기가 그렇게 덤비지 말고 우산을 들고 나왔어야 했으리라는것을 깨달았다.

상준은 처녀가 지정해준 공원입구, 큰 수양버들밑으로 들어서며 벌써 비꽃이 후둑후둑 날리기 시작하는 하늘을 불안하게 올려다보았다. 제일 불안한것은 비가 오면 처녀가 나오지 않을수 있다는것이였다. 또 처녀가 인차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의 옷이 훌쩍 젖고 말리라는 생각에 초조하

였다.

처음 만나는 처녀앞에 어떻게 물에 빠진 수탉의 꼴을 해가지고 나서랴. 하지만 먹장구름사이로도 찬연한 해살이 비칠 때가 있듯이 가끔 가다 불안의 구름장을 밀어내며 칠색무지개와도 같은 황홀한 광경이 펼쳐지곤 하였으니 그것은 숨가쁘게 달려온 처녀가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면서도 비를 맞고있는 총각을 자기의 우산밑으로 불러주는 광경이었다. 그 우산은 애기모자처럼 조그마한 것이어서 벌써부터 숨이 껍 막혀왔다.

상준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큰 바늘이 각일각 《6》자로 다가들고있었다.

상준은 《정각6시》라는 반간첩 영화를 생각하였다. 그리고 책각거리는 시계소리를 들으며 영화에 나오는 안전원들처럼 처녀가 제때에 달려와 자기가 품고있는 불안의 시한탄을 해제하여주지 않는다면 심장이 《빵》하고 터져나갈것만 같았다.

비가 갑자기 쏟아지자 한가하게 걸어가던 사람들이 투덕투덕 뛰여갔다.

드디어 시계의 큰바늘이 《6》이라는 수자를 가리켰다. 그 순간에 천지를 진감하는 폭음이 울렸다. 심장이 터지는가 했더니 우뢰가 운 것이었다.

비가 갑자기 대줄기로 쏟아졌다. 순식간에 상준의 옷에서 비물이 툭툭 떨어져내렸다.

비물이 실도랑을 내며 사곳에서 흘러내리다가 급기야 한곳을 이루더니 무슨 냄새를 맡고 땅을 파헤치는 여우처럼 채송화밭의 한 귀퉁이를 짹째 허물어내기 시작하였다.

흰색, 분홍색, 타는 불색, 노란색, 연두색, 진보라 등 가지각색의 귀여운 꽃송이들이 한데 어울려 사람들의 눈을 시물거리게 하는 비단필같은 꽃밭이었다.

상준은 나무아래서 뛰쳐나와 물길을 다른데로 돌려보려고 허둥거렸다. 그런 상준이한테로 모래를 싣고 지나가던 자동차우에서 삼 한가락이 날아와 떨어졌다.

상준이가 일을 끝내버렸을 때에는 시계가 벌써 7시반을 가리키고있었다. 상준은 다시 한시간을 더 기다려보기로 하였다.

옷은 화락하니 젖었지만 사랑에 단 심장은 아직도 확확 열기를 뽐고있었으니 만일 비를 맞혀서라도 그 심장을 서서히 식혀버리지 않는다면 위험할것 같아서였다.

이튿날 처녀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갑자기 비가 오는바람에 상준동무가 나오지 않을것 같고 하여 안나갔는데 혹시 자기가 잘못 생각해서 상준동무를 비속에서 떨게 했다면 대단히 미안하노라는 내용의 전화였다.

상준은 너무 화가 나서 전화통에 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동무한테 미쳤다고 비오는 밤에 나가 떨겠소? 우산도 없이...》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저쪽에서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왕청같이 튀어나온 우산이라는

소리에 처녀가 눈치챈것만 같아 전화통을 탕 놓아버리자는데 저쪽에서 다시 오늘 저녁에도 비는 오겠지만 상준동무만 나와주겠다면 어제 약속한 그 시간에 나가겠는데 그래주겠는가고 물어왔다.

《나가잖구. 하지만 우산은 안가지고 나갈테니 그리 아시오.》

그날저녁에도 비가 왔다. 하지만 처녀는 상준이보다 먼저 나와 그를 기다려주었다.

씩 후날에 가서야 상준은 첫날에도 처녀가 자기보다 먼저 나와 기다리고있었으며 자기가 비를 맞으며 꽃밭에서 일을 할 때 처녀 역시 좀 떨어진곳에서 그와 비슷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일거일동을 주시하다가 같이 자리를 뺏다는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결국 처녀는 총각이 비속에서 자기를 기다려주는 그 시간의 길이로서 자기에 대한 총각의 열정을 재본 것이었다.

맑은날에야 어느 총각인들 한두시간 기다려주지 않으랴. 꽃피는 계절에만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라. 처녀는 비가 아니라 불비속에서도 변함없을 그런 사랑을 바란 것이었다. 그러고보면 처녀는 날씨를 미리 예견하고 우정 그 시간을 택했을지도 몰랐다. 처녀적의 안해는 그런 계교도 능히 꾸밀수 있는 깜찍하기 그지없는 녀자였었다.

하지만 비가 사랑에 달아오른 총각의 심장을 식힐수 없었듯이 처녀의 그 어떤 계교도 상준을 물려서게 할수 없었다. 상준은 처녀를 그렇게 사랑하였다.

상준은 푸른 저 벌도 그렇게 사랑하리라 생각하였다. 그러자면 그때보다 더 지긋고 열렬하고 뜨거워야 하리라.

4

이튿날 아침 덕수로인은 상준이를 다시 찾아와 관리위원회와 토론이 있었으니 이삼일 폭 쉬라고 하였다.

《새애기도 같이 쉬라구. 일만 일이라구 미쳐 그런 생각을 못했구만.》

상준은 쉬라는 말이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다.

밤새껏 허리가 쏜다, 각이 쏜신다, 발바닥이 활활 단다 하며 안해만 못살게 굴다가 안해가 잔등에 올라서서 허리를 잘근잘근 밟아준다, 무릎마디 부위를 두드려준다, 발바닥에 박하연고를 발라준다 해서야 새벽녘에 겨우 잠에 들었던 상준이었다. 안해는 남편의 머리권에 밥상을 차려놓고 보자기를 덮으며 한창 바쁜 김매기철에 한 집에서 어떻게 두사람씩이나 누워있겠는가. 나는 나가서 쉬엄쉬엄 논두렁풀이라도 뽑겠으니 자기 걱정은 말고 폭 쉬다가 늦으막해 일어나 식사를 하라면서 세수물까지 떠다놓아주고나갔다. 아마

힘들고 곤하기는 안해가 더하리라. 여기로 오기 전까지는 유치원교양원으로서 아이들과 나풀나풀 춤이나 추던 너자, 한니 그렇게 춤이나 추기에 적당하리라 생각했던 나리꽃같은 안해, 그런데도 안해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 자기를 고무해주고 있다.

어쩔수 없는 사랑의 힘으로...

홀몸도 아닌 안해를 혼자 일내보내놓고 누워있으려니 자리가 편안치 않아 상준은 자기도 나가려고 일어났다. 하지만 발바닥이 얇아진듯 모질게 쭈셔나고 허리가 쿡쿡 질려와서 도로 주저앉고말았다.

상준은 창결에다 베개 두개를 겹쳐놓고 거기에 엎비슷히 기대고 앉았다. 밖이라도 좀 내다보아야지 속이 달아 누워있을수가 없었다.

비는 몇을듯 말듯하면서 오늘도 계속 내리고있었다.

멀리로 바라보면 제초기를 끄는 트랙트르들이 비내리는 광막한 공간에 대고 포를 쏘아올리듯 풍풍 연기를 피우며 푸른 전야를 누비고있고 가까이로는 《농촌의 모든 힘을 논밭 김매기예요!》,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대형구호판들의 글자가 비물에 젖어 더욱 진한 색으로 안겨왔다.

마을과 논벌을 갈라놓은 신작로가 상준네 마당 앞으로 지나갔는데 지금 거기로는 선녀의 날개옷과 같은 비옷들을 입고 빨강고 노랑고 파란색갈의 사출장화를 신은 처녀들과 총각들, 로인들과 아낙네들이 자전거를 타고 혹은 걸어서 제가끔 제 일터를 찾아 종종걸음을 치고있었다.

논벌이 아니라 공장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을 방불케 하는 광경이었다.

키가 구척같은 리당비서가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다. 농장 리발사령감이 가볍게 저는 다리를 살짝살짝 끌며 그를 따라서더니 무슨 말을 하는지 등을 구뵈하고 듣고있던 리당비서가 갑자기 허리를 젖히며 꺾꺾 웃는 모양이 보였다.

상준의 집앞에 《충성》호가 와서 밋으며 거기서 굵살하게 생긴 탄심이가 내렸다. 탄심은 방송마이크를 어디다 놓을지 몰라 두리번거리다가 곧장 상준네 집 마당안으로 들어왔다.

상준은 화닥닥 놀라 창결에서 물러났다.

잠시후 처마밑에서 《지금 온 농장벌은...》하고 격조높이 웨치는 탄심의 말소리가 광광 울려나기 시작했다.

상준에게는 탄심이가 논벌이 이니라 나팔주둥이를 자기 집의 문에다 들여대고 《상준동무, 지금 온 농장벌은...》하고 웨치는것만 같았다.

방송원고를 가지고 선동원들과 로농통신원들이 찾아들기 시작하였다. 그 사람들이운데 누가 문이라도 벌럭 열어볼가 겁나 상준은 가만가만 이불을 개서 엎어놓고 옷방으로 쫓겨 올라왔다. 이럴줄 알았으면 안해가 일을 나갈 때 밖으로 쇠를 채워놓으랴할 하는 기상천외한 생각까지 떠오를

정도였다.

《제길, 피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용하군.》

다행히도 탄심은 반시간가량 열을 올리더니 다 큰데로 옮겨갔다.

얼마후 1작업반의 논쪽에서 방송소리가 들려왔다.

상준은 얼른 세수를 하고 들어와 밥상에 마주 앉았다. 하지만 입맛이 써서 몇술 뜨다 말고 일어났다. 그리고는 그 길로 정만이를 찾아갔다.

발바닥이 아려나서 눈에는 들어가지 못할망정 제대군인들이 안해들까지 데리고 왔다는데 집꾸리는 일이라도 도울 생각이였다.

터발열을 지나려니 어제 옮긴 강냉이모가 눈에 띄였다. 사흘째 계속 비가 와서인지 어제는 시들하던 잎이 어느새 벌써 생기를 띠고 우줄거리고 있었다. 상준은 조심조심 밭으로 들어가 그 강냉이포기에 봉싯하니 복을 돌구어주고나서 다시 밭길을 옮겼다.

탄심이가 또 이쪽으로 자리를 옮겼는지 고성기에서는 지금 옥금이의 노래소리가 울려나오고있었다.

그 노래를 듣느라고 창밖으로 고개를 기웃하고 있던 정만이가 상준을 보더니 경충 뛰며 달려나왔다.

《야, 이거 난 형님이 나을줄 알았수다.》

정만은 무작정 미장칼과 흙반이를 안겨주며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다.

《들에서는 저렇게 성수가 났는데 집안에 박혀 이런 일이나 하자니 몸살이 나서 견디겠소. 마저 좀 해주. 어제밤 영화끝에 덕수로인이랑 강어머니랑 옥금동무들이 와서 한두어시간동안에 큰 일감은 다 죽여놓고 갔수다. 이젠 타일만 몇장 붙이면 돼요.》

정만은 당장 논으로 나가려 하였다.

《안되겠네. 정만인 옥금이때문에 몸살이 나겠지만 난 아직 흙내를 더 말아야 하거든. 그래서 정만이한테다 이런 일감을 맡긴것이고... 그럼 수고하라구.》

상준은 공구를 다시 정만의 손에 슬쩍 넘겨주며 빙그레 웃었다.

《하, 이거 어제 아침에 내가 톱말을 했더니 그걸 실소리로 들었소? 장화가 거치적거리길래 맨발루 눈에 들어섰다가 발을 좀 뺏겼수다. 파상풍이요 뭐요 하며 아바이가 범물듯해서 들어오긴 왔는데... 그래 오늘이나 나오랴 했더니 제대군인들이 색시까지 달구왔대. 형님은 며칠 쉬어야 한대, 사랑은 저렇게 어서 나오라고 날 부르는데 물에 난 고기처럼 이런 일이나 하자니 이거 속이 타서 견디겠소. 제발 좀 생각해주. 우린 벌에서 사랑을 약속했구. 푸른 벼모처럼 논에다 사랑의 뿌리를 내리구서 거기서 떠나지 말자구 했었수다. 아니 그래. 상준동무한테는 저 옥금동무의 노래소리가 짝을 찾는 외기러기의 간절한

소리처럼 들리지 않는단말지요?》

정만은 웃었지만 상준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선망과 존경의 마음으로 정만을 올려다보고있는 자신을 느꼈다.

《물에 난 고기처럼 느껴진단말이지? 물에 난 고기라... 정만이가 정말 부럽구만. 그래 발은 없겠나?》

《장화를 신어야지요.》

《그럼 같이 나가자구. 타일은 저녁에 들어와 계곡 불여 버리구 마세나 꽃무늬도 놓으면서...》

《그럼시다.》

하더니 정만은 상준이를 혼자 내버려두고 저먼저 쩡충거리며 달려가는것이였다.

그 모양을 바라보며 상준은 허허 웃었다.

하지만 웃음으로만 스칠수 없는 뭉클한 생각이 다시 가슴 한끝을 울려밀었다.

고성기에서 안해의 노래소리가 울려나오고있었다.

비오는 들에서 부르는 안해의 노래소리, 그것은 정만이네처럼 자기더러 어서 들로 나오라는 사랑의 부름소리처럼 들렸다.

상준은 정만이를 쫓아 내뛰었다.

논으로 나가니 제대군인부부들 틈에 섞여 김을 매던 덕수로인이 첨버덩거리고 나오며

《한 사날 폭 쉬라구 했는데 왜 나왔나? 그러다 정말 놀고싶어 그러나?》 하였다.

《말마시우다. 소변 한번 보재도 숨어나달라니까 이진 쉰다는게 앓는것보다 더 베참디다. 토끼는 쫄쫄 굶고있지, 콩나물도 이젠 밀창이 났지, 풀이라도 한줌 뜯어가자면 여기로밖에 더 나올데가 있습니까?》

상준은 새색시들결에서 일을 하는 안해에게 눈을 찡긐해보이며 하하 웃었다.

《하하, 그렇다니까. 상준이 성미에 내 그럴줄 알았어. 그래 방금 임자 색시한테 밖으로 쇠를 잠가놓고 나왔는가고 묻던 참이라네. 그럼 이 색시들을 몽땅 데리구 들어가서 집꾸리는 일이나 쉬엄쉬엄 하라구.》

《어서 가시라요.》

안해가 새색시들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상준을 향해 상글상글 웃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상준은 논판에 풍덩 뛰어들었다.

《어-씨원하군. 발바닥이 활활 달더니... 아바이 논물에서 일하면 무좀도 푹 떨어진다고 했지요?》

《아니, 또 장화를 벗었나?》

로인이 성이 나서 상준의 곁으로 다가오고있었다.

모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간 저녁무렵이였다. 상준은 논두렁옆을 기웃거리고 다니며 민들레를 캐고있었다. 민들레는 토끼가 제일 잘 먹었다.

일도 늦게 떼서 아무거나 좀 뜯어가지고 들어

가려던것인데 민들레가 눈에 띄이기 시작하자 벌판으로 점점 멀리 나가고 있다는것도 느끼지 못하였다. 다복다복 몰려있는 민들레판을 만나면 마치 시누런 밤판에 맞닿들렸을 때처럼 가슴이 다 울렁거렸다.

비발이 아까보다 점점 굵어지는것 같아 상준은 돌아가자고 일어섰다. 그때에야 상준은 덕수로인 이 아직 들에 있음을 알아보았다. 로인은 풀지계를 큰길가에 내다 새워놓고 푸른 벼모와 그 어떤 다정한 이야기라도 나누는지 논두렁길을 천천히 걷고있었다. 일을 끝낸 저녁이나 이른새벽에 그렇게 걷는것을 락으로 여긴다는 로인이였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벌에서 사는 사람, 곡식과도 다정히 이야기할줄 아는 사람, 내가 그 귀여운 토끼들한테 훌쩍 반하여 옷젖는줄 모르고 맛있는 풀만 골라 캐듯이 아마 저 로인도 이 벌에 반하여 어느때고 여기서 사는것이라.

이윽하여 로인은 지계를 지더니 상준의 시야에서 멀어져갔다. 그를 따라가자고 걸음을 채우치던 상준은 무춤 서버렸다. 푸른 벌에는 아직 로인만 못지 않게 여기다 정을 묻고 사는 새 세대가 남아있었다. 정만이와 옥금이였다. 그들은 상준의 얼마 앞에서 한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있었다.

어제아침 정만이가 썼던 분홍빛 꽃우산이였다.

그들은 상준이가 뒤에서 온다는것도 모르고, 또 우산이 지나치게 앞으로 숙어져 잔등이 다 젖는다는것도 모르고 다정한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있었다. 아까 일을 떼면서 어서들 들어가자고 재촉 할 때에 《요거 마저하구요.》 하고 쫄쫄 놀कु더니 마저 할 일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상준은 웃음을 금할수가 없었다.

상준은 처녀시절의 안해와 같이 저렇게 걸어가던 잊지 못할 그 공원길을 생각하였다. 그때 자기는 정만이처럼 저렇게 우산을 처녀쪽으로 자꾸 기울여주려 하였고 안해는 안해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 하여 나중에는 둘이 다 푹 젖었다는것을 알고 놀렸지만 비가 아니라 사랑에 젖음을 깨닫고는 행복하게 웃었다. 그래서 우산을 와락 접어쥐고는 손을 잡고 비속을 달렸었다. 내리는 비로 하여 자기들의 사랑이 더욱 뜨거워진것만 같아서 ...

《여 정만이! 동무넌 비올 때가 제일 좋겠구만? 일년내내 왔으면 좋겠지?》

화닥닥 놀란 처녀가 우산밖으로 뒹겨나더니 실박한 엉치를 흔들며 비속으로 내뛰었다.

《하하! 비가 참 잘 오는군. 며칠째 가물더니 강냉이구 호박이구 흠썩 자라게 됐어.》

상준은 비내리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젓히며 가슴이 후련하게 꺾꺾 웃었다.

《하하... 》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을 진지하게 체험하고 열렬히 사랑하는 작가, 예술인들만이 시대를 대표하며 역사발전을 추동하는 명작을 창작할수 있습니다.》

김정일

작가들의 새해결의

전환의 해, 비약의 해로 되게

현실생활은 작가들에게 무한한 창작적 열정과 예술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문학의 저수지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왜냐면 매혹적인 인간성격, 철학성있는 문학적 종자, 심오한 인간문제 이 모든것이 우리의 현실생활속에 차넘쳐있으니까요.

그렇기때문에 저는 그 어느때보다도 새해에는 현실속에 깊이 침투하여 생활체험을 실속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학창작생활에서 한계단 비약해볼 결심입니다.

백두산주변의 혁명전적지들과 북부철길 건설장 그리고 새땅찾기 등 제가 살고있는 여기 량강도에만도 저의 마음을 끌고있는 의의있는 현지들이 많습니다.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혁명선렬들의 고귀한 땀이 어려있는 혁명의 성지에서 생활하는 작가로서 저는 우선 백두밀영을 비롯한 혁명전적지들을 주요 생활체험지로 삼으려고 합

니다. 그와 함께 새로운 200일전투로 들끓는 북부철길 건설장과 같은 대건설장들에서도 현실체험을 깊이있게 하여 우리 시대의 전형으로 될수 있는 매혹적인 인간성격을 탐구하겠습니다.

새해에 저는 충분한 현실체험을 거쳐 장편소설 《동트는 강산》의 속편으로 되는 새로운 혁명전통주제 장편소설을 쓰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면서 현실생활을 반영한 단편소설들을 창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체험을 실속있게 하는것, 이것이야말로 저의 창작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고 작가로서의 키를 비약적으로 자랄수 있게 하는 주요한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소설가 백보흠

당의 숨결에 맞추어

당의 숨결에 맞추어 호흡하는 작가만이 당의 작가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당과 호흡을 같이한다는것, 그것은 새로운 200일전투로 들끓는 현실-사회주의건설의 주공전선에 뛰어들어 건설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투쟁하면서 당의 요구,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특색있는 형상을 민감하게 기동적으로 창조하는것이다.

직무상 창작적 사색과 창작에 많은 시간을 들릴수 없는 나로서 창작만 전문으로 하는 현역소설가들에게 뒤지지 않는 창작적 성과를 거두려면 배가의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맡겨진 사업을 그야말로 전투적으로, 정력적으로 진행하여 단 하루 한시간이라도 더 현실속에

들어 갈 시간을 얻어내고 남보다 잠을 적게 자면서 언제나 긴장하게 사색하고 창작하여야만 한다.

체험과 사색, 창작을 전투적으로, 정력적으로 진행하여 우리 당 정책을 선전하고 적극 받드는 단편소설들과 예술적 산문을 기동적으로 형상적 특색이 있게 창작하는것, 그리하여 당의 숨결에 나의 작가적 숨결을 맞추는것, 이것이 나의 새해결의 이다.

소설가 장기성

혁명적으로 살며 전투적으로 창작하겠다

전투에서 전투어로 내달리며 조국은 뜻깊은 새해를 맞는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리더 높이 모시고 평양에서 진행될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날을 그리며 벌써부터 사람들은 들끓어 설레이고있다. 어디로 갈것인가? 어디로 가야 더 큰 충격을 받고 더 좋은 시를 쏟아놓을것인가? 시인은 갈곳도 많거니와 부르는곳도 많다.

만나야 할 사람도 많거니와 기다리는 사람도 많다.

나는 새해를 맞는 이 순간에 지체없이 결심했다. 지난해에 달려가 배낭을 풀었던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로천분광산 대형차합숙 2호동 6호실에 다시 갈것이라고.

나는 그전날 김철에서 용해공으로 일했기때문

에 그들과 깊은 련계가 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들과 함께 일도 하고 생활도 하고 강철에 대해 이야기하며 창작도 하겠다.

현실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당이 요구하는 작품을 창작할수 없다. 내 마음은 벌써 보화로 빛을 뿌리는 무산광산 돌층계우에서 광석을 푸고있다.

나는 여기서 살며 이곳 광산로동계급이 당에 바치는 충성을 노래하겠다. 새로운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이들의 혁명적 기세가 더 앙양되도록 시의 열풍을 일으키겠다. 그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쓰겠다.

시인 김홍권

사색의 자취가 있는 평론을 쓰렵니다

사색의 자취가 있는 평론을 쓰렵니다. 이것이 새로운 200일전투로 하여 더더욱 의의가 깊은 1989년 새해를 맞는 저의 속다짐입니다.

문예작품에 철학이 있고 사색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평론에서도 례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의 평론을 읽고 무엇인가 인간과 생활에 대하여 참된 문예작품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고 지울수 없는 여운을 주는 그러한 평론을 사람들은 요구하고있습니다.

이제는 작품을 놓고 극히 실무적으로 가타부타하는 식의 평론을 쓰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누가 이런 좁이 없고 생기가 없는 따분한 평론을 쓴다 해도 지금 이것을 읽을 독자는 없을것입니다.

평론에 대한 독자들의 요구도 높아졌습니다.

평론에도 철학이 있고 사색이 있어야 합니다. 평론에는 평론가의 생활철학이 있어야 하며 깊은 사색이 있어야 합니다. 평론가는 인간과 생활,

작품형상을 높은 당적 안목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대하고 분석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하여 평론에는 시대와 인간과 생활에 대한, 예술에 대한 철학이 깔려있어야 할것입니다. 이런 평론이야말로 독자들에게 작품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인식을 줄뿐아니라 우리 시대의 가장 아름답고 보람차고 긍지높은 생활에 대하여, 예술의 숭고한 세계에 대하여 사색하게 할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평론에는 사색의 자취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새해에는 어떻게 하나 이런 사색의 자취가 있는 평론, 시대의 맥박과 숨결이 뜨겁게 느껴지는 읽히우는 평론을 써서 당의 고마운 은덕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것이 저의 심장의 결의입니다.

평론가 박용학

수호자의 모습

황철일

1

려객선은 정시에 부두를 떠났다.

긴 배고동소리가 안개 자욱한 부두가의 아침 대기를 뒤흔들었다.

도송배전소 지도원인 정경진은 배의 옷갑판에 젊은 연구사와 함께 서서 멀어져가는 강기슭의 높낮은 건물들이며 추진기가 열정적으로 파헤쳐 놓은 물이랑이 파문을 일으키며 부채살마냥 기슭으로 퍼져나가고있는 모양을 바라보았다.

연구사는 등산모를 쓰고 낚시대를 간편하게 접어 텃부리듯 한쪽 어깨에 걸쳤는데 나이는 서른이 될가말가 했다. 그는 벌써 두달째나 연구소를 떠나 중부이북지방의 수많은 강하천들과 호수, 저수지들을 편답하면서 양어수역과 수질, 물고기들의 분포상태, 여러가지 먹이동식물들의 생태를 연구하고있었다.

려객선에서 만난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퍼그나 친숙한 사이로 되었다. 양어과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자기 직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젊은 과학자를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만들었다. 그는 서북부일대에서의 연구 일정을 마치고 어느 광산 후방기지인 양어장으로 가려고 월봉계전장에서 내린다고 했다.

정경진도 마침 월봉천에 새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로 찾아가는 길이었다.

려객선이 한참 달려서야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고 갑판우에 해빛이 쏟아졌다. 맑은 하늘, 푸르러 가는 수려한 산발들이 대안의 수면우에 꺼꾸로 비껴있었다.

갑판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떠들썩한 말소리, 노래소리가 통통거리는 배기관소리와 간단없이 어울렸다. 젊은 연구사는 끝없이 흘러내리는 푸른 강물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입을 열었다.

《나는 이번에 서북부일대의 강하천들을 돌아보면서 많은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업화의 력사는 공해의 력사라고도 합니다. 공업이 창설되면 공해가 뒤따른다는것이 하나의 기성관념으로 되고있지요.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만...》

연구사는 잠시 말을 끊더니 생각에 잠기었다.

등산모채양밑으로 언뜻 드러나군하는 번듯한 이마며 지성이 비친 명상적인 눈매, 때 이르게 생각되는 학자풍의 여유있는 몸가짐...

《아니 이런 일반론을 가지고선 사람들을 납득시키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경진은 미소를 지으며 수궁하듯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하긴 그렇소. 우리는 날 때부터 맑은 하늘, 푸른 시내물, 깨끗한 대기에 버릇돼있지요. 그것은 너무도 레사로운것이어서 누구나 이런 말을 하면 새삼스러운 소리를 한다고 웃어버린단말지요. ...》

정경진은 젊은 학자의 심정이 이해되었고 그의 뜬 기분도 어느 정도 헤아려졌다.

연구사는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는 진작 자기의 수백리 기슭에 많은 공장들과 기업소들, 광산들을 가지고있는 이 강물의 경우를 놓고 이야길 했어야 옳았지요. 폐역, 미광오수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물고기들은 자기의 수역을 바꾸지 않고있습니다.》

그것은 정경진도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젊은 연구사는 불어오는 강바람에 가슴을 짝찔었다. 그의 의젓한 몸짓과 말투에는 사색과 탐구의 령마루로 높이 날아오르려는 굳센 의지와 힘이 느껴졌다.

려객선이 잠간 어느 계선장에 멎었다.

한동안 렬객선은 오르내리는 사람들로 붐비었다.

갑판우에 한 처녀가 배낭을 지고 나타났다. 제비꽃문양이 다문다문 박힌 연한 하늘색 달린옷을 입은 그의 몸매는 보기에다 무척 경쾌하고 날씬했다. 도도룩한 이마는 땀에 젖었고 자주 깜박거리는 가무스름한 두눈은 그 누구를 찾듯 두리번거리었다.

갑자기 옆에 섰던 연구사가 《금선동무!》 하고 불렀다. 정경진은 그의 두눈이 류다른 광채를 띠고 번쩍이는것을 보았다.

《아이-성태동무!-》

처녀는 뜻밖인듯 제자리에 굳어졌다가 배낭을 내려놓으며 반달음으로 달려왔다.

순간 정경진은 흠칫 어깨를 떨었다.

저 떨리듯 깜박거리는 가무스름한 두눈! 어데서 보았던가? 그러나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어데선가 본것 같았으나 역시 낮이 선 처녀였다.

《어디 갔다오는 길이요?》

《저 광업연구소예요...》

《또 분석하러 갔겠구만... 지금 어느 철인데 그런 무거운 배낭을 지고 다니요.》

《괜찮아요. 습관된걸요.》

엄성태는 손수건을 그에게 내밀었다.

《저한테도 있어요.》

하면서도 처녀는 손수건을 받았다. 정경진은 처녀가 목덜미까지 붉히는것을 엿보며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아마 보통사이가 아닌듯싶었다.

엄성태는 정경진쪽에 얼굴을 돌렸다.

《광산실험실에 있는 동무입니다. ... 금선동무, 인사하오. 도에서 내려오는...》

정경진은 자기를 향해 깜박거리는 그 눈을 보며 다시금 생각에 잠기었다.

(뭘, 광산? 난 광산에 아는 처녀가 전혀 없지...)

그는 최근 발전소며 탄광들에는 많이 나갔지만 광산에는 한번도 가본적이 없었다. 그것으로 처녀를 기억의 갈피에서 찾아내보려던 그의 생각은 씻은듯 사라져버리고말았다.

엄성태는 처녀쪽에 반쯤 몸을 돌린채 이야기를 꺼나갔다.

《참, 아버지한테 미안하게 뻘소. 새로 나온 수질분석기구들을 부탁해온것을 못구해보냈구만...》

《호호, 잊지 않았군요... 이젠 다 있답니다.》

《그래 아버지의 연구사업은 어떻게 했소?》

처녀는 입술을 오무작거리다가 고개를 들었다.

《새로운 조절제 시약을 얻어낼것 같아요.》

《그렇소! ... 야 이런...》

엄성태는 소년처럼 환성에 가까운 소리를 내치르며 두손을 맞비볐다. 몹시 흥분한것 같았다.

《그것만 성공하면 완전비옥한 양어수역을 얻게 될거요...》

《그래요. 아버지는 민물의 순결도를 얻기 위해 요즘도 밤낮없이...》

정경진은 그들이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도 어느 한 시절엔 과학탐구에 일생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책속에 파묻혀살던 때가 있었다. 과연 그것이 언제적 일이던가, 그는 자신이 재능이 있다고 자부했으며 한생을 탐구의 열정으로 가슴을 불태우리라 믿었었다. 그러나 희망과는 어긋나게 그는 행정일군이 되고말았다. 과학탐구에 바치려고 심장에 지퍼졌던 열정의 불꽃이 쉽사리 다른 실무적인 사업에 옮겨졌던가? 조직적 수완,

전개력, 간부다운 틀진 몸집... 이것이 정말 그의 참모습이 아니던지.

생각은 처녀와 엄성태가 속살거리는 소리로 끊어져버렸다. 젊은 학자의 명상적인 눈매며 여유있던 몸가짐은 사랑에 취해 시공간의 감각을 전혀 잊어버린 한창나이의련인의 모습으로 돌변한것 같았다.

정경진은 그들과 좀 떨어져서 굼뜨게 다가오는 재빛으로 빛나는 산봉우리들이며 깎아지른듯한 벼랑굽이로 떠내려오는 긴 폐목행렬을 바라보았다.

《참.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더구만...》

《우리 어머니가요?!...》

놀라움에 젖은 처녀의 떨리는듯한 목소리.

《아니, 다르게 아니라...》

처녀는 웬일인지 호 하고 한숨을 내뿜었다.

《양어장에...칠색송어들이-》

《알겠어요. 어머니가 근심했어요.》

처녀는 그의 말을 앞질러갔다.

《출혈성부패병이 발생했대요. 어머니 밥맛을 다 잃구...》

《그렇거요. ...》

《무슨 치료대책은 없어요?》

《흔히 슬과제치료를법을 적용하지만... 들려보면 알거요.》

《그럼 양어장까지... 가겠어요?》

엄성태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경진의 얼굴에는 느슨한 미소가 피여올랐다. 아마 처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을것이다. 웬일인지 이야기는 한동안 동강나버렸다. 배기관소리만 더 요란스레 툭툭거렸다.

《얼마나 아름다운 강이요! 맑고 깨끗하구... 성미 사납지만 기세차구.》

엄성태가 이윽고 말문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퍼그나 감상적이었다. 신록이 질어가는 초여름, 목적지를 향해 씩없이 떠가는 하얀 려객선, 사랑하는 처녀와의 뜻깊은 상봉, 아마도 그것이 젊은 그의 마음을 숨구름처럼 뚝뚝 뜨게 했는지...

《난 이 강물을 거슬러오를 때마다 자신이 언제나 젊어져있을것처럼 생각되오.》

《호호, 그럼 더 자주 오세요. 한달에 한번... 아니 더 자주요-》

《젊음에 대한 욕망이란 다른것이 아니요. 얼마나 할일이 많소. 조국의 강들과 호수들에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저수지들에 물고기들을 이식하는 사업도 벌리구...》

젊은 연구사의 말은 끝이 없을것 같았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과학자들이다. 허나 자본의 리윤만 추구하는 나라에서는 이름있던 강들이 독성물질에 오염되어 《죽음의 강》,

《지옥의 강》으로 변해 버렸으며 물고기들을 비롯한 동식물자원이 멸종상태에 이르렀다. 영국의 템즈강, 프랑스의 세느강... 아니 저 남녘땅의 한강을 보라. 카드미움, 수은, 연과 같은 중독성 물질에 오염되어 민물고기들은 거의 없어져가고 있다.

얼마나 기막힌 노릇인가. 지금이야말로 우리 젊은 과학자들이 조국의 미래와 후대 앞에 자기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다...

한낮이 가까와지자 갑판우는 무척 더워졌다. 더러는 아래객실로 내려 가버리고 어떤 길손들은 찌는듯한 해별을 피해보려고 굴뚝이며 선장실지붕이 던진 그림자에 바투 다가앉기도 했다. 굴뚝이 솟아오른 틈새로 기관실이 뻥히 내려다보였는데 거기선 200마력짜리 원동기가 씩씩이 돌아가며 우르렁거리고있었다.

모든것은 자기의 지향과 힘과 열정에 충만되어 있었다. 하늘의 태양도,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도 강의 거센 흐름을 거슬러오르는 이 객선도...

그리고 끝없는 편답의 길을 이어가고있는 저 젊은 과학자도, 광석배낭을 지고가는 저 처녀도...

정경진은 이제 발전소에 가서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 그려보며 새힘이 솟구치는것을 느끼었다.

어느덧 객선은 후미진 기슭에 나타난 월봉계 선장에 배머리를 돌리고있었다. 잔교에 들어서서 배를 기다리고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커져왔다. 잔교의 저쪽 바위들이 들쭉날쭉한 합수목에 흰 파도들이 부서지는것이 보였다.

2

일요일아침이었다.

정경진은 며칠동안의 피로도 풀 겸 오래간만에 고기잡이를 해보려고 낚시터로 나갔다. 깊은 소를 이룬 바위굴마다에 벌써 부지런한 낚시군들의 밀집모자가 언뜻거렸다.

정경진은 발전소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너럭바위우에 앉아 낚시대를 드리웠다. 지배인이 가져온 도르래가 달린 고급낚시대였다. 한창나이의 발전소지배인은 정경진 못지 않게 고기잡이를 즐기는것 같았다. 그는 낚시질이 아니라 주로 우리질이라든가 덩장농이를 좋아했다. 지금도 지배인은 물고기가 많이 모여드는 굽을 보러 간것이다.

물가를 만나마 덮어버린 채양버들이 기슭을 따라 여울목까지 줄지어 서있었다. 고기가 많이 모여들수 있는 좋은 낚시터라는것이 헛동했다.

아닌게아니라 밑바닥까지 들여다보이는 물속에는 성질이 무척 급한 야레들이 이따금씩 은백색 배때기를 햇빛에 번쩍거리면서 떠돌았고 모치때가 무리를 지어 모여들다가 그 무엇에 놀란듯 날쌔게 흩어져버리곤한다.

정경진은 혹시 큼직한 정장어나 열목어파위를 만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어 보기도 했다.

상류로 올라오는놈을 만날수도 있었던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는 등뒤에서 가볍게 조약돌을 밟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돌아봤다.

등뒤에 객선에서 만났던 그 처녀, 금선이가 웃음을 짓고 서있었다. 곤색 작업복바지를 무릎까지 걸어올리고 해별에 감실감실 탄 종아리를 드러내놓았는데 손에는 자그마한 유리시료병과 비닐물통을 들고있었다.

《잘 물려요?》

금선은 고기다래끼를 들여다보다가 실망한듯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다.

《우리 아버진 늘 해질녘에 낚시질을 하곤했어요.》

그는 정경진이 앉은 너럭바위를 애무하듯 바라보다가 눈을 내리깔았다. 이상하게도 정경진은 처녀를 보는 순간 또다시 어디서 많이 본듯한 인상이 되살아났다.

《바로 그 바위가 아버지가 좋아하던 자리였어요. 난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 먼저 달려와 그 바위우를 쓸어내고 고기들에게 모이도 뿌려주곤 했어요... 엇그제일 같은데...》

처녀의 어조는 지나가버린 생활에 대한 어떤 애뜻한 추억에 젖어있었다. 혹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것이 아닌지...

《처녀동무 좀 쉬었다가요.》

정경진은 옆자리를 눈짓해보였다.

《전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가 물시료를 기다려요.》

《그건 뭇하자구?》

정경진은 유리병을 찬찬히 쳐다보며 물었다.

유리병에 붙인 종이우에는 원주필로 물든 지점, 시간, 날짜, 채취자의 이름이 씌여져있었다.

《하나의 일과처럼 이제 습관됐어요. 물의 조성을 분석한답니다. 그리고 이 비닐통의 물은 어항에 두 갈아주구 화분에도 준답니다.》

《그래?!...》

《말하자면 선광장에서 나온 미광이 침전물을 거쳐 어떤 상태로 강물에 흘러드는가를 알자는거지요. 아버진 내가 태어나기전부터 이 일을 했어요. 이제 내가 맡아해요...》

정경진은 가슴이 뭉클했다. 하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 아지 못할 그 어떤 불안감이 자라오르는것을 느끼었다.

《그래 집은 어디에 있소?》

《동홍광산마을이에요...》

《영...어디라구?》

정경진은 귀에 익은 어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기 어디에 동홍광산이 있단말인가? 이 시내가 상류쪽에 광산이 있다는것을 얼마전에 알았지만 그것이 동홍광산일줄은 애당초 짐작못한 것이었다. 정경진은 뜻밖의 발견에 저으기 흥분했다. 왜 인차 동홍광산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화가 났다. 하긴 철도분기점에서도 자동차길로 수백리를 들어오던것을 반대로 서북쪽에서부터 러객선을 타고 광산의 뒤쪽으로 예돌아 왔던것이다.

아니 단순히 지형지물에 대한 잘못된 표상에서 오는 불찰은 아닌것 같았다. 근본은 그동안 동홍 광산을 영영 잊어버리고 살았다는데 있었다.

정경진은 그곳 광산에서 얼마동안 일한적이 있었다. 동홍광산은 당대표자회의후 개발한 유색금속광산이었다. 그는 그때 중대와 함께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집단진출을 했었다.

불현듯 가슴을 세차게 때리는 충격에 정경진은 가벼운 전율을 느끼며 처녀의 얼굴을 뚫어질듯 바라보았다. 뼈속까지 파고드는듯한 눈길에 처녀는 얼굴이 해쓱하게 질리었다. 실개울에 흘러내리던 미광, 어스름한 달밤, 수채통결에서 어깨를 들먹거리며 눈물을 쏟고있던 양어공처녀를 어떻게 달래일지 몰라 두눈만 껌벅거리던 순박한 사나이...

정경진은 드디어 앙금처럼 깊이 가라앉았던 기억의 샘터에서 세월의 힘으로도 지울수 없었던 한 인간의 초상을 그려냈다. 그는 흥분으로 달아오른 입술을 펴며 처녀를 향해 떠듬거렸다.

《그래 동무의 아버지도 광산에서 일하오?...》

《네, 그래요...》

처녀는 의혹이 실린, 여전히 겁먹은 눈길로 정경진을 바라보며 뒤로 주춤 물러섰다.

《저...아버지 이름을 윤명삼이라 하잖소?...》

《네? 아이참,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길다란 속눈썹이 파들파들 춤추듯 떨렸다.

(그러니 이 처녀가 명삼의 딸이란말이지!... 어쩌면 이렇게도 제 아버지께 쪽 빼물었을까...)

잊을수 없는 생활이,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으면 살기가 피로왔을 생활이 그의 눈앞에 화면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낚시대의 감부기가 세차게 흔들리는것이 피곳 보였다. 아마 기대했던 그대로 큼직한놈이 걸려든 모양이었다. 그러나 정경진은 바위우에서 얼어붙은듯 꼼짝하지 않았다.

《아니 저-고기가 물렸어요.》

정경진은 처녀의 다급한 목소리를 꿈속에서처럼 들으며 스물세해전 그 여름날로 추억의 쪽배를 노저어갔다.

3

정경진네 중대가 선광장진설을 끝내고 첫 정광을 뽑은 어느날 저녁이었다.

어제날의 중대장-선광직장장이 정경진과 또 한 사람의 제대병사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 친구의 이름은 윤명삼이라고 불렀는데 운전벌태생이었다.

동작이 굼뜨고 성미가 느린 고지식한 사람이였다.

《동무들은 래일부터 다른 과업을 수행해야겠소.》

직장장은 미더운 눈길로 쓰다듬듯 두사람을 바라보았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10여년 세월을 초소의 눈비속에서 함께 보낸 전우들이 아닌가.

정경진은 울렁거리는 가슴을 달래며 얼핏 윤명삼을 바라보았다. 그는 투박한 두주먹을 무릎위에 올려놓은채 덩덤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아마 또 고향생각을 하는지 몰랐다.

《동무들, 어머니젓줄기 같은 시내물에 미광이 흘러들기 시작했소. 그 시내물을 먹으며 살아오던 물고기들과 수생식물들이 논벼와 사과나무들이 생명을 위협당하고있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열정적인 중대장이였다.

《그래서 동무들은 래일부터 저 아래 골짜기에 침전못을 만들고 강에 미광이 흘러드는것을 막아내야겠소. 이것은 하나의 교두보나 같은거요...》

정경진은 그만 손맥이 탁 풀리었다. 직장장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정황묘사를 해도 역시 그곳은 사람들의 관심밖에 있는 침전못이 아닌가.

하긴 벌써 그 어느 익살군친구가 선광공정을 다음과 같이 빗대어 말한적이 있었다.

《파쇄-이것은 틀림없는 이발이요. 마광은 위주머니구. 부선장은 작은빨, 큰빨과 같은거요. 미광은 배설물이지...》

그러니 미광이 덧쌓이는 침전못을 어떻게 불려야 하겠는가. 누구도 침전못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정경진 역시 꿈에도 생각 못해본 일이었다.

그는 오히려 《굴진소대》로 가려고 은근히 버르고있었다. 직접 땀을 흘리며 막장에서 착암기를 휘두르고싶었다. 한 3년쯤 그렇게 직심스럽게 일하다가 추천을 받아 대학에나 갔으면 얼마나 좋으랴...헌데 침전못이라니 그는 눈앞이 아찔했다.

입을 한일자로 다물고 두눈을 껌벅거리던 윤명삼이 슬그머니 일어섰다. 직장장을 보고 무슨 말을 할듯 입술을 우무적거리다가 안주머니에서 편

지붕투를 하나 끄집어냈다. 봉투는 얼룩덜룩 손때가 묻고 보풀이 일었는데 켜 오래동안 품속에 간수하고 다닌것 같았다. 윤명삼은 쭈그러든데를 몇번 쓰다듬어 펴더니 말없이 직장장앞에 내밀었다. 직장장은 수북한 두 눈섭을 쫓기하며 명삼을 쳐다보았다.

《이건… 뭐요?》

《보면 알겁니다.》

직장장은 속지를 꺼내어 읽어내려갔다. 그의 손이 알릴듯말듯 떨리었다.

《사정이 참 딱하군… 늙으신 부모들이 선팡장 건설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올가 하구 기다린단 말이지…》

직장장은 명삼의 눈길을 피하며 창가로 돌아서 버렸다. 한참이나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던 그는 이번에는 방안을 왔다갔다하기 시작하다가 윤명삼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걸 어떻게한다?... 참 야단이구만. 누구든 침전못엔 가야 될텐데... 난 그래도 동무네를 제일 믿었됐소. 이 어려운 임무를 누구에게 맡기겠소. 동무야 중대에서조차 그중 모범적인 분대장이 아니었소!...》

명삼은 고개를 떨군채 직장장의 말을 묵묵히 듣고있었다.

《동무들은 혹시 이젠 군사복무가 끝났다고 마음의 탕개를 풀어놓은게 아니요?》

정경진도 어깨를 움츠리며 얼굴을 붉혔다. 직장장이 어쩌면 자기의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는것 같았던것이다.

직장장은 믿음에 찬 어조로 말을 이었다.

《한 3년쯤 침전못에서 일하자구. 일이 아니라 조국이 동무들에게 주는 전투명령으로 생각하고 말이요. 조국은 우박치는 총탄과 포화속에서만 지켜지는게 아니요. 저 하나의 자그마한 실개울에도 조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비껴 있다고 난 생각하요.》

그 맑은 물을 먹고 자라는 모든것을 자신처럼 사랑하시요. 시내물에 뿌리를 박은 버랑도 좋고 조약돌아래에 평화로이 알들을 까고있는 모치때도 좋소.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것에서 더 큰 사랑을 받을거요...병사의 성실한 복무는 언제 어디서건 빛이 나기마련이요...어떻소?

잘 생각해보고 다시 찾아오우...》

정경진은 어깨가 처진 명삼이와 함께 함숙으로 돌아왔다.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드는 저녁이었다.

한밤중에 문득 정경진은 잠이 깨었다. 옆침대가 비어있었다. 창밖은 달빛에 푸르스름히 젖어있었다.

(혹시 이 친구 달아난게 아니야? ...)

그러나 배낭과 가방은 제자리에 있었다. 정경

진은 명삼을 찾아 밖을 나섰다. 생전처음보는 오솔길이 골짜기아래로 뻗어있었다. 길옆의 실개울은 벌써 어제날의 그 시내물이 아니었다. 걸쭉한 암회색의 미광이 흘러내려 시내물은 자기 모습을 바꾸었고 그 누구를 불려내듯 쉽없이 조잘거리던 그 맑은 목소리도 더는 골안을 울리지 않았다.

얼마나 걸었는지... 어데선가 말소리가 들려오고 흐느낌소리가 도간도간 바람에 실려왔다.

수채통이 가로놓인 시내가에 두 사람이 서있었다. 한사람은 윤명삼이고 다른 사람은 몸매가 호리호리한 처녀였다. 처녀는 등을 돌려댄채 무엇때문인지 울고있었다.

《동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거요. 나도 농사군의 아들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고기새끼들이 다 죽으면 난 어떻게요...》

《이제 당장 가서 저 골짜기를 막아 침전못을 만들테요. 날 믿어주요.》

윤명삼은 돌파서더니 머리를 수긋한채 뛰여가기 시작했다. 개울옆에 서있는 정경진도 미처 못알아 보고 지나쳐버렸다.

《운동무!-》

《...?》

명삼은 멎어섰다. 그제사 정경진을 알아보고 떠듬거렸다.

《큰일났네. ... 고기새끼들이... 처녀가 울고있어-》

《친한 처녀인가? 》

《실없는 소릴...》

명삼은 사방으로 물방울을 튕기며 철벽철벽 뛰여갔다. 그밤으로 세 사람은 도랑을 막고 침전못을 만들었다. 그 처녀는 농장에서 만든 자그마한 양어장의 칠색송어관리공인데 봉녀라고 불렸다. 봉녀는 그때부터 매일 한번씩 침전못으로 왔다.

흙 한삽이라도 제방쪽에 얹어 놓고서야 자리를 뜨곤했다. 봉녀의 진정어린 녀려덕분이었던지 침전못의 제방은 나날이 넓어지고 높아져갔다.

어느날 정경진은 뜻밖의 소식을 듣고 풀기없이 돌아왔다. 직장장이 인민경제대학으로 공부하러 떠났던것이다. 윤명삼은 책상우에 무슨 도면을 펴놓고 열심히 들여다보고있었다. 정경진이 그려본 《버릴물순환체계도》였다. 전문학교를 다니다 군대에 입대했던 정경진은 도면같은것을 꽤잘게 그렸다.

《마침 잘 왔네. 이것 보게. 여기다 배꼽수채를 몇개 더 만들고 아예 수직갱처럼 저 툇아래로 물길을 뿔아보세. 물론 그 물길 자체가 여러 공정의 정화시설을 갖춰야지...》

정경진은 말없이 도면을 걸어서 한켠에 밀어놓

았다. 명삼은 큰눈을 껌벅 거렸다.

《다 출데없네-》

《자네 웬일인가?》

《직장장이 먼저 갔네.》

《어디루?》

《학교로...》

《그게 이 도면과 무슨 상관인가?》

《코막고 답답한 친구야. 도면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상관이지. 누가 이젠 우리를 여기서 〈해방〉 시켜줄것 같나? 직장장은 졸업하면 우릴 잊어버린 채 큰 일군이 되어 다른곳에 갈거네.》

윤명삼은 심각한 낯빛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정경진은 슬그머니 화가 치받쳐 올라 투덜거렸다.

《난 결심했어. 〈굴진〉에 가고말겠네. 이거야 밤낮 아낙네들과...》

그리고는 친구의 두툼한 입술이 이제 무슨 반응을 일으킬가 하고 기다렸다.

윤명삼은 아무 대꾸도 없이 도면을 끄당겨서 투박한 손바닥으로 구겨진 주름살을 반반히 펴기 시작했다.

허나 정경진은 《굴진》에 가지 못했다. 차마 윤명삼을 너자들속에 홀로 남겨 놓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었다. 대신 그는 열심히 대학입학시험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 놀음도 얼마 안가서 집어치우고 말았다. 희망을 포기해야 된다고 자신을 타이르며 잠자리에 들다가도 별떡 상반신을 일으키며 느닷없이 한숨을 짓군했다.

그해는 초가을에 늦장마가 왔다. 런사흘 비가 억수로 퍼부어졌다. 시누런 흙탕물이 침전못에 흘러들어 급기야 못은 물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정경진은 이틀밤이나 반원들을 데리고 제방쪽에서 밝히었다. 그는 지칠대로 지쳐서 합숙으로 돌아와 침대에 옷도 벗지 않은채 쓰러지군했다.

팡업일꾼들을 위한 단기강습에 떠나간 윤명삼은 웬일인지 인차 돌아오지 않고있었다.

어느날 밤 합숙에서 단잠이 들었던 정경진은 사람들이 다급하게 어데론가 달려가는 복세통에 깜짝 놀라 깨어났다. 침전못이 터진다는것이였다.

정경진은 가슴이 덜컥했다. 그가 제방으로 황급히 달려갔을 땐 벌써 곳곳에 해불이 타오르고 옷통을 벗어붙인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흘러내리는 미광과 싸우고있었다. 거기는 낮에 정경진이 손질한곳이였다. 비가 뜰해지길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이런 사고가 생길줄이야... 문득 정경진은 사람들속에서 윤영삼과 봉녀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들은 다가온 정경진을 알아보지 못했다. 제방은 가까스로 구원되였다. 후에 알게 됐지만 폭이 터지는것을 처음 발견한것은 봉녀였다. 명삼

은 한 밤중에 도착하였다. 일기에보를 듣고 부랴부랴 떠난것이 범람하는 강물을 만나 곤역을 치르다니니 늦어졌던것이다.

정경진은 직장장에서 있는 종업원총회에서 퇴계 비판을 받고 손맥을 놓고말았다.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였다. 베개잇에 뜨거운 이마를 틀어박고 밤낮으로 자신을 괴롭혔다. 더는 침전못에서 시간을 보내고싶지도 않았다. 남들은 발전하겠다고 공부하러 떠나는데 나는 왜 못가는가... 계속 여기서 우물거리는것이 자기의 재능, 명석한 두뇌에 대한 참을수 없는 배신처럼 생각되였다. 그는 자기의 우유부단성에 슬그머니 화가 났다.

정경진은 더는 참을수 없어 이부자리를 개여놓지도 않은채 친구가 있는 침전못으로 갔다. 윤명삼은 그의 낯빛을 보고 대뜸 사태를 알아차린듯했다.

《경진이, 직장장이 하던 말을 잊었나?》

《뭐라구?... 그건 이미 직장장과 함께 가버리지 않았나... 누구도 우리가 자기의 지향과 포부를 향해 생활의 전철기를 다른 궤도에 이어 놓았다고 시비하지 못할거네...》

뜬눈으로 밤을 밝히며 찾아낸 자기 위안이며 자기 변명의 목소리였다.

《자네 정말 직장장의 말을 끝이 듣나? 이제 정말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한다?...》

윤명삼은 흠칫 어깨를 떨더니 전혀 낯선 사람을 만난듯 정경진을 주시했다.

《뎃쌍이는 미광, 사득관갈은 회백색의 걸쭉한 감탕발... 여기에 무슨 인생의 보람이 있나?》

정경진은 사방을 둘러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윤명삼은 커다란 두주먹을 움켜쥐었다.

《그게... 언땅에 배를 붙이구 방선을 지키던 병사가 하는 말인가?...》

무슨 말을 더 할듯 두툼한 입술을 실룩거리더니 폭발하려고 웅켰던 말마디를 삼켜버리는지 울대가 소리나게 곱들거렸다. 윤명삼은 침전못으로 성큼 들어섰다. 그는 공공 갑자르며 기울어진 수채통을 바로 세우려고 모지름을 썼다. 걸쭉한 미광이 튀어올라 그의 옷을 어지럽혔으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수채를 제대로 세워놓은 명삼은 이번에는 물속에 굴러떨어진 버럭들을 더듬어 꺼내서 활활 제방쪽에 올리던졌다.

정경진은 숙부드럽던 친구가 그렇게 무서운 기상을 한 모습을 처음 보았다.

며칠후 윤명삼은 정경진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색은 전에없이 밝았다.

《어... 정동무, 기뻐하라우.》

《?...》

정경진은 눈이 떠꾼해서 친구를 마주보았다.

《자네 소원대루 대학에 가게 됐다누만. 어서

당위원회에 가보라구.》

《어떻게 된 일인가?》

《비서동무가 기다리고있네. 가면 알게 돼.》

《자넨...》

《나까지 여길 떠나면 어떻게 하나. 난 여기서 일하면서 배우겠네. 동무야 머리로 좋구. 전문 학교출신이 아닌가. 문제는 현대과학을 생활에 한시바삐 도입하는거지.》

윤명삼은 말을 끊고 한동안 주얼거리며 흐르는 강물에 생각깊은 눈길을 던졌다.

《난 이따금 우리 광산의 오수가 저 맑은물에 새여드는 꿈을 꾸다가 소스라쳐 깨나군하네. 그리고나선 도무지 잠을 이룰수 없네. 여 정동무! 우리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가.》

그날따라 입이 무겁던 친구는 다사할 정도로 많은 말을 했다. 하지만 정경진은 학교에 간다는 기쁨과 흥분때문에 친구의 웅심을 헤쳐보지 못하였다.

후에야 친구의 대학추천문제를 두고 누구보다 원심을 쓰면서 뛰어다닌 윤명삼을 두고 잊을수 없는 우정을 가슴 저리게 느끼었던것이다. 그러나 그 때는 《꼭 선풍학부를 전공하라구.》하며 정거장에까지 따라오면서 하던 친우의 간절한 부탁을 본의 아니게 (정경진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있다.) 망각한후였다.

...다시는 돌아올것 같지 않던 인생행로의 한 기슭, 어쩌면 운명이란 이리도 변덕이 심한것인지 자신도 알수 없었다. 이제 무슨 댕으로 친구를 만나랴싶었다. 모른척하고 발전소에서의 말은 일이나 끝내고 돌아가버리고말가.

정경진은 그것이 마음을 더욱 착잡하고 막다른 지경으로 빠져들게 할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자 전신을 후두두 떨었다.

그는 물고기에 끌려 어디론가 사라진 낚시대를 찾을념도 않고 오래도록 바위우에 앉아있었다.

4

정경진은 침전못으로 가려고 시내가를 따라 뻗은 소로길로 걸어갔다. 아무래도 윤명삼을 만나보지 않고서는 발길이 떨어질것 같지 않았던것이다.

시내가 특유의 맑은 공기가 머리를 거뽀하게 하며 가슴가득 홀려들었다.

일매지게 자란 물버들숲이 우뚝우뚝 키를 솟군 물활칠나무와 어울려 시내 양쪽을 둘러쌌는데 방목에서 돌아오는 송아지들의 울음소리가 산골 정서를 한껏 돋구어준다.

자그마한 반두를 손에 든 두 소년이 고기떼를

몰며 여울목에서 나오다가 정경진을 보고 주춤거렸다. 버들숲을 빠지자 넓은 버덕이 나졌다. 징검다리가 보였다. 마을이 멀지 않은것 같았다.

살이 포동포동 오른 송아지떼가 한가로이 물을 마시며 서로 비비적거리며 장난질을 한다. 버드나무 회초리를 징검다리우에 던져버린 방목공청년이 어꾸어꾸-하면서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다.

정경진은 다시 상류로 올라갔다. 여기 어텐가 운명적인 그날밤 시내가에 가로놓였던 수채통이 있을것 같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골짜기는 기슭에 바투 다가앉은 벼랑으로 하여 다시 좁아졌다.

벼랑우에 드리운 탄탄한 물푸레나무줄기들에 꺼져가는 저녁노을의 자루빛 여운이 짙게 배이기 시작했다.

불현듯 정경진은 지심을 흔드는 발파소리를 들었다. 광산마을에 다 온것이다.

한줄기 깨끗한 샘물이 웅벽을 쌓은 좁은 골짜기에서 뿜어나오고있었다. 그 샘줄기는 평퍼짐한 웅덩이에 떨어졌다가 소용돌이치며 급기야 물냉이가 한벌 뒤덮인 소로길을 빠져 정경진이 방금 올라온 버들숲사이로 자취를 감춰버렸다.

정경진은 웅벽우에 올라섰다. 그의 눈앞에는 아름다운 련못이 펼쳐져있었다. 양어장같았다. 잔잔한 수면우엔 커다란 잎사귀들을 손바닥처럼 퍼든 련꽃이며 갈대며 그밖의 여러가지 이름 모를 수생식물들이 빼곡이 들어차있었다. 련못의 저쪽 후미진 한끝에 아담한 정자 하나가 있었다.

정경진은 조심조심 그쪽으로 다가갔다. 뜻밖에도 통나무를 다듬어 만든 의자에 등산모를 쓴 엄성태가 앉아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질측정기구들과 관찰일지가 펼쳐져있었다. 그는 정경진이 다가온줄도 모르고 열심히 무엇인가 써내려가고있었다.

정경진은 그의 뒤에 한참이나 서있었다. 양어장치고는 어쩐지 너무도 호젓한 생각이 들었다.

이윽고 허리를 펴며 심호흡을 하던 엄성태가 정경진을 보고 반색을 하며 일어섰다.

《아! 여길 어떻게?...》

《허허, 양어장구경을 왔지요...》

그러자 엄성태는 얼굴에 명랑한 미소를 띠었다.

《여긴 양어장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전 〈생물학적 못〉 이라는겁니다. 침전못에서 여러 공정을 거쳐 리파되어 나온 물이 마지막으로 〈쉬었다〉 가는 곳이지요. 저기 물길과 이 못에서 버릴 물이 수생식물과 접촉하고있는 기간은 대략 열흘 정도입니다. 이 과정에 물은 더욱 깨끗해지지요...》

정경진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못가를 둘러보았다.

모든것이 그럴듯했으며 조화롭게 꾸려져있었

다.

엄성태는 신이 나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이 못은 금전동무의 아버지가 만든것입니다. 물고기들도 기쁩니다. 그는 선광기사인데 요즘 새로운 미광침강제시약을 만들고있지요... 이 시약이 성공하면 월봉천의 순결도는 물론 7금속의 선광실수율을 세계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정말 숨은 공로자이지요...》

젊은 양어학자의 흥분은 정경진에게도 옮겨왔다.

그는 애써 흥분된 표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크게 뜬 눈언저리에는 흥조의 붉은 반점들이 두드러졌고 코날개가 연신 벌름거렸다.

세상에 이런 기적도 있단말인가. 도면 하나 변변히 그리지 못하던 농사군출신의 제대병사가 선광기사가 되다니... 게다가 얼마나 큰 연구를 하는가.

늙은 부모들의 편지를 직장장앞에 꺼내 놓던 어제날의 순박하기만 하던 윤명삼!...

그의 운명에서 과연 이런 비약을 상상이나 했단가. 그와 헤어지던 때의 광경이 다시금 눈앞에 삼삼히 떠올랐다. 정경진은 자기 모멸의 감정으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것을 감추었다.

정경진의 가슴속에 일어난 파문을 알길 없는 엄성태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 그 새로운 시약이 성공하면 월봉천은 0.01%의 7화합물도 허용하지 않는 순수한 자연수가 되어 흘러내릴겁니다. 그것은 한 선광기사가 조국에 바치는 량심의 깨끗한 흐름이지요... 내가 그를 알게 된것은 3년전 늦은 봄날, 저 아래 합수목에서 었습니다...》

...자주빛 노을의 마지막잔광이 물결우에서 고요히 타오르던 저녁무렵이었다. 미래의 젊은 양어학자는 졸업문제를 쓰려고 이 일대의 양어수역에서 수질조사를 하고있었다. 그가 저무는 태양을 아쉬운 눈길로 바라우며 쌍바위굴에 이르렀을 때였다. 바위우에 보통키에 어깨가 짙 버그러진 오십줄의 사나이와 스무살이 될가말가한 애어린 처녀가 나란히 앉아있었다.

《아버지, 그만 가요.》

사나이는 못들은척 노을 비낀 강심에 눈길을 박은채 바위와 함께 굳어진듯싶었다.

《아버지, 어서요-》

처녀가 다시 재촉해서야 아버지는 느릿하게 한 마디 했다.

《좀더 앉았다가자구나. 얼마나 좋은 저녁이나. 아 참... 너 저길 좀 들여다봐라.》

《호호, 난 아무것도 안보여요. 그저 불타는 노을뿐인걸요...》

처녀는 일부러 어리광을 부리는것 같았다.

《정말 안보이니? 넌 아직... 저것 봐라, 고기떼들이 무리지어 시내가로 오르는구나... 오늘밤엔 틀림없이 열목어들도 상류로 올라올거다. 아야, 우리를 찾아 고기떼들이 오른단말이다!...》

《아이참 아버지두!》

《애 금선아, 너 빨리 가서 저녁먹구 내 밥도 싸가지고 오너라. 오늘밤엔 해불을 만들어서 길잡이를 해야 할것 같다. 어서-》

처녀는 일어서더니 좁안에 든 모이를 바위굴에 활활 뿌려던졌다. 그러자 쫄병쫄병 수면우로 물고기들이 승벽내기로 뛰여오르기 시작했다.

젊은 엄성태의 가슴은 기쁨으로 설레었다. 그는 자기의 녀을 단번에 매혹시켜 버린 그들한테로 전혀 스스럼없이 다가갔다...

《난 그 사람과 인차 친숙해졌고 그의 안해와 딸을 사귀면서 그의 지나간 생활도 깊이 알게 됐지요...》

엄성태는 추억을 더듬듯 눈을 찔프리며 미간에 깊은 주름살들을 모았다. 그는 옛말이나 하듯 다시 조용히말문을 열었다.

《20여년전 여름 어느날... 미광이 흘러내리는 이 골짜기에 두사람이 왔습니다. 한사람은 윤명삼이라 부르고 또 다른 사람은...》

정경진은 온몸의 피가 왈칵 머리우로 쏠리는듯한 중압감을 느끼며 쓰러질듯이 의자의 모서리를 움켜잡았다. 눈앞에서 아지 못할 불씨들이 여름밤의 반디불처럼 떠다녔다. 그는 엄성태의 말을 꿈결에서처럼 들었다.

그렇다. 이것은 꿈이다. 꿈일것이다. 그런데 지나간 그 꿈을 불러내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데서 뛰여든 사람인가? 누가 나의 생활을 저리도 본것처럼 방불하게 그려내고있단말인가... 정경진은 가슴을 떨었다.

정경진의 머리는 수천마리의 벌떼가 삼시에 물려와 그의 머리우를 맴도는듯 웅-웅거렸다. 그는 머리를 그러안고 신음소리를 씩어삼키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양어학자의 말은 조잘거리는 시내물마냥 정경진의 가슴을 끝없이 누벼가기 시작했다...

...어느날 저녁 침전못에 새로 온 지배인이 나타났다. 그는 못가를 한바퀴 돌아보고나서 작업반장을 찾았다. 경비원이 골짜기 아래쪽을 가르켜주었다. 벌써 석달째 반장은 거기서 밤을 편다고 했다.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말없이 골짜기 아래로 내려갔다. 건듯 들린 반원형의 높은 하늘에서 그 무엇을 속삭일듯 못별들이 반짝거렸다.

시내가에서 우등불이 타오르고있었다. 불빛앞에서 분주히 왔다갔다하는 두 그림자... 지배인의 걸음은 점점 더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어제날의 전사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한사람

은 전혀 낯모를 녀자였다. 정경진은 어디 갔는가?...

윤명삼은 봉녀와 함께 마흔두번째의 실험을 하고있었다. 돌우에 걸어놓은 시약가마, 녀인은 불을 때고 명삼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가마를 정신없이 휘젓고있었다. 그것밖에는 전혀 다른 생각은 없는것 같았다. 지배인은 한동안 눈물이 글썽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뜨거운것이 한순간 불뭉치처럼 목구멍을 치받자 지배인은 참지 못하고 《명삼이!-》 하고 소리쳤다.

가마를 휘젓던 명삼은 일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불빛앞에는 뜻밖에도 어제날의 중대장-직장장이 눈물이 글썽해 서있었다. 이게 얼마만인가.

명삼은 울대뼈를 꿈틀하며 한순간 말문이 막혀서있다가 얼어질듯 앞으로 달려갔다.

《아, 중대장동무!-》

《명삼동무!-》

지배인도 마주 달려오며 약물에 절은 그의 커다란 손을 덥석 잡았다.

《수고했소. 난 그렇게 하리라 믿었소!...》

지배인은 봉녀한테 의아한 눈길을 던졌다. 지배인의 묻는듯한 눈길에 봉녀는 귀밀을 살짝 붉히며 고개를 숙여버렸다.

《왜 그러고 섰소. 인사를 해야지, 우리 옛 중대장동무요!...》

옆에서 명삼이가 한마디 했다. 봉녀는 얼굴이 더더욱 새빨개져서 몸둘바를 몰라했다.

지배인의 너부죽한 얼굴에는 만족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는 다시 윤명삼이한테 돌아섰다. 지배인은 윤명삼의 커다란 손을 잡고 한참이나 불빛앞에서 쓰다듬으며 말이 없었다. 시약에 뜨고 험상궂게 변해버린 손이었다. 그것은 묻지 않아도 수많은 사연을 불러일으키는 손이었다.

《난 이번에 지배인의 책임을 맡게 되었소.》

《아! 벌써 세월이 그렇게 됐네요. 축하합니다. 이젠 마음이 더 든든해집니다.》

윤명삼은 어린애처럼 티없이 맑게 웃었다.

《이제 우리 정경진동무두 대학을 졸업하구 여기로 올겁니다. 그 친구 편지 한장 없는걸 보니 무던히 파는 모양입니다.》

《그렇소? 허 이런... 난 그런줄 모르구 동무들을 철수시키려왔는데... 해놓은 일이 오죽 많소!》

윤명삼은 지배인한테서 슬그머니 자기의 손목을 빼냈다. 그는 불빛을 받아 얼른거리는 시내가에 눈길을 주고 섰다가 천천히 시약가마로 다가섰다. 교반술가락을 다시 잡은 명삼은 머리를 수긋하고 약물가마를 휘젓기 시작하였다. 그의 얼굴은 불빛에 익어 적동색으로 변들거렸다.

지배인은 그의 곁에다가가서 교반술가락을 끄

당겨잡았다. 약물가마는 다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있었다.

《왜 그러오? 무슨 일이 있었소?》

윤명삼은 벌개진 얼굴을 쳐들었다. 그의 우묵해진 눈확속에는 고뇌의 그림자가 비껴있었다.

《중대장동지! 난 아직 병사의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안간 윤명삼은 시내가로 걸어가더니 자그마한 비닐소랭이를 들고왔다. 그는 언젠가 직장장앞에 고향에서 온 편지봉투를 내어 들었듯이 그것을 지배인의 앞에 내려놓았다. 소랭이에 반쯤 채운 물속에서 고기새끼들이 부자연스럽게 떠돌고있었다. 더러는 배를 하늘로 향하고 있기도 했다.

《??...》

지배인은 묻는듯한 시선을 윤명삼에게 옮기었다.

그래도 윤명삼은 얼어붙은듯 서있다. 옆에서 봉녀가 안타까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칠색송어새끼못에서 건진것인데 아직 시내물이 맑지 못해서 이따금씩 저렇게...》

지배인은 더 묻지 않았다. 명삼이가 무엇때문에 괴로와하는지 알고도 남았던것이다. 그는 어제날의 분대장의 손을 힘있게 감싸안았다.

《운동무, 정말 동문 진짜 병사구만...》

명삼은 두눈을 순박하게 껌벅이면서 지배인을 소심하게 쳐다보았다.

《참, 그땐 내가 어리석었지요. 침전못을 지키라는 중대장동무의 말을 난 야속하게 들었었습니다.》

고향의 풍년벌을 적시는 생명수가 어데서부터 흘러오는것인지 미처 몰랐겠수다. 허나 이젠 이 침전못을 티없이 하기전엔 어디든 안가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영원한 나의 초소입니다.》

젊은 부부는 서로 마주보며 밝은 미소를 피워올렸다. 무엇이래 이름할수 없는 충격에 지배인은 뜨거워진 눈시울을 자주 습벅거렸다.

《광산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오. 조국은 동무의 성실한 복무를 잊지 않을것ियो.》

지배인은 명삼의 두어깨를 힘껏 그러안았다. ...

엄성태의 이야기는 끝났다.

5

머리를 움켜잡고 앉아있던 정경진은 비칠거리며 일어섰다. 눈앞이 핑 돌았다. 어지러웠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소?》

엄성태는 열병환자처럼 몸을 떨며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그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날… 좀 운명삼동무한테… 데려다주세요.》

정경진은 애처롭게 울려나오는 목소리를 갑자기
그에게 한발 다가갔다. 엄성태는 필적 뛰었다.

《그건 안됩니다. 그는 오늘저녁 마지막실험을
합니다. 누구도 그를 방해해선 안됩니다.》

그는 마치도 무슨 중요한 일의 안전을 보장하
는 일군처럼 순간에 엄격해졌다.

하긴 23년전의 두 제대병사중의 한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알거나 있겠는가.

정경진은 초점없는 눈길로 엄성태를 보다가 실
망한 기색으로 돌아섰다. 그는 술취한 사람처럼
몸을 가누지 못하며 언덕길을 돌아올랐다.

갑자기 그의 앞에 절벽같은것이 막아섰다. 제
방이었다. 아찔하게 올라다보였다. 그것은 푸른
하늘을 떠이고 선 억센 담벽같아보였다. 하늘과
맞닿은 제방꼭대기에서 부지런한 저녁별 하나가
생기있게 반짝거렸다. 정경진은 똑바로 엉금엉금
기어올랐다. 뜻밖에 버럭돌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그를 뿌려던졌다. 정경진은 신음소리를
내며 아래로 굴러내려갔다. 운명삼이와 헤어지던
그 제방이었다. 그도 한때는 열심히 흙을 퍼던
저널었던 똑이었다. 20여년세월 똑을 몰라보게도
자라올랐다.

그 제방이 그를 몰라보고 시끄러운듯 뿌려던지
고있는것이다. 정경진은 차갑고 선득거리는 모난
돌에 이마를 틀어박은채 서럽고 분한 생각을 했
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자신도 뜻밖이었다.
등골엔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연신 입귀로
쭈뼌한것이 흘러들었다. 그는 일어섰다. 운명삼
을 만나보지 않고서는 이밤을 보낼것 같지 않았
다. 드디어 제방우에 올라섰다. 침전못에서 한줄
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땀에 젖은 그의 머리칼
을 들추었다.

왼쪽 벼랑을 깎아내고 지었던 그 옛날 휴게실
자리에 새로운 건물들이 키를 솟구며 서있는데
넓은 창문들이 푸른 하늘을 빨아들일듯이 활짝
열려져 있었다.

정경진은 그리로 다가갔다. 가파로운 기슭으로
좁은 돌계단이 뻗어 올라갔는데 그것은 한없이
경건한 마음을 불러일으켰다. 정경진은 돌계단에
주저앉아 담배를 꺼내들었다. 그 누구도 실험을
방해해선 안된다던 엄성태의 말이 상기되었었
다.

초저녁의 교요가 그리고 눈먼 어둠이 소리없이
사방에서 덮쳐들기 시작하였다. 침전못우에는
안개가 내려앉았고 밤을 예감한 풀벌레들이 벼랑
을 만나마 덮은 짙레덤불속에서 찌르럭거리었다.

갑자기 머리우에서 쟁그랑 유리그릇이 깨여지
는 소리와 둔중한 폭발음이 울렸다. 정경진은 반
사적으로 뛰쳐일어나 계단을 두개씩이나 건너뛰

며 올라갔다.

다급한 발자국소리들과 《금선아, 빨리-》 하는
녀인의 초조감이 짙은 목소리가 열린 창문으
로 튀어나왔다.

얼결에 창문가에 다가선 경진은 흠칫하고 뒤로
한발 물러섰다. 귀에 익은 말소리가 방에서 울
렸던것이다.

《여보. 침착하오. 실패했다고 마음이 약해진
건 아니요? 허허…》

꺅꺅 웃는 호탕한 웃음소리… 이것은 확실히
그전에 듣지 못했던 대범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
의 목소리였다.

방안은 푸르스름한 연기로 짙 차고 매캐한 냄
새가 떠돌았다. 벽에 주련이 세워놓은 크고 작은
실험기구들과 측정계기들, 시료병들… 커다란
알콜램프우에 놓인 납비에서는 아직도 무엇인가
김을 뿜어 올리며 실실 끓고있었다. 마치 거기엔
도화선이 타들어 가듯 사람의 마음을 긴장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잠재해있는듯싶었다. 쉽없이 날
아와서 두눈을 아프게 찢러대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가?

정경진은 갑자기 전기에라도 감전된듯 몸을 부
르르 떨었다. 한켠 구석의 자그마한 책상앞에서
온몸에 미광같은 어지러운것을 매닥질한채 딸에
게 얼굴을 내맡긴 운명삼을 보았던것이다.

희끗희끗한 머리칼, 이마를 말고랑처럼 파고
지나간 깊은 주름살, 고집스레 다물린 두툼한 입
술…

깨여진 유리조각, 희유스름한 시료덩이들이 발
치에서 나뒹굴었다. 마지막 실험이라고 하더니만
또 실패라는것이 험똥히 알린다.

정경진은 가슴이 미여지듯 아파 오는것을 느꼈
다.

흙냄새 풍기던 어제날의 그 순박한 운명삼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수 없었다. 측은한 생각이 들
기도 했다. 런못가에서 엄성태가 하던 말이 불쑥
머리속에 떠올랐다. 자기-정경진을 것처럼 잊지
못했었다던 명삼이… 머리도 좋고 연구심이 많
아서 어디 가서도 아마 큰몫을 할거라고 말했다
는 운명삼이었다. 아니 그것이 전부는 아니였다.
자기와 함께 있었으면 새로운 선편법도 완성하
고 월봉천은 벌써 오래전에 오염을 모르는 비옥
한 양어수역으로 전변되었을거라고 못내 안타까
와했다던 운명삼이가 지금 저 지경이 되어있는것
이 아닌가…

별안간 운명삼이가 책상을 소리나게 치며 의자
우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 실머리를 찾았소. 역시 배합비율에 문제
가 있었구만. 폭발은 그래서 일어난거야. 애 금
선아, 여보, 다시 시작합시다. 이번엔 틀림없
소.》

유리파편에 상한 턱에서 붉은피가 나왔으나 그는 딸애의 처치하던 손을 물리치고 활기있게 방안을 거두기 시작했다.

《아버지…》

금선이가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불렀다.

《응… 왜 그러니?》

《오늘은 처지를 하구 래일 하자요.》

봉녀가 거두던 일감을 든채 남편에게로 다가간다.

《여보, 우리가 다시 준비할테니 오늘은 좀 눈을 붙이세요. 벌써 며칠밤 꼬박 새우지 않았나요. 쇠로 만들었던들 그 몸이 견디겠어요?》

윤명삼은 간절한 눈매로 자기를 쳐다보는 모녀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일손을 잡았다.

《이 몸에 상처나 피로가 무슨 대수겠소. 저 강물이, 그리구 아름다운 조국산천이 아직 보호의 확고한 담보를 못받고있는데… 우리한테 얼마나 큰 임무가 차례졌소. 난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아 쉬고픈 생각두 없소.》

모녀는 종시 돌아서서 눈굽을 찢고 폭발소리에 놀라 뛰어들어간 엄성태도 머리를 깊숙이 수그리고 그들의 일손을 거들었다. 방안에는 엄숙한 분위기가 깃들었다.

이윽고 윤명삼은 다시 알콜램프에 불길을 높이고 시약덩어리를 남비에 떨구었다. 숨소리, 연필 사각거리는 소리, 화학반응으로 부글부글 끓는 소리…

정경진은 파고세운듯 그자리에 서서 끝없는 회오의 감정에 사로잡혀 윤명삼을 바라보았다. 그의 앞에는 세상만물의 수호신같은 인간이 서있었다. 조국강산을 오로지 사랑의 감정으로 지켜가는 사람, 이 땅의 풀 한포기 지어는 물 한방울도 무한한 애착을 가지고 신성하게 대하는 사람!

… 그런 인간이 자기앞에 서있었다. 명령과 임무를 받고 다 같이 그들은 이 골짜기로 오지 않았던가. 그들의 출발지점은 같았다. 그들이 받은 과업도 하나였다.

세월이 흘렀다. 한사람은 이 땅의 수호자로 남았고 다른 사람은 끝내 참아내지 못하고 락오자가 되어버렸다. 윤명삼은 얼마나 아득한 높이에 올랐는가. 과연 정경진은 행복을 찾았던가? 그는 언젠가 외국어교원인 안해에게 룡담비슷한 이런 소리를 한적이 있었다.

《내가 도급지도원으로 되기까지를 가만 돌이켜 보면 거의 10년을 주기로 운명에서 큰 전환이 생기거든, 하하…》

《그럼 이제조금 있으면 중앙급 일군이 되겠군

요…》

《뭘… 그렇게까지야…》

정경진은 안해의 말에 섞인 아이로니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껄껄 웃어버렸다…

그 운명의 《년대기》들에서 가장 귀중한 시절의 하나가 공백으로 남았음을 정경진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생활의 전철기》를 대피선으로 돌려놓고 지금껏 《연착》과 《퇴행》의 길을 걸어온 자신을 깨닫고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조국은 우박치듯 하는 총탄과 포화력속에서만 지켜지는것이 아니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땐 벌써 반백이 되어버렸다. 켜 오래전에 그는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향유할 자격을 상실했던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살갈이 빠른 세월은 그 인생의 공백을 오늘의 인망있는 일군의 모습으로 덮어버렸다.

하지만 어머니조국앞에 정경진이란 인간이 해놓은 일은 무엇인가? 이 강산의 일목일초를, 그리고 흘러가는 저 강물에 조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비끼도록 진심을 바쳐왔단말인가?

왜, 어째서 오늘에야 지금 이 시각에 와서야 아무런 량심의 가책도 없이 진지를 리탈했던 20여년전의 일을 두고 빠져런 가책을 하게 되는가? 이것이 문제였던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이 땅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시며 봄이면 꽃을 즐기고 가을이면 열매를 따려고, 그것도 더 알차고 맛있는것을 가지려고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일요일엔 낚시터에서 큰고기를 잡아내지 못해 안타아하는것이다.

(그는 바로 나였다…)

정경진은 끝내 그리운 친구의 이름도 불러보지 못하고 비칠거리며 돌아섰다. 숨이 막히었다. 거기에는 자기의 자리가 없었던것이다.

여름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반원형의 하늘엔 별들이 총총 내돌았고 창문엔 불빛이 밝게 타올랐다. 마치 전혀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은듯싶었다. 실험으로, 연구사업으로 맞고보내는 보통날의 저녁이었다.

창문으로 신비롭게 느껴지는 화학식을 떠엄떠엄 부르는 명삼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있었다. 그것은 맑은 시내가애로 고기떼들을 불러들이는 소리였다.

명삼의 저 목소리를 들으며 열목어들이 알을 쏘려 상류로 올라오고있으리라…

정경진은 시내가를 거슬러오르는 고기떼들을 눈앞에 보는것 같았다. 이 땅과 속삭이고있는 수호자의 사랑의 목소리는 끝없이 울리고있었다.

영웅적인 현실속에서

시대의 거창한 숨결이 맥박치는 현실속에서 위대한 인민, 들끓는 현실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강력적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수많은 작가들이 배낭을 메고 이미 중요 사회주의대건설장으로 들어갔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 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악동하는 현실은 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창작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사상단련의 용광로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격동적인 사변과 거대한 혁명적 실천으로 충만되어있는 현실속에서 깊이 있는 체험을 하며 창작하고있는 작가들의 투쟁에 대하여 그 일부를 소개한다.

북부철길을 따라

얼마전 우리는 천만산악을 헤쳐 험한 계곡을 건너 힘차게 뻗은 해산-만포청년선 공사장 현지에서 생활하며 창작하고있는 조선문학창작사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그곳에 갔다.

북부지방의 추위는 어지간히 우리를 괴롭혔다.

그러나 이 추위속에서 청년건설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자신만만한 투지를 안고 창작전투를 벌리고 있을 작가들을 생각하니 우리의 발걸음은 저 으기 빨라졌다.

해산에 있는 량강도 문학창작실에 들어서니 거기에는 현지에 나온 조선문학창작사 김성조부사장이 시인 김재윤이 쓴 작품초고를 놓고 토론하고있었다. 김성조부사장은 얼마전 북부철길공사장에서 현실체험을 하며 창작하고있는 작가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왔다는것이다.

우리와 마주앉은 부사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작품은 마땅히 혁명적 현실을 열렬히 찬양하고 시대의 거세찬 맥박에 활력을 더해주는 강렬한 불길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품을 쓰자면 우리 작가들이 현실을 알아야 하며 현실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북부철길을 따라 동승해보시오. 우리의 위대한 현실을 더 잘 알게 될것입니다.》

다음날, 우리는 해산청년역에서 《신파소년호》려객열차를 타고 만포청년역으로 향하였다. 우리와 함께 시인 구회철동무도 떠났다. 그로 말하면 지난 기간 이 북부철길에서 청년건설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수많은 시작품들을 창작하였던것이다.

열차는 긴 기적소리 울리며 내달리기 시작하였다. 해방전, 보름분의 식량을 마련해가지고 길을

떠나서야 기차구경을 할수 있었다는 이 지방에 기쁨가득, 웃음가득 신고 열차가 달리는것이다.

열차가 늑평청년역을 지나자 농장포전에서 일하던 삼수땅의 처녀들이 일손을 멈추고 달리는 열차에 정답게 손저으며 웃음짓는다.

《창조물이란 불수룩 궁지에 넘치고 힘을 주는 것이지요. 나는 이 구간을 건설할 때는 도보로, 지금은 이렇게 기차로 여러번 다녔지요. 그러나 매번 다닐 때마다 인간의 힘이 위대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세월의 흐름속에 지구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얼마나 많은 철길들이 건설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창조되었습니까.

하나 나는 그 어떤 책에서도, 영화의 화면에서도 우리 북부철길공사처럼 힘겹고 간고함을 보지 못하였습시다. 이것은 내가 청년건설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느낀것입니다.》

시인 구회철동무의 얼굴은 크나큰 감동에 젖어 있었다.

630리, 그 길이로써도 어려움을 헤아릴수 있는 구간이다.

점점 막아선 산밭을 꿰질러놓은 76개의 차굴, 험한 계곡을 가로질러 놓은 116개의 철다리, 평균 10리도 못가서 차굴을 하나씩 팔고 5리가 되면 다리를 하나씩 놓았으니 이야말로 차굴과 다리로 이어지고 이어지는 철길이였다.

여기에서 1,000여개를 헤아리는 구조물들이 북방의 자연조건과 조화롭게 어울려있는것이다.

이천-세포사이 철길건설작업량보다 10배나 되는 북부철길건설이였으니 그때의 속도로 하자면 20년이 실히 걸려야 했고 공사조건도 몇배로 더 간고했다.

기차는 별로 끝은 길을 모르고 산세를 따라 에 돌며 압록강을 옆에 끼고 달렸다.

겨울이어서 한쪽 차창으로는 온통 흰눈으로 뒤덮인 이름 모를 산밭들이 근경으로 흐르고 아아한 낭떠러지쪽 차창으로는 얼어붙은 압록강이 원경으로 비쳐들었다. 길손들은 신비로운 경치에 한껏 매혹되어있었다.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황홀경에 침취되어있지만 이 철길을 건설한 청년건설자들의 투쟁은 얼마나 위훈에 찼던가.

사실 그때 청년건설자들앞에는 엄혹한 시련이 가로놓여있었다.

차굴을 파고 다리를 놓을 자리엔 모래, 자갈, 강재를 부리워볼만한 마당은 고사하고 청년건설자들이 의지하고 생활할 휴게실 한채 마음놓고 지어볼만한 공지도 없었다. 200리, 300리 떨어진 곳으로 험한 산밭을 깎아 외통길을 마련하고 그 많은 자재를 운반해야 했고 압록강바닥을 헤쳐

골재를 얻어내야 했다. 자동차와 트랙토르, 불도저 등 현대적 기계수단의 덕을 도저히 볼수 없는 험한곳에서는 결사전을 벌였고 난관을 맞받아 역적같이 앞으로 나아갔다.

산새도 날아들기 주저하고 산짐승조차 발불이 기 두려워하던 이고장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 육성된 청년건설자들은 기어 이 두 줄기 은빛청춘케도를 일떠세웠다.

렬차는 기운차게 달렸다. 날벼랑, 깊은 계곡, 차굴, 철다리, 웅벽, 잘 꾸러진 역사와 급수탑... 이 모든것은 려행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있었다.

렬차가 두개 도를 련결시킨 긴 차굴을 지나 얼마간 달렸을 때였다.

북부철길 전기철도공사를 하는 청년건설자들로 하여 철길 량옆은 몹시 흥성거렸다. 변전소를 건설하고 전차선로를 늘이며 전주구멍이를 파는 건설자들의 일손은 놀라운 정도로 날랐고 세웠다.

《소설가 허춘식동무가 아닙니까,》

우리 일행중 누군가 소리치자 모두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거기에는 장편소설 《야금기지》를 내놓아 독자들을 기쁘게 한 소설가 허춘식동무가 청년건설자들과 함께 걸싸게 일하고있었다.

《웁습니다. 허춘식동무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멀지 않은 변전소건설장에는 시인 백하동무가 있습니다. 이 북부철길건설장 전구간에 조선문학창작사 소설가, 시인, 아동문학작가, 평론가 20여명이 청년건설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창작하지요. 우리의 창작수첩들에는 청년건설자들에게서 들은 좋은 이야기와 직접 체험한 사실과 사건들로 그득차있답니다.》

자랑스럽게 말하는 구희철동무의 얼굴에는 크나큰 긍지가 비껴있었다.

시인 백하동무만 해도 그렇다.

그는 산새도 깃을 내리지 못한다는 칼벼랑에 바줄을 매고 하늘의 수리개마냥 발과구멍을 뚫고 길을 내던 청년영웅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서 귀중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10만산을 통채로 날려보낸 청년건설자들을 찾아 눈보라 수습리길을 걷기도 했던것이다. 이 과정에 그는 훌륭한 시들을 창작하였다고 한다.

소설가 허춘식동무의 체험생활은 남다르게 진지하다고 한다.

그는 북부철길건설장은 우리 청년건설자들을 사상의지적으로 단련시키고 기술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킨 종합대학이었다고 하면서 건설자들의 영웅적 성격창조에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이미 그는 남다르게 특출한 위훈을 세운 스물네살의 처녀로력영웅 남궁선희동무와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철길공사장의 젊은 지휘관인 개성시 청년돌격대 리더장 로력영웅 서광룡동무의 영웅적 투쟁에 대해서도 세세히 파고들었다.

돌사태를 자기 몸으로 막아 동지를 구원한 나 어린 남포시 처녀의 이야기도, 동지를 구원하고 희생된 함경남도 청년돌격대 북청중대 정치지도

원 원성호동무에 대한 이야기에 끌린 그들의 희생정신의 사상정신적 풍모도 앞으로 소설가가 쓸 작품의 형상세계에 깊이 깔려있는것이였다.

이러한것이 어찌 이 두 작가에게만 한한것이랴.

주유훈, 차승철, 오재신, 원도홍, 김정길 등 북부철길건설장에서 현실체험을 하며 생활하는 모든 작가들에게서 다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북부철길 건설을 구상하시고 180여차의 강령적 교시를 주시였으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북부철길 건설을 사로청에 통채로 맡겨주시였을뿐아니라 강력한 건설부대를 무어주시고 공사 전과정을 세심히 보살펴주시며 위훈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북방천리 먼곳에 명절이 오면 사랑의 직승기를 띄워 제일먼저 선물을 실어 보내주시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솜옷과 신발을 보내주시었다.

《지금 우리 작가들은 영웅적인 현실속에 몸을 잠그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청년건설자들의 무한한 충실성, 완강한 투쟁정신을 속속들이 체험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200일전투가 2000일전투, 2만일전투로 이어지게 하려고 펼쳐나선 청년건설자들의 사상정신세계를 깊이있게 형상화할것입니다. 나도 이 기간에 구상중에 있는 서사시를 꼭 완성하려고 합니다.》

시인과 우리의 이야기는 현실체험에 대한것으로 계속되였다. 려차는 기운차게 앞으로만 내달리였다.

눈 덮인 들에서 나는 이야기

우리가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현실체험을 하며 창작활동을 하고있는 소설가 최상순동무를 찾아갔을 때는 대소환주위가 한창인 어느날 오후였다.

소설가와 함께 우리는 눈 덮인 농장길을 걸었다.

백설이 뒤덮인 땅에서 농장원들은 트랙토르와 소발구로 잘 갈구어진 두엄을 실어날랐고 한쪽에서는 분수식 발관개때문에 얼어붙은 땅을 파헤치느라 몹시 분주했다. 얼어붙은 땅에 곡괭이날이 딱딱 부딪쳤지만 가슴을 뚫이는 그들의 열정이 언땅을 뚫고 뚫고 뜯어내었다. 보기만해도 기운이 솟는다. 이따금 구성진 노래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정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의 풍만한 서정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말하자 최상순동무는 지난날 소 한짝이 없어 사람이 가대기를 끝던 이 고장에 오늘은 자동차와 트랙토르가 발나를 이어달리고 해마다 알곡 대풍, 과일대풍이 든다고 긍지에 넘쳐 말했다.

최상순동무로 말하면 몇해전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다녀가신 이곳에 현지 파견되어 창작사업을 하고있는 녀성작가이다. 이미 그는 중련

소설 《새벽별》을 써서 독자들과 친숙해지었다.

우리가 그에게 현실생활속에 몸을 잠그어 일하고 창작하면서 제일 생각되는게 무엇인가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지난 기간 내가 현실속에서 강하게 느낀것은 우리 시대 주인공들의 정신적 높이와 글을 쓰는 사람인 내가 가지고있는 〈척도〉와의 차이였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있는 그 〈척도〉와 현실속에 있는 주인공들의 정신적 높이 사이에 있는 간격을 느끼게 될 때마다 자신의 준비정도가 돌아켜보아지게 되었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 작가들이 현실 생활을 생동하고 심도있게 그리는 문제가 그 작품이 사람들의 사상교양에 복무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기본문제로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경우, 나는 우선 우리 당의 주체농법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사업을 앞세우면서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을 깊이 알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당조직생활도 작업반원들과 같이 하였고 또 관리일군들과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는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그들에게서 배우고 배워준 이야기를 실감있게 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사회주의농촌체제의 완성을 위하여 애써 일하는 한 녀성농촌일군을 형상한 소설의 초고를 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소설가는 지난 시기 농촌체제의 사상이 꽃피나

고 있는 현실을 그린 일부 작품들이 사회주의 농촌현실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리지 못한것은 우리 작가들이 농촌현실을 완전히 터득하지 못한채 붓을 든 사정과 관련된다고 하면서 현실속에 깊이 들어 가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가 없는 무계급사회건설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진군길은 초행길이며 따라서 여기서는 책상머리에서는 생각해낼수 없는 여러가지 새로운 생활적 문제들이 창작실천상 제기되더라고 하였다.

이윽고 그는 눈 덮인 벌판을 바라보다가 생각깊은 어조로 말하였다.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고서는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종자의 탐구와 새로운 문제의 제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눈길을 걸을 때마다 나의 심장에도 열정의 샘이 고이여 충성의 물결을 일으킨답니다. 이런 때엔 좋은 생각도 떠오르지요.》 소설가는 의미있는 웃음을 지었다.

우리는 행복한 꿈을 안고, 래일의 크나큰 전망을 안고 창작사업을 하고있는 최상순동무가 한없이 부러웠다.

우리는 그의 창작에서 놀라운 성과가 있을것을 진심으로 기대하였다.

본사기자

가 사

못가의 피리소리

윤병규

고요히 설레이는 삼자연못가에

향일의 유격대원 그 모습 정답고나

꿈에도 잊지 못한 어머니조국에서

목메여 불던 피리 농지를 못하네

밀림의 긴긴밤에 행군의 설참에

사향가 구성지게 울려 온 피리소리

빼앗긴 내 조국을 기어이 찾으리라

불타던 그 마음이 이 가슴 흔드네

세월은 흘러흘러 멀리도 왔건만

못잇을 사연 담아 울리는 피리소리

수령님 찾아주신 귀중한 내 조국을

굳세게 지켜가라 우리를 부르네

못가의 피리소리 투사의 피리소리

락원의 이 강산에 끝없이 울려가네

평양과 나

- 한 해외교포의 수기 -

정룡순

내 어느 문을 두드렸던가

문은 열려있다 층층 높은 집들마다
역사의 문도 열려있고
이 먼목없는 아들에게
고향아, 너의 문은 다 열려있구나

마중나온 얼굴들은 웃는 꽃송이들
마주잡은 손길들엔 정이 뜨겁구나
다시 드는 눈물어린 시야엔
해빛 넘친 행복의 거리

고향집의 추녀가 그리워
대동강이 그리워
울며 헤매인 지나간 수십년 세월
언제나 열려있을 조국의 문이 아닌가

조국은 지나간 세월
저처럼 문을 열고 하루와 같이 나를
불러주었구나
고향앞에 조국앞에 한일없는
속죄의 가슴만 두드리던 그 나날에

내 청춘의 마지막 희망이
도교의 포도적우에 산산이 흩어질 때
안개속에 쓰러져 멀리 멀리
내 손뼉쳐 두드린 문은 어디던가

아, 내 인생의 반백이 된 오늘까지
젖먹이 아이처럼 온 넋으로 두드린 문은
조국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가슴속 내 마음의 문이었구나

고향집

철없을 때 고향떠나
뒤늦게 돌아오는 마음속에
오늘까지 새겨진 고향집 모습은
양철처마의 판자집이었건만

내가 살던 북새동
어디에나 높이 솟은 고층건물
어디라 없이 낫선 여기가
내 고향집자리란 말인가

유치원 다니는 외손녀가
내 손을 잡아끌었던
크나큰 행복과 새 생활의 손길이
나를 이끄는듯

선뜻 발 옮겨질기조차
삼가해지누나
귀여운 외손녀의 손길 따르니

방안엔 높이 모신 초상화

아,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한 **김일성**원수님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
두분의 인자하신 안광이어

내 류량의 나날 이역땅에선
네온이 비긴 형형색색의 문턱들
넌을 때마다 이 가슴
첩첩 막혀만오더니

아, 가을하늘처럼 창창히 열리는 마음속에
인생의 만시름 가져치고
새 삶으로 태어나는 나를
행복의 새 세계에 높이도 받들어 세워주는
이 집이 정녕, 나의 고향집이구나

학교의 분수가에서

재롱스럽고
시름없는 아이들 웃음소리에 이끌려

무지개 피어나는 분수가에 서니
내 아이적 그날이 생각나라

《월사금》 못내고 돌아오던 날
 눈물속에 그려보던 푸른 하늘
 내 희망 나래펼칠 그 하늘이
 네 분수속에 다 비껴있구나

학교에서 쫓겨나던 날
 날아난 꿈 그 희망의 무지개
 어디 갔는가 했더니
 네 분수가에 피어있구나

망국노의 그 세월 못피우고
 떠나서도, 떠나서도 내 못피우고만
 내 어린 시절의 그 꿈, 그 희망
 조국은 잊지 않고 간직했구나

우리 글소리 랑랑한 교실의 창가에
 아이들의 고운 선물옷 꽃무늬속에

함께 꽃피워 안고있구나
 네 무지개속에 내 기쁨도 어려있구나

쓰라린 류량의 긴긴 세월
 내 인생의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져
 나마저 잊은적 있던
 내 어린 시절의 그 꿈, 그 희망

아, 사랑의 분수여
 너는 못잊어 피워 안고
 고향의 하늘, 평양의 푸른 하늘에
 아름답게 펼쳐 들고 나를 부르누나

어디 가나 인생의 로목에도
 조선의 꽃을 피우라고
 죽어도 죽어서도 내 고향, 내 나라
 받드는 그 마음 변치 말라고

평양종

내 아이적
 종지기 몰래
 돌을 던져 보던
 평양종

책에서 배운
 《에밀레종》
 그 종소리와
 어찌 다를가 싶어

한번 던지면
 《뎡》
 두번 던지면
 《데엥》 《데엥》

내 반백이 된
 나이지만
 그날의 아이 되어
 서보는 마음

아이적 매미잡던
 저 련광정아래 버드나무가지 꺾어들고
 타종봉 삼아 두드리면
 무슨 소리 날것인가

경주의 《에밀레종》은
 《에밀레-》
 《에밀레-》
 했었지만

운명의 노를 잃고
 난파에 허덕이며
 한생을 덤볼길 걸어
 오늘에 온 나를 보고

아, 행복을 펼쳐 안고
 나를 기다린 평양의 이 종은
 《기다렸네-》
 《기다렸네-》라고 울리리

자식 떠나보낸
 어머니의 아픈 마음
 기다리던 오랜 세월
 그 마음을 쏟는듯

《기다렸네-》
 《기다렸네-》
 자식을 기다려 온 그 마음
 평양의 그 마음이 울리리

평양의 창문들은...

평양의 창문들은
 날보고 웃는구나
 이제야 네가 왔는가고
 이제야 정말 왔는가고

내 누이의 얼굴, 동생의 얼굴이 되어

살뜰한 이웃의 눈빛들이 되어 묻는구나
 얼마나 고향이 많았는가고
 얼마나 설음이 많았는가고

이역의 하늘아래서
 때없이 그려보면

낮설은 로대새로 하늘의 별빛되어
애절한 향수속에 내가 빛났지

그 어느 유리창에도
정다운 사람들의 눈빛처럼 햇빛이 눈부시구나
평양의 창문들은 날보고
기뻐 기뻐 웃누나, 웃는구나

아, 고향땅에 전쟁의 불구를 피어오를 때
내 고요한 호수가로 인생의 노를 저어갔고
허리띠를 졸라매던 복구건설의 날에도
내 한장의 벽돌도 없지 못했건만

제집처럼 들어오라고

사양말고 어서 들어오라고
낮에도 밤에도 나를 반기는
조국인민들의 마음어린 창문들

저 로대를 하늘가에 없으며 땀방울 흘릴 때
내 이국의 양벚나무 그늘아래 있었건만
내 기쁨도 되라 평양의 녀인들
정히 닦아내고 닦아낸 저 창문들

아, 하늘가에 간들 잊으랴
죽어선들 잊으랴 조국의 품이여
아아, 자꾸만 나를 보고 눈짓하는
고향의 눈빛, 평양의 눈빛아

발파시간은

권강일

쿵- 쿵-
발파소리는 창문을 흔든다

군단포의 장엄한 포성 메아리치던
전화의 날 야전식당이 여기에 펼쳐진듯
식사하던 전사들 마주보며 빙긋
발파소리 그 수를 말없이 헤어본다

쿵- 쿵-
발파소리는 식탁을 구른다

벼랑턱은 뭉청 날려 갔으리
바위산도 뿌리채 뒤집혔으리
공사장의 모양을 눈앞에 그려보며
홀홀- 배추국 달게 먹는다

아까웠더라
하루 세번 식사시간
아침에, 저녁에, 불같은 한낮에

공사장을 그저 비워 두는것이

아까웠더라
발파의 돌벼락을 피해서 모두
산뒤에, 대피호에 숨은 시각이
마음속엔 천년인듯 길기도 했더라

누가 말했더나
휴식시간에 하자
발파는 쉬는 시간에!
발파는 식사시간에!

비워 놓을세라 점심식사 이 한때도
흘러가는 시간을 가득채우며
공사장에 쿵- 쿵-
하늘땅에 쿵- 쿵-

아, 전사들 심장의 울림으로 가득찬
《평양-개성 고속도로로》전투장이여!

반지

안성수

오직 그대밖에는
누구에게도
이 마음 바치지 않으리라고
서로 바꾸어 낀 맹약의 반지에

눈동자처럼 빛나던 수정꽃이

모진 매에 깨어져
고문실 바닥에 굴러떨어진다

가슴이 뒤집힌다
그대의 뜨거운 체온
닿아있는 수정꽃을

더러운 구두발이 짓밟아요
한길우에 변치 말자
굳게 다진 우리의 맹약을

사랑하는 그대여
수정꽃은 부서져
질박한 바닥에 짓밟혀도
그대와 다진 맹세는 금간데없이
나의 심장에 간직되어있어요

내 원수가 원하는
달콤한 차잔을 차던졌어요 .
안락의자에 침뱉으며...

그대여
어느 싸움길에 제시나요
통일혁명이 승리한 날에
나는
수정꽃 부서진 이 반지를
후회와 가책없이
그대에게 바치리다

모진 악형도 흔들지 못한
철석의 의지로 맹약을 지킨
불타는 심장의 징표
참되게 산 조국의 딸된 자랑으로

정해진 운명

안정기

군복우에 양복 입고
《대통령》 감투 쓰고
민중이 속대에 올라간듯
거들대는 너 로태우

아무리 권세가 탐나고
황금이 좋기로니
구미호도 못당할 요사를 부려
하루 아침 슬쩍 《민간인》 되고
어느새 제격 《감투》까지 뺏어쓰다니

네놈의 그 변신술, 둔갑술에
짐승들도 침뱉는다
하는 수작, 하는 거동
온통으로 뒤바꾸니
말만해도 역겨워...

미제의 《군견》으로
날뛰던 때가 언제인데
흰 장갑 낀다고 피자옥 감춰질가
광주사태 주범인 네놈이
《위령탑》을 세우며 눈물까지 흘린다고
인민들의 그 원한 삭아질가

네놈은
두개의 낯짝을 가진 흉물
그 미소는 가짜, 진짜는 탄압
말해보라
《감투》를 쓰기전의 《공약》은 다 어데 가고
《민주》와 《화합》을 떠드는 이 시각
《비상계엄령》에 폭압소동 웬일이나

웃는 승냥이 로태우
미소작전으로 인민을 우롱하고
뒤에서는 칼을 가는 악한
네놈이 바라는데로 인민은 속지 않는다
세상은 꺼꾸로 서지 않는다

《팀 스피리트》의 포성은
《평화》의 북소리고
최루탄가스는 《민주》의 꽃가루라고
《러객기사건》은 《북의 소행》이니
유엔에서 《제재》해달라고
아무리 앙탈해도 안된다
진실과 허위는 못바꾸는 법

역지가 4촌보다 낫다고
거짓말도 자꾸 하면 사실된다고
넵다밀고 우겨보라
그것은 까마귀는 희고
승냥이는 풀을 먹으며
해는 서산에서 뜬다는것과 같은것
온 세상이 웃으리라 네놈을 두고

술뚜경처럼 낯짝이 두꺼워도
손벽처럼 뒤집기를 잘해도
바로잡지 못하리라
정해진 그 운명만은

인민의 심판대에
오르는것은 다만 시간문제뿐
그때엔 로태우 네가 즐기는대로
꺼꾸로 매달리라
그 《감투》도 뒤집혀 덩굴리라

계급투쟁의 진리를 밝혀주는 혁명적인 가사

-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 나오는 노래 《언제부터 이 땅우에

머슴생겼나》에 대하여-

김성희

이지러진 조각달이 불공평한 인간세상을 처량히 비치고있는 깊은 밤,

앓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머슴살이할것을 결심한 꽃분리와 죽어도 딸자식만은 머슴을 시키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또다시 가까스로 지주집 매돌앞에 와 앓은 어머니, 불쌍한 어머니와 딸이 서로 부둥켜안고 흐느껴울고있을 때 관중들의 가슴을 아프게 저미는 노래가 흐른다.

언제부터 이 땅우에 부자생기고
언제부터 이 땅우에 머슴생겼나
아버지와 어머니도 아들과 딸도
대를 두고 머슴살이 해야 하는가

관중들은 이 노래를 들으며 꽃분리네 일가의 원한과 눈물을 함께 체험하면서 부자가 생기고 머슴이 생겨 수수백년을 흘러온 지난날의 피눈물의 역사를 더듬어보게 된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속의 결론을 내린다.

-배지주와 같은 착취배들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한 꽃분리네와 같은 불쌍한 머슴들은 계속 생겨날것이며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다시는 저런 세상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생명을 바쳐서라도 착취계급, 착취사회를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하며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이 된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피로써 사수하여야 한다.

-관중들이 내리는 이러한 결론이 바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 나오는 노래 《언제부터 이 땅우에 머슴생겼나》가 보여주는 사상정서적인 내용이며 그 여운이다.

가사는 사람들의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곡과 더불어 목적인 사상예술적 성과를 높은 경지에서 달성하였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가 한 가정의 비극적인 운명을 통하여 계급투쟁의 철리를 밝혀주는 생활과 투쟁의 산 교과서로 되어 세계만방에 빛을 뿌리고있는것은 《언제부터 이 땅우에 머슴생

겼나》와 같은 소박하면서도 혁명적인 가사들로 충만되어있기때문이다.

가사 《언제부터 이 땅우에 머슴생겼나》는 가극 전체에서 보면 한 장면에서 간단히 불리워지는 가사이지만 사상정서적 내용의 풍부성과 독특한 시형식으로 하여 강한 여운을 남기고있는 훌륭한 가사이다.

가사는 무엇보다먼저 가극의 주인공들인 꽃분리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눈먼 순희와 잡혀간 철룡이의 마음까지 다 합쳐 설움과 원한의 하소연을 실감있게 반영하였다.

가극에서 꽃분리와 그의 일가가 겪는 체험세계는 관중들의 체험세계이다.

관중들은 꽃분리와 더불어 지주놈에게 사정도 해보고 눈을 빼앗기고 안보인다고 몸부림치는 어린 순희를 부어안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며 지주놈의 집에 불을 지르고 잡혀가는 철룡이를 따라가면서 목이 터지게 울부짖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울어보고 물어보고 몸부림쳐봐도 차려지는것은 벗어날때야 벗어날수 없는 머슴살이의 원한과 눈물뿐이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때문에 머슴살이로 온 집안이 죽어가야만 하는가, 도대체 이 땅우에 저 지주놈과 같은 부자는 언제부터 생겨났고 우리같은 머슴은 언제부터 생겨났는가.

가사는 꽃분리의 심중속에 파고드는 이 절박한 물음-피착취근로대중의 운명문제를 소박하나 심각하게 명백히 제기하고 풀어냄으로써 그 사상정서적 내용의 풍부성을 훌륭히 담보하고있다.

가사의 생명은 의의있는 사상적 내용을 세련된 시형상으로 밝혀내는데 있다.

이 가사는 가극의 생활이 배출시키는 의문, 다시말하여 날이 갈수록 꽃분리의 가슴속에 커만 가는 인간사회에 대한 의문을 그대로 시형식으로 구현하였다.

물음으로 시작되고 물음으로 끝나는 이 가사형식은 단순히 가극의 앞뒤 내용을 이어주거나 주인공 꽃분리의 심정을 대변하는데 그치는것이 아

니라 꽃분이와 관중들의 혁명적 세계관형성에서 하나의 결절점을 이루는 뚜렷한 사상적 양양기를 형성시키고있다.

이리하여 가사는 관중들로 하여금 비단 가극의 생활정황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가난했던 지난날의 처지를 잊지 말고 행복한 오늘과 보다 휘황할 래일에 대한 강한 열정과 지향으로 가슴을 뚫이게 하고있다.

이러한 성과의 요인은 바로 우에서 본바와 같이 이 가사의 사상정서적 내용이 심오한데도 있겠지만 인간의 운명문제에 대한 절박한 물음속에서 스스로 대답을 찾게 만든 독특한 시형식을 선택한데도 있는것이다.

가사 《언제부터 이 땅우에 머슴생겼나》는 간명하고 통속적으로 씌여져야 하는 가사창작의 근본원칙도 철저히 구현한 명작이다.

가사를 간명하면서도 통속적으로 쓰자면 말하려는 사상의 핵을 틀어쥐고 대를 똑바로 세워야 할 뿐아니라 체험시켜야 할 사상감정가운데서 오직 정수적인것만을 함축된 시어로 간결하게 형상해내는 예술적 기교가 있어야 한다.

이 가사의 사상적 핵은 《이 땅우에 머슴살이의 설움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왜 머슴살이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속에 들어있는 《머슴살이의 설움》이다.

아버지도 머슴살이로 골병이 들어 한많은 세상을 떠났고 오빠 역시 아버지의 대를 이어 머슴살이를 하다가 붙잡혀 가고 머슴살이때문에 나 어린 동생 순희도 억울하게 눈이 멀고 어머니까지 머슴살이에 몸져눕게 되어 이제는 자기까지 머슴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주인공 꽃분이의 피눈물 어린 생활행로는 말그대로 머슴살이의 설움으로 짙어차있는것이다.

가사는 바로 이 사상적 핵을 튼튼히 틀어쥐고 불과 얼마 안되는 시어들인 《언제부터》, 《이 땅우에》, 《부자》, 《머슴》, 《생기고》, 《대를 이어》, 《해야 하는가》 등을 가지고 간명하면서도 통속적으로 씌여지고있다. 이것은 가사창작사상 매우 보기 드문 형상기교이다.

때문에 이 노래는 한번만 들어도 내용과 곡이

쉽게 리해되며 부르기도 험한 노래로 되었던것이다.

노래에 담겨져 있는 사상적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인민대중이 리해하지 못한다면 사상교양적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

인민이 받아들일수 있는 노래의 가장 주되는 특성은 곡도 잘되어야 하지만 먼저 가사가 알기 쉽고 부르기 험하게 되어야만 한다.

가사 《언제부터 이 땅우에 머슴생겼나》가 가지고있는 이러한 통속성과 간결성은 우리 민족의 가장 주되는 성격적 특질의 하나인 소박성과 진실성을 살리는데서 큰 역할을 놓고있다.

사실상 이 가사는 아무리 읽어 보아도 소박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곳이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소박하고 진실한 그만큼 절절하고 예리하며 그가 가져다주는 정서적인 파문은 혁명을 하여 착취계급의 세상을 뒤엎어야 한다는 숭고한 사상적 경지로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아직도 세계에는 어제날 우리 나라의 수많은 꽃분이들이 겪던 그 머슴살이의 원한과 죽음의 세례를 겪으며 자유와 해방, 인간적 존엄을 갈망하여 애타게 몸부림치는 피압박인민들이 있다.

인민의 고향로 비대해진 착취배들의 학정밑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피압박인민들이 이 노래를 부른다면 저절로 혁명할 생각이 나게 될것이다.

바로 여기에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서 나오는 수많은 노래들과 함께 《언제부터 이 땅우에 머슴생겼나》가 가지는 거대한 생활력이 있는것이다.

이 노래는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고 방울방울 눈물어린 꽃을 팔며 고달픈 생을 이어가다가 드디어 설움과 한숨의 울타리를 박차고 결사의 투쟁으로 일떠섰던 꽃분이와 우리 인민에게만 한하였던 노래가 아니다.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은 이 소박하면서도 혁명적인 노래를 부르며 지구상에서 착취계급의 마지막 한놈까지 쓸어버리기 위한 장엄한 투쟁으로 힘차게 일떠설것이다.